

동학혁명 100주년기념 국제 학술대회

대 주 제: 동학혁명의 현대적 조명과 평가

제1주제: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의 배경

제2주제: 동학혁명의 민족사적 의미

- 일 시: 포덕 134^(단기4326)_(서기1993)년 10월 27일(수)~ 28일(목)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후원: 천도교중앙총부, 문화체육부, 한국방송공사

동학혁명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論文 및 要約〉

대주제: 동학혁명의 현대적 조명과 평가

기조연설: 신일철(고려대)

제1주제: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의 배경

사회: 박성수(정신문화연구원)

발표: 최동희(고려대)	신용하(서울대)	표영삼(천도교)
림현구(중국연변대)	박맹수(영산대)	임운길(종학대학원)
토론: 윤이흠(서울대)	박명규(전북대)	박영인(철리포씨주립대)
	장영민(상지대)	권승오(종학대학원)

제2주제: 동학혁명의 민족사적 의미

사회: 신일철(고려대)

발표: 김창수(동국대)	이현희(성신여대)	조항래(숙명여대)
노태구(경기대)	신영우(충북대)	中塚明(일본나라야)
토론: 고성훈(취미문화학회)	김정의(한양여전)	유준기(충신대)
배영기(숭의여전)	조성윤(제주대)	김승일(동국대)

주최: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후원: 천도교중앙총부, 문화체육부, 한국방송공사

개 회 식

○ 개 식

○ 국 민 의 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 심 고

○ 개 회 인 사

회장 김현국

○ 격 려 사

천도교 교령 오익제

○ 동학혁명군추모가합창

천도교여성합창단

○ 일 정 소 개

○ 심 고

○ 폐 식

인 사 말 씀

국내외의 석학을 모시고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여기며 이자리에 동참하시어 빛내주시는 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고해 보면 한국의 근세 100년은 다사다난하여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시공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봉건 왕조정치의 붕괴와 열강의 침략 그리고 국토분단과 민족 분열 등의 역경을 치루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894년의 갑오동학혁명은 우리 민족이 수평사회로 도약하는 효시였으며 세계인류사적인 장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년 1994년이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 선열들이 민족정신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며 남긴 고결하고 거룩한 순국순도 정신을 민족혼으로 되살리며 우리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밑받침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의 기념사업중 하나로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가 동학혁명의 역사 실록을 재현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더없는 지표가 되기를 거듭 바라면서 석학들의 발표내용이 우리들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내외 귀빈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포덕 134(단기 4326 / 서기 1993)년 10월 27일

동학혁명 100주년기념사업회
회장 김 현 국 심 고

격 려 사

오늘 동학혁명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열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신일철 고려대학교 대학원장께서 기조연설과 함께 내일 진행 사회를 맡아 주시고, 박성수 교수께서 오늘 행사 진행을 맡아 주시고, 최동회 교수님, 신용하 교수님, 중국에서 오신 림현구 교수님, 박맹수 교수님, 김창수 교수님, 이현희 교수님, 조항래 교수님, 노태구 교수님, 신영우 교수님, 일본에서 오신 나카쓰카 아끼라 교수님 등 고명한 국내외 학자 여러분의 주제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학혁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년전에 일어났지만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학혁명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주성과 민중성이라는 두가지 성격의 큰 축으로 형성된 동학혁명은 오늘의 민족적 내지 시대적 요청속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주 그리고 민중적 과제는 동학혁명의 두가지 큰 성격과 체인 동시에 오늘의 시대적 민족적 과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목숨바친 30만의 거룩한 선열들의 그 숭고한 정신은 우리가 지금 우러러 머리 숙이면서 그 처참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슬픔에 앞서 온몸이 떨리고 피가 끓어 오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무참한 희생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치있는 것이었는가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3·1운동이 있었고 3·1운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가 설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몰지각한 위정당국자나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동학혁명의 위대성과 그 고귀한 희생을 망각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100년전 30만이 피흘리고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때문에 겨레는 살았고 오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혁명의 자랑스러운 귀감을 우리는 밝혀야 하겠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00년전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 그리고 그 고귀함을 일깨우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향한 새 세상을 추구한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위대한 혁명의 의의를 밝혀야 하겠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직도 프랑스 혁명의 위대함은 알지만 동학혁명의 더욱 위대함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의 집 제삿날 찾듯이 다른 나라 혁명기념일이 언제인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기념일을 모르고 지내갑니다.

자기집 제삿날 모르는 얼빠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차려야 하겠습니다.

100년전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침략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권에 흠이 없는지 스스로 반성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없이 민족적 자주성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적 국민의 지지반 위에 나라의 기틀을 세워 나가는데 달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혁명의 자주성과 민중성은 오늘에 되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 나라를 넘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PKO 해외파병계획은 한반도 진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세계 최강의 핵무장 군사강대국으로서 21세기에는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출하고 아시아를 지배하고야 말겠다는 야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민중적 각성 쫓기와 함께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의 민중적 각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적 정치 경제 사회적 제개혁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추진은 곧 동학혁명의 추구하고 완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직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학혁명의 참다운 그 완수는 통일조국창조와 직결됩니다.

통일조국의 창조는 곧 동학혁명의 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학혁명 100주년을 통일시대를 여는 통일축전의 기념행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북한학자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의 기념행사는 남북공동행사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거듭 여러 교수님의 노고와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덕 134년 10월 27일

천도교 교령 오 익 제 심고

〈대주제〉 동학혁명의 현대적 조명과 평가

기조연설: 동학혁명의 사상사적 성격

신 일 철(고려대학교)

東學革命의 思想史的 性格

申 一 澈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1.

東學革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韓民族의 近代的自覺과 우리 역사위에 새로 대두된 近代的民衆의 集團的抵抗意識을 되돌아 보게 된다. 우리민족의 近代化과정에서 開化運動과 3·1독립운동의 전개는 민족종교 東學의 출현과 甲午東學革命에서 비롯됨을 부인할 수 없다.

東學革命運動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1860년 東學의 出現이래 東學教門運動과 王朝末의 社會經濟的 農民抵抗과의 변증법적 연관에서 우리 역사에서 무엇이 새로이 形成되었는가에 대한 歷史的洞察이 필요하다. 東學과 그 教門組織을 망각한 이 운동의 파악은 단순한 階級鬪爭的 農民폭동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와 반면에 社會經濟的要因을 배제한 이 혁명의 해석은 조선왕조말의 사회경제적 해체과정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의 성격을 배제함으로써 공소한 宗教運動으로 倭少化되기 쉽다.

그러나 이 革命時期를 통해 우리 역사에 어떤 새로운 存在의 대두가 있었는가의 역사적 통찰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농민층의 貧農프로레타리아에 의한 계급투쟁으로 社會主義革命이 배태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民主革命의 준비단계로서의 近代的 民族의 대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운동은 王朝社會의 해체기에 王朝의 무능과 관료층의 가렴주구에 반

항해서 일어난 反兩班社會의 反封建鬪爭이었다. 兩班支配의 末期에 이르러 이른바 “哲宗朝의 民亂”의 시기를 거치면서 變革思想인 東學에 의해 촉발되고 혁명적 규모로 조직화된 대규모의 혁명적 반항으로서 ‘反王朝의 近代民族國家形成’ 전야의 그 과도기에 해당된다.

이 혁명의 生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東學이란 社會變革思想의 출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1860년에 창도된 崔濟愚의 東學은 王朝의 쇠망을 예언하고 兩班支配層에 대신할 民衆(蒼生)이 “輔國安民”의 主體로 상승되어 後天開闢의 새세상이 도래할 것을 待望한 유토피아의 혁명의 이념이 기도 했다.

東學革命의 理念이 된 東學은 양반지배층의 儒敎이데올로기를 否定하고 그밖의 기성종교인 佛敎, 道敎까지도 “儒道·佛道累千年에 運이 역시 다했다”는 時運論의 관점에서 기성종교와 도덕질서를 부인한 것이다. 그대신 東學은 侍天主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萬民平等의 民族宗敎로 포교된 것이다. 東學은 양반사회에서 신분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농민대중에게 侍天主의 신앙에 의해 人格的 自覺을 얻게하고 輔國安民의 主體로서 自尊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제2세교조 海月 崔時亨에 와서는 崔濟愚의 侍天主信仰은 더욱 世俗化되어 “物物天, 事事天”의 汎天論으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을 貴賤의 인간차등없이 또는 天主로 모셔야한다는 “事人如天”의 새로운 人間尊嚴의 윤리가 되었다.

특히 東學思想이 1894년의 東學農民革命의 思想的背景이 된것은 圖讖論的 王朝交替史觀과 後天開闢으로 표현된 末世的 革命意識이었다.

崔濟愚는 그의 “布德文”에서

“我國은 惡疾이 滿世하여 民無四時之安하니 是亦 傷害之數也”

라고 한 이 명제는 조선왕조사회가 깊이 병들었고 모든 백성이 安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傷害之數”라고 한 것은 末世的變亂의 징조로서

三政의 문란 등에서 비롯된 農村經濟의 파탄이요 이에 따르는 王朝統治의 正統性의 위기였으며 또한 異樣船의 出沒과 中國에 대한 西歐勢力의 侵略으로 인해 “曆亡齒寒”의 東아시아文明圈의 위기감까지 겹친것을 표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西學 = 天主教의 浸透에 의한 自文明에 대한 파괴적 충격은 뒤에 東學革命에 이른 시기에 “斥洋倭”의 民族主義로 응집된다.

특히 古阜의 농민봉기 이래 東學革命이 “起包”라고 한 것은 東學教門의 教會組織인 接·包를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東學革命의 組織的基盤으로서 東學의 接·包등 教門組織의 막중한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三南一帶의 농민대중을 東學革命에 동원·집결시킬 수 있었던 응집력중에서는 東學의 萬民平等思想과 東學의 有機的 點조적인 接主制였음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接과 包는 東學教門의 淵源組織인 동시에 大衆을 革命意識化한 이데올로기의 中心이었고 東學軍의 指導的 根幹組織이기도 했다.

2.

哲宗朝의 시기를 흔히 “民亂의 시대”라 해서 각종 농민반항과 반란이 빈발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東學과 그 教門組織은 1894년의 東學革命을 위한 이념과 조직을 마련해 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학대받던 民이 官과 王朝에 대한 集團的示威의 형태로 抵抗權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民이 官에 대항해서 示威·抵抗을 하는 새로운 形態의 集團의民衆勢力의 대두는 東學의 教門組織으로 비롯된다. 따라서 朝鮮朝兩班社會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피지배층의 농민, 그밖의 소외층속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民會” 또는 “民黨”¹⁾이라는 형태로 결속되어 마침내 近代社會의 市民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東學의 教祖伸冤運動으로 시작된 報恩聚會등은 단순한 동학교

도들의 교조의 복권과 교회공인화운동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종교적 운동 방식을 통해서 民의 團體가 생기고 民의 團體的結合을 기초로 해서 對王朝의 集團的示威形態의 政治的抵抗이 생겨난 것이다. 이 점에서 보은취회등은 近代的社會團體의 起源이며 앞으로 나타날 近代的民族國家의 國民像이 그 맹아적형태로 東學革命속에서 生成된 것이다.

제2세교조 崔時亨이 1878년경 東學의 接所를 각처에 설치하고 包接制를 두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동학의 교세가 팽창함에 따라 敎區組織이 정비되면서 각처에 接主를 세우고 그 관할규모의 크기에 따라 大接主, 都接主, 首接主, 接主등이 생기고 또한 包가 생겨 包主가 여러 접주들을 통솔했는데 包에는 각기 사무를 분장하는 敎長, 敎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의 六任制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단을 총괄하는 法所가 忠州에 있었다.

1863년부터 1894년 東學革命이 일어날때까지 약 32년간 崔時亨의 布德活動은 실로 고심참담한 고난의 長程이었다. 天道敎의 「創建史」에서는 이 崔時亨의 地下布敎活動期를 “隱道時代”라 했는데 이시기에 崔時亨은 地下에 숨어서 개나리 보짐 하나 메고 布敎했으므로 그를 “최보따리”라고 별칭하기도 했다.¹⁾

이 30여년간 崔時亨의 布敎方向은 慶州에서 東海岸의 오지인 平海·蔚珍으로 진입하여 그곳의 산간에서 포교를 시작한다. 그의 包接조직은 그곳에서 江原道, 忠淸道를 거쳐 東北風이 되어 湖南地方으로 뻗어나간다. 「天道敎書」의 日誌形態의 記述을 따라 崔보따리가 지나간 곳이 상술되어 있는데 다음 地名들은 30년간의 崔時亨의 布德方向을 말해 준다.

「蔚珍 竹屏里, 醴泉山水里, 興海, 英陽日月山 竹峴, 丹陽, 寧越郡 鄭進一家, 太白山岩穴, 寧越郡 稷谷, 順興, 襄陽, 麟蹄郡 南面舞梅里 金秉鼎

1) 〈聚語〉「東學亂記錄」上卷 pp. 116~117

2) 李敦化編述, 「天道敎創建史」, (天道敎中央宗理院, 1970) p.35

家, 太白山 葛來寺 寂照庵, 永春郡隆項里 朴龍傑家, 松樂洞, 青松, 寧越郡巨石里 盧貞植家, 麟蹄郡 甲遁里 金顯洙家, 丹陽郡 南面泉洞 呂圭德家, 旌善郡 劉時憲家, 松臯, 木川郡 區內里 金殷卿家, 尙州前城村, 報恩帳內, 全州, 參禮驛, 槐山郡新陽里, 麟蹄郡 金演鎬家, 杆城郡旺谷里 金河圖家, 慶尙道 金山郡伏虎洞 金昌駿家, 公州薪坪里, 泰仁郡 金洛三家, 扶安郡 金洛喆家, 全州郡 徐永道家, 清安郡 金城洞, 忠州郡外西村, 鎭川郡 扶昌里, 參禮驛, 報恩帳內, 青山郡浦田里 金演局家, 洪川郡西面濟日洞 吳昌燮家, 原州郡松谷洞」³⁾

위의 崔時亨行程의 日誌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발길을 따라 포교권이 확대되고 특히 동해안의 蔚珍으로부터 全州로 향해 한반도의 中西部를 對角線으로 동학의 교세가 뻗어나갔음을 볼 수 있다.

이 동학의 교세를 기초로해서 東學의 教祖伸冤운동이 일어나고 처음 參禮驛의 동학운동은 순전한 교조신원운동이요, 교단의 공인을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1893년초의 伏閣上疏에 와서는 동학의 신원운동이 종교적 범위를 벗어나 輔國安民, 斥洋倭의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시 東學教門은 충청도 報恩에 都所를 두고 기왕의 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國王에 대한 集團의 上疏의 시위를 감행하게 되었다. 報恩聚會의 倡義는 이미 교조신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斥洋倭”의 구호를 내걸고 國政에 干涉하게 된 日本등 外勢의 배척에 나선 前期的民族主義운동이었다.

이 보은취회는 1894년의 東學革命의 선구로서 王朝政府를 상대로 한 民衆의 集團의 抗拒의 形態가 형성되었고 점차 東學운동이 反王朝의 民族主義的政治運動의 조짐을 띠게 된 것이다. 또한 선무사 魚允中은 그의 狀啓에서 “이 집회는 조그만 무기도 휴대하지 않은 것임으로 다름아닌 民會와 같은 것이다. 일찍이 듣기에는 각국에는 역시 民會가 있어서 정부政令에 국민과 국사에 불편함이 있으면 회의하여 講定한다하니 이 집회도 그와 같

3) 「天道教書」參照.

은 것이며 어찌 匪類로 간주 할 수 있는가”⁴⁾라고 이 취회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魚允中이 동학의 報恩聚會를 관찰하고 “民會” “民黨”이라고 파악한 것은 우리의 전통사회속에서 새로운 民의 集團의 結束을 통해 近代的 國民의 맹아가 생긴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非暴力主義를 강조한 崔時亨의 宗教的 지도력과 東學指導層의 領導力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東學革命의 起包에 있어서 非暴力的인 北接의 宗教的 立場과 南接의 革命主義的 農民運動의 흐름과의 二元的對立이 있었던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東學의 두 지도력은 다같이 東學의 變革이데올로기와 신원운동에서 비롯된 民衆의 集團의 示威에 나타난 組織力의 바탕위에서 生成했음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3.

東學革命의 발단은 古阜民亂에서 비롯되었다. 古阜에서는 趙秉甲이 萬石湫에 새보를 쌓는다고 해서 水稅를 거둔데서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 1894년 2월 16일경 마침내 수백명의 고부군민이 馬項장터에 모여 全瑋準을 영도자로 추대하고 郡衙를 습격하고 군수 조병갑을 잡으려 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전봉준은 거사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그 자신 농민봉기의 선두에 서서 고부읍으로 쳐들어갔다.

봉기한 농민들은 머리에 흰수건을 매고 몽둥이나 죽창을 들고 기세를 올려 진군하는 동안 군민수는 1천명이 넘었다. 흥분하고 격앙된 농민들은 군아를 부수고 무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손에 들었다. 그들은 水稅로 걷어들인 양곡을 풀어내 원임자에게 나누어 주고 陳田에서 걷은 세곡도 궁민에

4) 韓佑勳, 「東學과 農民蜂起」 p.92

게 나누어 주었다. 다시 그들은 만석보로 되돌아가 새보를 부수었다. 그리고 3월초 이 봉기는 스스로 해산했다.

集團의民訴로 시작된 古阜民亂에 와서는 원민들이 무기를 들고 무장봉기를 시작한 것이다. 全瑋準供草에서 전봉준은 고부에도 東學이 있었고 起包 때에는 원민과 동학이 합세했으나 東學徒는 적고 원민이 많았다고 공술하고 있다. 이 사태가 발단이 되어 全瑋準은 東學의 敎門조직과 연결을 지어 본격적인 東學革命으로 전환된 것은 1894년 음력 3월 20일의 茂長에서의 起包로 볼 수 있다.⁵⁾

全瑋準은 茂長에 있는 東學의 가장 유력한 실력자인 大接主 孫化中에게 갔고 다시 泰仁의 大接主 金開南을 설득하여 茂長에 南接都所를 설치하고 그 영도자가 되었다. 여기서 전봉준은 法軒 崔時亨의 北接과 협의없이 湖南에 南接의 東學勢力의 中心을 만들고 무장봉기에 의한 革命主義的 東學革命의 義旗를 들게 된 것이다.

全瑋準供草에서는 茂長을 경유하여 全州城을 공략·입성했다고 공술하고 있다.⁶⁾

(問) 昨年 3월에 古阜에서 起包하여 全州로 向하는간에 幾邑을 經하였으며 幾次接戰하였느냐?

(供) 所經邑은 茂長서 古阜로 由하여 泰仁, 金溝를 經하여 全州에 達하려다가 營軍萬餘名이 來한다는 말을 듣고 扶安에 가서 古阜의 還至營軍과 接戰하였다.

(問) 기후에는 何處로 向하였느냐?

(供) 井邑에서 高敞, 茂長, 咸平을 經하여 長城에 抵하여 京軍과 接戰하였다.

5) 茂長起包에 대해서는 愼籟廈〈甲午農民戰爭의 第1次 農民戰爭〉『韓國學報』제41집 (1985. 가을호) 및 〈東學과 甲午農民戰爭의 民族主義〉『韓國學報』제49집 (1987. 여름호) 參照.

6) 〈全瑋準供草〉『東學思想資料集』第1卷 pp.322~3

(問)全州에 入城함은 何時이며 解散은 何時인가.

(供)昨年 4月 26, 7日間에 全州에 入하고 5月初 5, 6日間에 해산하였다.

이상의 全璿準供草에 기초해서 茂長에서 起包한 東學軍이 기세를 올려 마침내 全州城에 入城한 경과를 개관할 수 있다. 東學軍은 黃土峴전투등 營軍·京軍과의 전투에서 승리·우세를 과시하면서 全州城을 함락시킨 것이다.

이 혁명과정에서 선포한 倡義文등을 통해 東學軍의 革命理念과 施政改革의 요구를 개괄해 볼수 있다.

우선 茂長의 倡義文은 王朝政府에 대한 것이므로 尊王攘夷主義의 논리로 포장되어 있으나 國政批判에 있어서 輔國安民의 改革意志를 뚜렷이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신하된 자는 報國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祿과 位만 도둑질하며 충명을 가리고 아부와 아침만 일삼아 忠諫하는 선비는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은 匪徒라 하며 안으로 輔國의 人材가 없고 밖으로 虐民의 관리만 많다.

이 倡義文은 단순한 농민봉기의 표방이 아니라 王朝政治의 근본적 부패를 고발하고 王朝社會의 無規範과 無秩序를 규탄하면서 이미 王朝社會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다. 卽 “虐政은 날로 더해가고 원성은 그치지 아니하니 君臣의 義와 父子의 倫과, 上下의 分이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는 倡義文의 표현은 王朝의 쇠망을 고발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倡義文은 王朝財政의 파탄과 관료의 부정부패가 극치에 달했다는 것도 고발하고 있다.

허다한 돈과 뇌물은 國庫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私服을 채우고 있도다.

국가에는 누적된 빛이 있으나 갓을 생각을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란과 더러운 일만을 거리낌없이 일삼으니 八路가 魚肉이 되고 萬民은 도탄에 빠졌도다.

이 창의문에서는 朝鮮王朝社會의 총체적부패와 高官, 地方守令에 이르기까지 가렴주구만을 일삼고 “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치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革命的 目標은 부패한 王朝秩序의 否定, 탐관오리의 숙청, 따라서 “輔國安民”의 새 정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南接이 주축이 된 全瑋準의 東學軍은 교조신원의 차원을 넘어서 王朝의 부패한 정치, 三政의 紊亂의 改革과 輔國安民의 새로운 社會秩序를 회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東學軍의 「四大名義」⁷⁾는 혁명의 실천에 있어서 “不殺生”의 宗教的 抵抗方式과 아울러 “濟世安民”의 反虐政的 改革, 反日, 부패한 권세와 무능한 兩班支配勢力의 타도등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 ① 不殺人, 不殺物
- ② 忠孝雙全, 濟世安民
- ③ 遂滅倭夷, 澄清聖道
- ④ 驅兵入京, 盡滅權貴

또한 白山으로 이동한 東學軍이 1만명의 군세로 규합하고 발표한 檄文도 “廣濟蒼生, 輔國安民”의 기본이념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義를 들어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도탄에서 건지고 國家를 반석위에 두고자함이라. 안으로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 횡포한 強敵의 무리를 구축하자.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令 밑에 굴욕을 받는 小吏들

7) 鄭喬「大韓季年史」上卷 p.74

은 우리와 같이 冤恨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 檄文도 역시 “東學의 理念”인 “輔國安民”의 뜻을 起包의 義로 뚜렷이 밝히고 있다. 이 의거의 투쟁대상이 되는 主敵을 “탐관오리” 특히 그중에서도 全瑋準 供草에 적시된 대상은 內職賣官者로서 “閔泳駿·閔泳煥·高永根”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횡포한 强敵의 무리”는 일본의 내정간섭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兩班·富豪와 民衆의 二元的對立이다. 이 혁명에서의 敵과 同志관계는 兩班·富豪가 타도대상이요, “고통을 받는 民衆”은 농민피지배층이 되어 있다. 따라서 東學革命에서 東學軍은 東學敎門의 조직과 지도하에 王朝末의 支配層전반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社會革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全州和約후의 第2次 起包에서는 日本의 內政干涉軍의 진압에 저항하는 抗日獨立鬪爭의 民族主義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4.

東學軍에 의해 全州城이 함락된 것은 4월 27일(陽 5월 30일)이었다. 全州城의 점령은 第1次 東學革命의 승리를 의미하며 王朝의 힘으로는 이 民亂을 진압할 수 없는 革命的事態임이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閔氏政權은 外軍의 원군을 논의하였고 淸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기대를 걸었으므로 조선은 3년내에 러시아의 속국이 된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⁸⁾ 全州城의 東學軍은 南門에 檄文을 내걸어 자신들은 “勤王의 일”을 한다고 자임하며 러시아등 외세를 배척하는 反外勢의 義兵이

8) 「大韓季年史」上卷 p. 79, 慎鏞廈〈東學과 甲午農民戰爭의 民族主義〉『韓國學報』 제47집 (1987. 여름) p. 74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東學軍의 起包에는 農民反亂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그 지도부는 거의가 東學의 接主들이었고 따라서 “輔國” 의식이 투철하였다. 外勢의 侵入을 막아내야 한다는 급박한 시국에 당하여 東學軍은 “斥洋倭”의 大義名分에서도 官軍과 和約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東學軍지도부는 官에 의해 弊政改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外軍侵入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協商이 성립되었다. 이로서 약 12일간의 全州城占據를 끝내는 全州和約이 체결된 것이다.

和約의 조건으로 東學軍側이 제시한 폐정개혁의 요구사항은 全瑋準 判決文에도 명시된바와 같이 27조에 달한다. 그중 14개조는 다음과 같다.⁹⁾

- 一.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 二. 국결(國結)을 가하지 말것.
- 三. 보부상(裸負商) 작폐(作弊)를 금할 것.
- 四. 도내환전(道內還錢)은 구감사(舊監司)가 거두어 갔은즉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것.
- 五.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전 각 포구(浦口)의 미곡무역(米穀貿易)을 금단할 것.
- 六. 동포전(洞布錢)은 매호(每戶) 춘추(春秋) 二량(兩)씩 정전(定錢)할 것.
- 七. 탐관오리(貪官汚吏)는 아울러 파면시킬 것.
- 八. 위로 임금을 옹폐(壟蔽)하고 매관매직(賣官賣職)하고 국권을 농간하는 자를 아울러 축출할 것.
- 九. 관장(官長)이 된자는 해당내(該境內)에 입장(入葬)할 수 없으며 또 수전(水田)을 만들지 말것.
- 十. 전세(田稅)는 전례에 따를 것.

9) 全瑋準 判決文 (1895년 3월 29일 宣告文)

- 十一. 연호잡역(烟戶雜役)을 감성(減省)할 것.
- 十二. 포구어렵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 十三. 보세(漕稅) 및 궁답(宮畜)은 시행하지 말것.
- 十四. 각 고을의 원이 내려와 민인(民人)의 산지(山地)에 녹표(勒標)하고 투장(偷葬)하지 말것.

이 폐정개혁의 요구에는 당연 농민들에게 가해진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農政上의 부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농민에게 가해진 가혹한 각종 雜稅와 보부상의 행패, 賣官賣職등에 이르기까지 末期王朝社會의 社會惡을 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폐정개혁안중에는 “東學人을 무고 살육하고 관계된 사람을 가둔자는 일일이 신원할것”도 포함시켜 이 혁명의 주도세력이 동학교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폐정개혁안이 官에 의해 수용되고 日軍·淸軍등 外勢의 철수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東學軍지도부는 자진해서 官軍에게 全州城을 내주고 일단 해산하여 각지방에 執綱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全州和約의 成立은 東學軍의 지도부가 지닌 宗教集團의 한계성을 드러냈다가보다는 이 혁명이 執權欲을 가진 反亂이 아니라 폐정개혁에 나타난 바와같이 國政改革의 社會改革運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東學革命지도층에 대한 재판에서 全瑋準·孫化中·崔慶善중 두목에 대해 宣告文에서 大院君과의 共謀등 王朝전복의 內亂罪를 적용하지 못하고 다만 大典會通 刑典중의 “軍服驅馬作變官門者”로 규정하여 무장적 변란자로 판결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 재판의 宣告文은 歷史的으로 東學革命이 지닌 革命的性격이나 특히 社會革命的요인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5.

東學革命에 있어서 全州和約後 官民相和之策으로 三南의 53郡縣에 東學軍 執綱所가 설치된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전주관찰사에 임명된 金鶴鎭은 全州和約을 체결하고 東學軍이 요청한 폐정개혁을 받아드려 이행케 하는 한편, 東學軍占據地帶의 治安不在의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라도 전역에 걸쳐 東學軍에 의한 “面·里 執綱”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관찰사 金鶴鎭은 기존의 行政組織으로는 治安과 行政을 수행할 수 없는 行政的空白상태에 직면하여 東徒大將 全瑋準을 감영으로 초청하여 官民相和의 방책을 논의한후 各郡에 東學軍의 執綱을 들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리하여 전라도 53개군현에는 東學軍의 “執綱所”가 설치되어 東學軍에 의한 民間自治의 改革行政이 퍼지게 되었다. 집강소행정은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農民統治”라는 학계의 견해¹⁰⁾도 있고 소련이나 北韓의 문헌에서는 파리코문과 비견되는 民衆의 革命政府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동학군집강소는 일단 官民相和之策의 산물로서 王朝의 地方行政이 마비된 東學革命地帶에 설치된 과도적인 地方革命軍政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執綱은 東學教門의 六任制 중의 한 직책으로 “以明是非 可執紀綱”의 직분을 가진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기강, 규율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한 직명에서 이는 혁명적 무정부상태에 있던 전라도 53군현에 東學軍의 自治의 治安行政의 과도기구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甲午略歷」에 의하면 執綱所設置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¹¹⁾

6월 관찰사는 전봉준을 全州監營으로 초청했는데 이때 감영군은 총과

10) 신용하, 상계논문, 『한국학보』 47집 p. 78

11) 鄭碩模, 『甲午略歷』(『東學亂記錄』上卷 p.65)

창을 가지고 좌우에 정렬하였다. 전봉준은 삼배옷에 큰 갓을 쓰고 의젓하게 들어오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관찰사는 전봉준과 官民相和之策을 상의한 결과 각군현에 執綱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東學徒들이 각 고을에 활거하고 집강소를 설치함에 書記, 省察, 執事, 童蒙을 두니 완전히 한 관청을 이루게 되었다.

확실히 53개군현의 東學軍執綱所는 "一官廳"으로서 太守나 守令의 行政力까지 행사한 것으로 전한다. 관찰사 김학진은 宣化堂을 全璿準에게 내주고 澄淸閣(澄淸閣)으로 자신은 물러앉아 있어¹²⁾ 관찰사는 허수아비가 되고 전라도는 일시 東學軍行政支配에 들어갔던 것이다.

집강소설치와 더불어 각지방차원에서 改革行政이 행해지고 그 대강은 東學軍執綱所 弊政改革 12個條¹³⁾로서 吳知泳의 「東學史」에 전해져 있다. 그 1조에서 "道人과 政府사이에는 宿嫌은 蕩滌하고 庶政에 협력할 것을 제시하여 官民間의 庶政協助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2개조의 내용은 官民의 協力下에서도 東學軍과 농민의 進步的改革施策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① 道人과 政府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협력할 사.
- ②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查得하여 일일이 嚴懲할 사.
- ③ 횡포한 富豪輩는 엄징할 사.
- ④ 불량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사.
- ⑤ 奴婢文書를 燒却할 사.
- ⑥ 七班賤人의 대우는 개선하고 白丁 頭上에 평량립은 탈거할 사.
- ⑦ 青春寡婦는 改嫁를 허할 사.
- ⑧ 無名雜稅는 一并勿施할 사.
- ⑨ 관리채용은 地閥을 타파하고 人材를 등용할 사.

12) 崔永年, 「東徒問辨」

13) 吳知泳, 「東學史」 pp.126~127

- ⑩ 倭와 奸通한 자는 엄징할 사.
- ⑪ 公私債를 물론하고 이왕의 것은 一并 勿施할 사.
- ⑫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

이 執綱所의 폐정개혁안은 집강소행정을 통해 農政改革, 封建的身分制타파, 兩班·富豪에 대한 응징을 反封建的社會革命의 실천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賤民, 奴婢등에 대한 身分差等を 타파하고 人間平等을 실현하는 노력에서 집강소행정은 近代的市民社會의 과도기를 마련하고 白丁, 才人등 七班賤人의 身分差別까지 철폐하고 있다. 土地의 平均分作에 대한 조항은 그 구체적 실례를 찾기 힘들지만 富農과 貧農간의 지나친 格差에 대한 均等分作의 요구로 近代的土地改革案의 先驅的 요구로 주목을 끈다.

특히 집강소행정시기에 많은 平民뿐만 아니라 殘班등이 대개 東學에 入道하고 이른바 “마당 布德”이 일어났다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집강소행정에 대한 吳知泳의 「東學史」의 기술은 東學의 교세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안에 부랑자들이 끼어들어 온갖 불법무법의 횡포가 수없이 자행된 부작용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관리의 문서를 검열하며 한편으로는 인민의 訴狀을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 傳道에 힘쓰며 한편으로 관민간에 남아 있는 군기와 마필을 거두어 집강소의 호위군을 조직하여 만일의 사태에 경계하였다.

이때 전라도에는 청년 소아까지라도 거의 道(= 東學)에 들어 接을 조직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세를 따라 부랑자들이 한데 섞어 들은것은 불가피하여 그로인해 온갖 무도불법한 일이 수없이 발생한 것도 면치 못할 일이었다.¹⁴⁾

東學軍의 집강소에는 혁명기의 혼란속에서 부랑배들이 끼어들어 무법불법의 행패를 자행하고 嫡庶奴主의 기성 身分秩序를 어지럽히는데 대한 항

14) 吳知泳, 상계서

간의 원성과 비판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東學革命의 第2次 起包는 이 反亂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日本干涉軍과 對日反侵略戰爭이 되었다. 이 第2次起包에 대해서는 全瑋準判決文도 日本侵略軍에 대한 抗日戰爭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기후 피고는 日本軍隊가 대궐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日本人이 我國을 併呑코저 하는 것인줄 알고 日本兵을 쳐몰리치고 그 거주민도 國外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起兵을 도모하여”¹⁵⁾

東學軍은 해산했던 조직을 다시 일으켜 日本軍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日本에 의한 韓國強占을 예견한 抗日義兵戰이기도 했다. 이때에는 北接도 무장봉기하여 南接과 같이 對日戰에 合流하였다. 全瑋準의 東學軍은 수차에 걸쳐 日本軍과 官軍에 승리했으나 公州의 전투에서 일본의 근대적 화력과 장비에 밀려 대패하고 말았다. 그후 동학군은 도처에서 일군과 관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실로 이 두번째의 東學軍의 전투는 항일과 국권수호를 위한 반침략의 전쟁이었다.

결론적으로 東學革命은 우리나라 近代民族史에 있어서 王朝의 몰락과 近代民族國家의 形成에 있어서 중요한 歷史的事件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첫째로 東學革命은 1860년 東學의 出現이래 反王朝의 變革思想에 의해 잉태되고 특히 崔時亨의 30여년간의 地下布德으로 이룩된 東學教門의 組織의 기반위에서 전개되었다.

둘째는 東學의 교조신원운동은 우리의 전통사회속에서 처음으로 集團的

15) 全瑋準判決文 (1895년 3월 29일 宣告文)

示威의 形態를 가진 새로운 對政府政治運動의 시작이 되었고 “民會” “民黨”으로 볼 수 있는 近代의 社會團體 또는 政治的結社의 先驅的행아로 만들어 그후 甲辰開化運動이나 3·1獨立運動으로 進化하면서 近代의 民族國家의 國民像의 原型이 되었다.

셋째로 東學革命은 全瑛準·金開南·孫化中等 南接의 東學指導力과 그 包接의 教門組織으로 大規模의 農民抵抗은 一大革命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는 王朝末의 도탄에 빠진 農民大衆(원민)의 社會革命意志와 東學의 變革思想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넷째로 東學革命은 다른 農民봉기와 달리 東學의 理念과 指導力에 의한 혁명수행과정에 集團的秩序와 紀綱이 있었으며 全州和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輔國安民”의 목적을 위해 官民相和의 양보와 아량을 보인 宗教的節制가 있었다. 東學軍의 지도층은 王朝의 전복에 의한 執權慾을 가지지 않고 “輔國”의식이 뚜렷한 民族主義의 정신을 끝까지 견지했다.

다섯째는 東學軍의 각종 폐정개혁안에는 탐관오리의 숙청, 農政改革뿐만 아니라 兩班制下의 身分差等を 철폐한 平等社會의 社會革命理念이 깃들어 있었다.

여섯째로 東學軍의 執綱所설치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民에 의한 地方自治行政의 선례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官의 治安秩序의 유지를 대행한 東學軍의 民間自治的軍政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東學革命은 오랜 王朝史의 종말을 고하고 近代의 市民·近代의 國民으로 새로 대두될 民衆의 近代의自己自覺의 始點이 되었고 傳統社會로서의 兩班社會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 대두된 近代의 民族國家의 形成의 길을 마련한 과도기의 民族主義運動이었고 常班과 貴賤의 封建的身分制를 타파하기 시작한 社會革命이었으며 王朝史에 대신할 近代民族史의 새出發이기도 했다. ■

제1주제: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의 배경

(제1일) 1993년 10월 27일(수)

〈사회〉 박 성 수(정신문화연구원)

발표1: 13:00~13:30

우리 전통신앙과 동학/최동회

발표2: 13:30~14:00

동학사상의 휴머니즘과 민주주의/신용하

발표3: 14:00~14:30

동학의 개혁사상/표영삼

발표4: 14:30~15:00

동학사상의 혁명성/림현구

발표5: 15:00~15:30

동학혁명에 있어서 동학의 역할/박맹수

발표6: 15:30~16:00

동학혁명의 본질과 사회개혁/임운길

토 론: 16:30~17:30

윤이흠(서울대) 박명규(전북대) 박영인(캘리포니아주립대)

권승오(중학대학원) 장영민(상지대)

우리 傳統信仰과 東學

— 그 최고 信仰對象을 中心으로 —

崔 東 熙

(고려대학교 교수)

제1절 우리겨레의 최고 信仰對象

우리는 여기서 우리 宗教傳統속에 나타난 東學이라는 하나의 종교흐름을 다루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그 종교적 背景으로서 우리 宗教傳統의 전체적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東學의 信仰과 思想의 體系에서 유일한 信仰對象으로서의 '한울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觀點을 통한 研究方向에서 宗教傳統의 전체적인 理解도 그것과 관련되는 측면에 焦點을 맞추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온 傳統宗教를 꿰뚫고 있는 '하늘(하늘)信仰'이라는 측면이다. 흔히 우리 겨레는 아득한 옛날부터 하늘을 믿고 높이 받들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事實로서 밝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學界에서도 우리 겨레가 아득한 옛날부터 하늘(하늘)을 높이 받들어 왔다고 생각해 왔다. 이를테면 우리 옛 神話인 檀君記錄¹⁾에 나타나는 桓因은 "하느님 혹은 수릿님(高登神)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桓因이 하늘이나 혹은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결정적으로 딸

1) 三國遺事, 卷第-紀異第-, 古朝鮮

2) 韓國古代史研究, 李內燕, 博英社, 1981, 31쪽

수는 없다. 우리 겨레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固有한 글자를 마련해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桓因을 하늘(하늘)을 나름대로 漢字를 빌려 나타낸 말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一然은 어디까지나 古記같은 옛 記錄을 통해 전해 오는 桓因이라는 말을 그대로 기술했을 것이다. 다만 뒷날을 위해 桓因을 불교 쪽의 帝釋과 같은 것이라고 註釋을 붙였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李承休(1224~1301)는 그의 帝王韻紀(1287)에서 “上帝인 桓因³⁾”(上帝桓因)이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桓因은 유교쪽의 上帝와 같은 것으로 생각돼 왔다. 이렇게 거의 같은 時期에 지어진 三國遺事에 인용된 古記에는 그저 桓因인데 帝王韻紀에 인용된 本紀에는 “上帝인 桓因”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問題가 있겠지만 어쨌든 古記나 本紀에 桓因만은 中心概念으로서 변함없이 전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桓因은 帝釋과 같은 혹은 上帝와 같은 최고 存在로서 우리 겨레에 固有한 최고 信仰對象을 가리키는 우리 固有한 말을 나타낸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桓因이 하늘(하늘)을 나타내는 表記手段이라는 결정적 근거를 댈 수는 없다.

一然은 그의 三國遺事에서 古記를 인용해 北扶餘의 건국신화를 다음과 같이 전해 준다.

天帝가 흘승골성(訖昇骨城)에 내려왔는데 五龍車를 타셨다. 도읍을 정하고 王이 되어 나라 이름을 北扶餘라 하였다. 王은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解慕漱)라 하고 태어난 아들을 扶婁라 이름짓고 성은 解라고 했다. 왕(解扶婁)은 뒤에 上帝의 명에 따라 도읍을 東扶餘로 옮겼다.⁴⁾

위에 나타나는 天帝와 上帝라는 표현의 정체는 문제다. 위 神話의 내용으로 미루어 天帝나 上帝는 우리 겨레의 고유한 信仰對象을 나타내는 한문식 표현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桓因도 마찬가지다. 그

3) 帝王韻紀, 李承休, 1287(忠烈王十三年), 卷下 一張後面

4) 三國遺事 紀異第一 北扶餘

리나 天帝나 上帝는 또 버젓이 中國語에 속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桓因은 그렇지 않다. 방법상 여기서 桓因·天帝·上帝를 다 같이 나름대로 우리 겨레의 하늘(하늘)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럴 때 桓因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쉽게 '하늘'이라고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읽을 수 있다면 하늘을 말소리까지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해 天帝·上帝는 '하늘'을 말소리로 나타낼 수 없고 意味로만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의 하늘(하느님)을 중국의 天帝·上帝와 똑같은 것이라고 헛갈리게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의 고유한 하늘(하늘)은 사실상 잊혀지게 될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겨레의 하늘과 중국의 上帝(天帝)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하늘을 上帝(天帝)라는 한자말로 나타내 왔다.

이와 같이 桓因·天帝·上帝가 다 같이 우리 겨레의 '하늘' (하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저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겨레는 漢字·漢文을 받아들여 써오다가 결국 우리 固有한 글자(訓民正音, 1443)를 만련해 쓰게 됐다. 이와 같이 우리 겨레는 1443년(世宗二十五年)까지는 우리 固有한 말을 漢字·漢文을 빌려 간접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여러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3국이 국가적으로 저마다의 역사책을 편찬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漢文이 3국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역사책을 제대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인 漢文을 잘 짓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우리 역사에는 우리 固有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들을 漢字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漢文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겨레의 '하늘' (하늘)을 天·天帝·上帝로써 나타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의 하늘과 漢文에서의 天·天帝·上帝는 그 意味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하늘'을 중국의 天·天帝 등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이라는 말을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 사실 '하늘'은 우리 겨레에 고유한 神의 이름이다. 이밖에도 우리의 고유한 사람 이름, 땅 이름, 山川 이름 같은 것이 있

다. 이러한 우리 固有名詞를 漢字로 나타낼 수 있어야만 우리 겨레의 歷史를 漢文으로 넓게 서술할 수 있다. 우리 세 古代國家가 다같이 제 나라 歷史를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편찬사업을 해냈다는 것은 우리 固有名詞를 漢字를 빌려서 소리대로 表記하는 方法을 마련했다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一然이 인용한 古記에는 桓因·阿斯達같은 固有名詞들이 나타나 있다. 桓因이 과연 '하늘'을 漢字의 소리(音)만을 빌려서 나타냈다면 이것은 音韻表記法이다. 三國遺事에서 新羅의 始祖를 赫居世王이라고 했다. 一然은 이에 대해 이렇게 풀이를 하였다. "(赫居世王이란) 토박이말(鄉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光明理世를 뜻한다."⁵⁾ 여기서 弗矩內는 新羅의 始祖 이름을 漢字의 소리로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音韻表記法에 따라서 표기된 弗矩內(현대 발음: 불구내)는 '밝게 비추어 세상을 다스림'(光明理世)을 뜻하는 新羅의 옛 토박이말이다. 그리고 赫居世는 이 新羅 토박이말을 漢字의 새김(釋)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고유 명사를 漢字의 새김을 빌어서 표기하는 方法을 釋讀表記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新羅 토박이말로 된 사람 이름을 漢字새김으로 나타낸 것이 赫居世이고 漢字소리로 나타낸 것이 弗矩內이고 그 토박이말 뜻은 光明理世이다. 이렇게 애써서 나타냈는데도 오늘날 아직 新羅 始祖의 본래 이름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 이것은 남의 글자인 漢字를 빌려 우리 고유한 말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원래 漢字를 이용해 우리 고유한 말을 나타내려는 試圖에 限界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유한 글자(訓民正音)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古代三國에서는 漢字를 빌려서 우리 말을 제대로 나타내려는 노력이 끈질기게 이어졌다. 마침내 漢字의 새김과 소리를 빌어서 우리 固有名詞를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말 體系를 전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이 체계적인 表記法을 鄉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三國統一(668) 이후

5) 三國遺事, 紀異第一, 新羅始祖 赫居世

의 新羅에서 특히 발전하였다. 이것은 統一新羅의 시기(7세기~10세기)에 鄉歌文學이 발전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⁶⁾ 그러나 鄉札은 그 表記法의 숙명적인 限界 때문에 고려 초기부터 어느덧 사라져 갔다.⁷⁾ 남의 글자인 漢字를 빌려 우리 固有名詞를 표기하는 것도 限界에 부딪치기 마련인데 하물며 우리말의 문장을 그 소리대로 표기한다는 것은 더욱 그 限界가 숙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이미 漢文을 그대로 널리 활용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다. 이를테면 하늘(하늘)을 굳이 桓因이라 하지 말고 한문식으로 天·上帝 따위로 나타내자는 사람도 많아졌다. 예컨대 굳이 赫居世王이니 弗矩內王이니 하지 말고 직접 ‘光明理世王’이라고 한문식으로 나타내자는 움직임이 커져 갔다.⁸⁾ 이렇게 우리 고유한 이름도 폭넓게 漢文式으로 表現하자는 움직임이 8세기 중엽에 획기적인 段階에 이르렀다. 곧 757년⁹⁾(景德王十六年)에 統一新羅의 全地方行政區域인 州·郡·縣의 이름이 漢文式으로 고쳐졌다. 그 2년 뒤에 또 우리 中央官職의 이름이 中國式으로 바뀌어졌다.¹⁰⁾ 이것은 우리 겨레가 써오던 고유한 이름들이 결정적으로 漢文式表現으로 바뀌지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일상적인 말 體系속에 漢字語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말해 준다. 이 단계 이후에 더욱 더 우리 고유한 말이 밀려나고 사라져 갔으며 따라서 우리 傳統文化도 그만큼 밀려나게 되고 혹은 사라져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中國文獻 속에 우리 傳統文化가 단편적이거나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가운데서 三國志는 西晉(265~316)의 陳壽(233~297)가 지은 正史인데 여기에 있는 魏書 東夷傳은 3세기 중엽까지의 우리 傳統文化를 전해주는 중요한 資料다. 東夷傳의 夫餘條

6) 國語史概說, 李基文, 1992, 53쪽

7) 위 책 같은 곳

8) 특히 儒·佛·道의 外來宗教가 보급되어 감에 따라 漢文式表現의 움직임도 그만큼 커졌다.

9)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九, 景德王十六年十二月

10) 위 책 같은 곳, 景德王十八年正月, 二月

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殷나라 달력으로 正月에 天에 제사지낸다. 이때 온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러 날 내리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춘다. 이러한 제사를 迎鼓라고 부른다.

여기서 ‘天에 제사지낸다’(祭天)는 말이 주목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天’이 문제다. 그 무렵의 夫餘 사람들이 天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지낸다’(祭)는 말도 夫餘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도 우리 겨레가 ‘하늘’(하늘)을 믿어 왔다고 가정한다면, 그 하늘을 중국 사람이 그 나름대로 天이라고 表現했을 뿐이다. 아마 夫餘사람들은 제사지낸 것이 아니라 사머니즘 儀禮인 굿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춘다”(飲食歌舞)는 대목도 성대한 굿(큰 나랏굿)의 儀禮에 속하는 구성요소인 것이다. 사실 迎鼓는 夫餘國이 거국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하나의 성스러운 宗教儀禮이다. 이러한 우리 고유한 宗教現象은 중국 史書 같은 것으로는 제대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 역시 우리 고유한 文化現象은 漢字를 빌려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文字化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값진 것이다. 그런데 漢字를 빌려서 우리 고유한 이름을 表記하는 方法은 8세기 중엽부터 그 사용 범위가 많이 줄게 됐다. 나라 政策에 따라 우리 고유한 地名과 관직 이름이 中國式으로 고쳐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말 문장을 그대로 漢字로 표기하는 方法(鄉札)도 高麗초기 이후에 거의 사라져 갔다. 이때부터 주로 정치적 차원에서 佛敎가 비판되고 유교가 상대적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문화적 中國化가 증진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中國化는 점차 漢文을 쓸 수 있는 少數와 그렇지 못한 多數로의 兩極化를 초래했다. 이것을 막고 民族文化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글자가 꼭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절실한 민족적 要請에 따라 마침내 1443년(世宗二十五年)에 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그 序文에서 訓民正音を 만들게 된 뜻이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우리 나라 말이 中國 말과 달라 中國 글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 때문에 딱하게 여겨 나는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마련해서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¹¹⁾

원래 우리 말은 中國 말과 다르므로 中國 글자(漢字)로 나타내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잘 나타내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된 우리 글자는 우리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訓民正音이었다. 이 訓民正音を 통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말을 우리 소리대로 바르고도 쉽게 文字化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우리 고유한 信仰對象의 이름도 비로소 제대로 文字化되었다. 1447년(世宗 二十九年)에 출판된 龍飛御天歌의 第十九章에 “센 할미를 하늘히 보내시니¹²⁾” (과 과老去天之使兮)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서 머리 센 할미를 보내셨다는 ‘하늘’ (ㅎ끝소리를 가진 名詞)은 지금까지 天으로 나타내 오던 우리 고유한 말이다. 위 책의 第一百二章에는 “하늘히 病을 느리오시니¹³⁾” (維皇上帝降我身病)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여기서 ‘하늘’이 上帝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天·天帝·上帝 등으로 나타내 오던 우리 고유한 信仰對象이 바로 ‘하늘’ (하늘, 하느님)이라는 것을 分明히 알게 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訓民正音의 덕분이다.

이제 1440년대 이후에 우리 겨레가 최고 신앙대상을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이전에는 과연 어떻게 불렀을까? 다행히 鷄林類事(孫穆, 1103~1104)에 들어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359개의 우리말 語句가 중국 漢字音으로 表記되어 있다. 그 가운데 “天은 漢捺이라고 한다” (天曰漢捺)라는 항목이 보인다. 그 무렵의 중국(宋) 漢字音

11) 訓民正音(解例本), 世宗二十八年(1446), 序

12) 龍飛御天歌, 國語國文學叢林 ⑥, 1988 189쪽(第十九章)

13) 위 책, 356쪽(第一百二章)

으로 표기된 漢捺은 조선 초기의 하늘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따라서 1100년대 혹은 고려 초기에도 우리 겨레는 그 최고 신앙대상을 하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統一新羅 혹은 그 이전의 三國時代는 어떠하였을까? 지금으로서는 資料부족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다만 高麗語(前期中世國語)는 新羅語를 根幹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⁵⁾ 그렇다면 統一新羅에서도 하늘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이상 더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語源論的으로 추론하여 볼 수는 있다.

...어형상의 변화과정은 아마도 한국어가 일본어를 분리시킨 후에 원시 한국어시대에 「하늘」어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¹⁶⁾

이렇게 “원시 한국어시대에 「하늘」어형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겨레는 아득한 옛날부터 하늘(하느님)을 믿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研究를 위한 가설적인 전제로서 우리 겨레는 옛날부터 하늘(하느님)을 믿어 왔다고 말해 왔던 것이다.

지금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440년대 혹은 조선 초기부터 우리 겨레가 최고 신앙대상을 ‘하늘’이라고 표기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龍飛御天歌에 ‘하늘’에 존경을 나타내는 말인 ‘님’을 붙인 말은 없다.

그 第二十五章에 “百姓이 아드님귀”¹⁷⁾ 라는 대목이 보인다. 여기서 ‘아드님’ (厥嗣, 여기서는 李太祖)이라는 말은 아들(아들, 子)에 “님”을 부친 말이다.

14) 鷄林類事研究, 陳泰夏, 明知大學出版部, 1987, 247~249쪽

15) 國語史概說, 李基文, 塔出版社, 1992, 85~87쪽

16) 한국어 어원 연구Ⅱ, 이남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248쪽

17) 龍飛御天歌, 國語國文學叢書 ⑥, 1988, 198쪽

朴仁老는 1636년(仁祖十四年)에 지은 蘆溪歌 끝머리에서도 “一生에 품은 뜻을 비옵는다 하느님아”라고 읊었다. 이와 같이 16세기 말엽에 우리 겨레가 하느님(하느님)이라는 말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東學의 유일한 信仰對象

萬古 없는 無極大道

여몽 여각 得道로다 (용담유사 용담가)

이렇게 水雲(崔濟愚, 1824~1864)은 1860년(庚甲四月初五日)에 결정적인 宗教體驗을 하였다. 이 체험은 한울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한울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주목될 수 있다. 원래 한울님은 그동안 우리 傳統信仰에서 죽 믿어오던 고유한 信仰對象이다. 저 靑銅器時代의 하느님은 서로 직분을 달리하는 여러 神을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무렵의 하느님은 그 소박한 文化段階를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람들이 직접 관계하는 것은 바람 神(風伯)·구름 神(雲師)같은 특정한 직분을 가진 神들이었을 것이다.

그뒤 하느님은 더욱 唯一神의 성격을 띠어가다가 三國時代에 儒敎·佛敎·道敎같은 外來宗教와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天·佛·上帝와 하늘의 관계는 미묘하게 돌아갔다. 이러한 소용들이 속에서 하느님은 특정한 宗團의 뒷받침이 없어 혹은 흡수되고 혹은 늘리고 혹은 잊혀져 갔다. 그래도 하느님은 民族의 가슴 속에서는 사라질 수 없었다. 특히 外來文化에 몰들지 않은 民衆의 마음속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水雲이 여기서 한울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민족의 마음 속에서 점차 具體性을 잃어만 가던 한울님을 具體性속에서 다시 확인했다는 것을 뜻한다. 水雲 자신이 직접 귀나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민중에게 한

울님의 信仰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한울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주목된다. "개벽후 오만년에 네가 또한 침이로다"¹⁸⁾라고 한 한울님의 말씀은 그동안 한울님을 뚜렷이 믿는 뚜렷한 종교체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民族의 자연적인 心情에 따르면 한울님이 만물을 내고 또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데 그동안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한울님을 어떤 危急한 때에나 받들었고 그 때에도 다른 雜神에 마음을 쏠리기 쉬웠다. 더욱이 三國時代 이후에는 天·佛·上帝같은 남의 神을 받드는데 마음이 쏠려 왔다. 이렇게 그동안 사람들은 한울님을 제대로 위하지 않았다. 이것을 한울님 쪽으로 보면 "수고만 하고 보람이 없었다"¹⁹⁾ (勞而無功)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는" (至爲天主) 가르침을 세상에 퍼려고 한 水雲에게 "개벽후 오만년에 네가 또한 침이로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렇게 水雲의 결정적인 宗教體驗은 결국 한울님만 믿는 새로운 宗教를 세우려는 마음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울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具體性이 꼭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儒·佛·道 같은 外來宗教 때문에 宗教心情이 매우 헛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水雲은 한울님이 직접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증언한다. 이렇게 그는 한울님의 具體性을 다시금 강조한다. 결국 한울님을 가장 具體化하기 위해서는 한울님을 人格化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 神의 人格性을 말하면 그리스도教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傳統信仰에서도 하늘(하늘)의 人格性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水雲이 神의 人格性을 강조하는 것을 그리스도教의 영향이라 말할 수 없다.

동학의 한울님이 어떤 人格的存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격적인 神은 본래 인격적인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가까운 存在로 되며 그만큼 親近한 存在로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울님은 인간을 아득히 넘어선 절대

18) 용담유사 용담가

19) 위책 같은 곳

적인 存在이기도 하다. 곧 한울님은 우리 人間과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멀기도 한 양극적인 特性을 갖추고 있다. 한울님의 全知·全能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울님의 超越性을 강조하게 된다.

水雲은 풀·나무·벌레·새·짐승·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한울님에 달려있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生物의 生死가 한울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 生物을 한울님이 創造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울님만 恭敬하면
自兒時 있던 身病
勿藥自效 아닐가(용담유사 권학가)

한울님은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人格적인 存在이기에 인간과 가장 가까울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한울님을 恭敬하기만 하면 한울님과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측면에도 問題가 있다. 한울님을 恭敬하는 방법으로서 정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다. 혹은 道德에 따르는 착한 마음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倫理化의 方向은 지나치면 宗教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울님의 超越性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問題가 있다. 超越化의 方向에서 萬物의 理法을 주장하게 된다. 본래 人間은 知性을 갖추고 있어서 善惡을 넘어선 냉철한 秩序(理法)를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人格性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倫理化와 超越化의 조화를 위한 東學思想의 발전은 後代의 과제로 처음부터 內包되어 있었다. ■

東學思想의 휴머니즘과 民主主義

愼 鏞 廈

(서울대학교수·사회학)

一. 머리 말

社會思想史的 觀點에서 보면, 東學思想은 19세기 중엽 한국사회의 民族的 危機를 타개하기 위하여, 즉 輔國安民하고 廣濟蒼生하기 위하여, 창도한 한국인의 民族思想 또는 民族宗教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 당시의 한국사회의 民族的 危機는 두 방향에서 온 도전과 압력이 중첩되어 조성된 것이었다. 그 하나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압력으로서 西洋勢力이 東漸해 오면서 조선왕국을 半植民地化 또는 植民地化하려는 심각한 압력과 도전이었다. 다른 하나는 안으로부터 나온 압력으로서 도탄에 빠진 下位身分層(平民層 및 賤民層)의 蒼生(백성)들이 兩班身分制를 골간으로 한 舊體制를 이제는 폐지하고 蒼生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다 自由롭고 平等한 新體制를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압력과 도전이었다. 이 두 방향의 큰 도전이 19세기 중엽에 同時的으로 중첩하여 폭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19세기 중엽의 심각한 民族的 危機가 조성된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19세기 중엽에 이러한 안팎으로부터의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고 도전해오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東學思想 ②開化思想 ③衛正斥邪思想의 주로 3대사상을 형성하였다.

이 중에서 東學思想은 당시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이

창조해낸 매우 獨特한 새로운 宗教, 새로운 思想으로서, 그 創造性과 獨特性에서 다른 두개의 사상보다 훨씬 뛰어난 측면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東學思想은 1894년 東學革命(또는 갑오농민전쟁)과 결합하여 그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 점에서 동학사상은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東學思想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문제를 한정하여 ①東學의 명칭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 ②東學의 휴머니즘 ③東學의 民主主義 사상(주로 民主的 平等思想과 民主的 社會政治機構의 모색) 등에 대하여 그 獨創的 이론구조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二. 東學의 명칭의 의미

동학의 교조 水雲 崔濟愚는 그의 새로운 道의 명칭을 <東學> <天道>라고 이름하였다. 이 때 水雲의 <東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水雲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물기를, '그렇다면 무슨 道라고 이름합니까?'

대답하기를, '天道이니라.'

물기를, '洋道와 다른 것이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洋學은 우리 道와 같은 듯하나 다름이 있고 비는 것 같으나 실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運인즉 하나요 道인즉 같으나, 이치인즉 아니니라.' (중략)

물기를, '道가 같다고 말하면 <西學>이라고 이름합니까?'

대답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또한 東에서 나서 東에서 받았으니 道는 비록 <天道>나 學인즉 <東學>이라. 하물며 땅이 東西로 나뉘었으니 西를 어찌 東이라 이르며 東을 어찌 西라 이르겠는가.

孔子는 魯나라에서 나시어 鄒나라에 道를 뒀기 때문에 鄒魯의 風화가 이 세상에

전해 온 것이어늘 우리 道는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났으니 어찌 가히 서라고 이름하겠는가?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水雲의 〈東學〉의 〈東〉의 개념에는 두개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우선 「道는 〈天道〉로서 동일하다 할지라도 地球가 東洋과 西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東을 어찌 西라 하며 西를 어찌 東이라 하리오」라고 설명할 때의 〈東〉이다. 이 때는 地球의 東洋과 西洋의 地域的 구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의 〈東學〉은 〈東洋의 學〉 〈東洋의 天道學〉의 의미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마치 孔子가 魯나라에서 태어나서 鄒나라에서 儒學의 道를 났기 때문에 孔子의 儒學에 鄒魯의 文化(風)가 전하여 내려오는 것과 같이, 水雲 자신은 東에서 태어나서 東에서 하느님으로부터 道를 받아 東에서 道를 펴고 있으니 〈東學〉이라고 설명했을 때의 〈東〉이다. 이 때의 東은 바로 〈東國=朝鮮〉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때의 〈東學〉은 〈東國의 學〉 〈韓國=朝鮮=東國의 學〉의 의미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구한말에는 〈東學〉의 명칭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선 다수의 동학도들과 지식인들이 〈東學〉을 〈西學〉에 대한 대응과 대칭의 道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학 교단에서는 〈東學〉을 〈東國之學〉으로 해석하였다.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는 「官沒記錄, 水雲齋文集」 중의 갑오 東學革命 1년 3개월 전인 1892년(壬辰) 12월 동학 본부의 回通에서는 「東學이란 東國之學을 의미하고 儒道·佛道·仙道 등 3道를 합한 명칭」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東經大全」, 「論學文」, 「日然則何道以名之 日天道也. 日與洋道無異者乎 日洋學 如斯而有異如呪而無實 然而運則一也 道則同也 理則非也. …… 日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 日不然 吾亦生於東受於東道雖天道 學則東學 況地分東西 西何謂東 東何謂西. 孔子生於魯風於鄒 鄒魯之風 傳遺於新世. 吾道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일찍이 庚申년(1860)에 경주 崔先生이 하늘님의 말씀을 듣고 創道하여 學을 가
로되 '東學'이라 했는데, 東學이란 東國之學이며, 儒·佛·仙 三道を 합한 명칭이다.」²⁾

그러므로 東學의 명칭의 의미에는 두개의 개념과 의미가 통합되어 있다.
그 하나는 〈東學의 天道學〉이라는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東國의 天道學〉
이라는 의미이다.³⁾ 水雲 자신은 두개의 의미를 모두 사용하였고, 海月 시대
에 와서는 〈東國의 天道學〉의 의미를 더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水雲은 그의 東學에 대하여, 「우리 道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
지 못하던 일이요, 지금도 비교하지 못하고 옛적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法」
⁴⁾으로서, 「古不聞 今不聞 古不比 今不比之法」⁵⁾이라, 東西古今의 最高最善
의 道요, 「萬古없는 無極大道」⁶⁾라고 자부하였다.

水雲의 이 놀라운 자부심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필자는 이것을 특히
다음의 두가지 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
의 東學이 기존의 동양의 대표적 道인 儒道·佛道·仙道를 모두 통합하고 또
西洋의 道(西學)까지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完
成된 道〉를 창도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자부심이다. 다른 하나는 그의 완전
히 새로운 完成된 道의 사상적 내용이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最高度의
휴머니즘과 民主主義的 平等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대의
道에 합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자부심이다.

東學은 기존의 道인 儒道·佛道·仙道の 原理들을 통합 지양해서 완전히
새로운 道를 창조한 것이었다. 水雲은 이 점을 海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 2) 「官沒記錄 水雲齋文集」중의 〈壬辰十二月 都所朝家回通〉, 「●自庚申之歲 慶州崔先生 龐天
●道之學 曰東學 東學者 東國之學 而合儒佛仙三道之名.」 참조
3) 慎鐸廣, 「韓國近代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 (서울大 出版部), 1989, pp. 93~94 참조
4) 「東經大全」, 「論學文」, 「曰吾道 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也」
5) 「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亞細亞 文化社版), 제 1권, pp.187~188
6) 「龍潭遺詞」, 「龍潭歌」.

「吾道는 원래, 儒도 아니며, 佛도 아니며, 仙도 아니니라. 그러나 吾道는 儒·佛·仙 合一이니라. 즉 天道는 儒·佛·仙이 아니로되, 儒·佛·仙은 天道의 한 部分이니라. 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사람性的의 自然한 品賦이며 天道의 固有한 部分이니, 吾道는 그 無極大源을 잡은 자이라. 후에 道를 用하는 자 이를 오해하지 말도록 지도하라.」⁷⁾

水雲은 東學을 창도함에 특히 儒道의 倫理=三綱五倫, 佛道의 覺性=修性覺心, 仙道의 養氣=養氣養生을 중시하여 東學의 사상체계 안에 통합했다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吾道는 儒·佛·仙 合一이니라. 원래 天道는 儒·佛·仙이 아니로되, 儒·佛·仙은 天道의 部分的의 眞理로, 과거 시대의 도덕이 아니라. 儒의 三綱五倫과 佛의 修性覺心과 仙의 養氣養生은 吾道의 部分인데, 吾道는 儒·佛·仙의 最源頭에 立하여 體는 곧 天道이며, 用은 곧 儒·佛·仙이니, 후세에 此를 오해치 아니하도록 慎하라.」⁸⁾

水雲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西學의 일부 요소를 그의 사상 안에 포용하였다. 그는 이 점을 스스로 그의 東學이 西學과는 「運인즉 하나요 道인즉 같으나 이치인즉 아니니라」⁹⁾고 설명하면서 인정하였다. 水雲이 東學을 西學과 같은 運數라고 한 것은, 東學과 西學이 모두 興盛하는 運數임을 말한 것이요, 道인즉 한가지라고 한 것은 東學이나 西學이나 모두 道로서는 <天道>인 것이 동일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것은 水雲의 東學 창도에 西學이 깊이 연구되고 일부 참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또한 水雲이 東學은 西學과 理인즉 다르다고 한 것은 그가 西學을 참조하면서도 西學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水雲은 특히 西學이

7)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1933, 第1篇, p.47

8) 「天道敎書」, 「亞細亞研究」, 제5권 제1호, p.216

9) 「東經大全」, 「論學文」.

自己의 靈魂만 있음을 알고 父母의 靈魂있음을 인정치 않아서 父母의 祭祀조차 지내지 않는다고 이를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자기의 영혼만 天堂에 갈 것을 빌고 부모형제의 영혼과 함께 갈 것을 생각치 않는 개인주의적 교리이며, 따라서 虛하여 實이 없는 교리라고 비판하였다.¹⁰⁾

水雲은 그러면서도 西學에 대한 對決意識에 지배되어 西學에서 민중들의 환영을 받는 요소를 東學의 내용과 형식에 포함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水雲은 西學에서 애용하는 핵심인 「天主」의 용어를 교묘하게 가져다가 이를 변형시켜 東學에 사용하였다. 그는 東學의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주문에서 「天主」의 〈主〉자를 풀이하여, 「主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다. (主者 稱其尊 而與父母同事者也)」¹¹⁾라고 하여 단순한 존칭이라고 해설해서, 「天主」가 「하느님」의 번역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天主」라는 西學의 핵심 용어와 대상 개념을 東學의 주문에 사용해 버림으로써 西學에 관심을 갖거나 경도될 수 있는 민중을 東學에 끌어 오려고 배려했음을 간취할 수 있다.

水雲은 中國을 멸망시켜 가고 있는 西洋의 막강한 힘을 인식하고 이를 두려워했으며, 중국이 멸망하면 朝鮮(東國)은 입술이 없어져서 이가 시리는 위험과 근심에 직면하게 됨을 잘 인식하였다.

「저 庚申년(1860) 4월에 天下가 분란하고 민심이 淸薄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즈음에, 또한 괴상하고 어긋나는 말이 있어 떠들썩하되, '西洋사람은 道成立德하여 그 造化에 미쳐어 일을 이루지 못함이 없고, 무기로 침공함에 당할 사람이 없다' 하니 中國이 소멸하면 (우리 東學도) 어찌 가히 순망의 (이가 시리는) 환이 없겠는가.」¹²⁾

10) 『龍潭遺詞』, 『勸學歌』 및 『東經大全』, 『論學文』 참조.

11) 『東經大全』, 『論學文』.

12) 『東經大全』, 『論學文』.

「西洋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天下가 다 멸망하면 또한 (우리 東國도)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輔國安民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¹³⁾

「庚申년(1860)에 와서 전래 들건대 西洋 사람들은 天主의 뜻이라 하여 富貴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天下를 쳐서 빼앗아 (西學의) 그 教堂을 세우고 그 道(西學의 道)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¹⁴⁾

水雲의 西洋의 힘을 ①서양의 道(西道)·學(天主教)·教(聖教) 등 <西學의 힘>과 ②武器·戰爭에서 보인 바와 같은 西洋의 <武力>의 두개의 차원에서 이를 보고, 이 중에서도 <西學의 힘>을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水雲은 <西學>이 <西洋의 힘>의 근원적 원천이며, 西洋의 武力도 궁극적으로 이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었다.

水雲은 이러한 <西學의 힘>이 西洋의 武力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中國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어서 東國(朝鮮)에 침입하여 자기 祖國을 멸망시키지 않을까하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절감하면서 「西學의 創道者」보다 자신이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하기도 하였다.¹⁵⁾ 水雲은 이러한 西學에 대한 對決意識에 지배되어 고뇌하다가 西學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스스로 西學보다 우수한 새로운 道로서의 東學을 創道하는데 성공하게 되자, 자기의 東學이 「古不比 今不比」의 萬古에 없는 無極大道임을 자신있게 선언한 것이었다.

東學의 理는 과연 西學의 理와는 달리 保(輔)國安民 廣濟蒼生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完成된 理인가? 이 문제를 오늘날의 용어로 휴머니즘의 문제부터 보기로 한다.

13) 「東經大全」, 「布德文」.

14) 「東經大全」, 「布德文」.

15) 「東經大全」, 「論學文」 참조.

三. 東學思想의 휴머니즘

東學思想이 정립하고 있는 오늘날 용어의 휴머니즘은 매우 독특하고 독창적인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水雲은 宇宙와 萬物이 모두 〈至氣〉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는 至氣一元 사상을 정립하였다.¹⁶⁾ 여기서 〈至氣〉는 일종의 〈에너지〉라고 해석된다. 水雲은 〈天〉과 〈人〉도 萬物과 같이 至氣로 만들어졌지만 天과 人만은 「最高의 神靈한 存在」이므로 다른 사물의 至氣와는 달리 서로 感應하여 〈氣化〉할 수 있는 神靈性을 가져서, 至氣를 매개로 하여 〈天=至氣=人〉이 되어서 〈天人合一〉이 된다는 사상을 전개하였다.

東學思想에 있어서 〈天人合一〉의 사상은 물론 水雲 이전에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水雲 이전까지의 모든 天人合一 사상은 〈天〉에 무게와 중심을 두어 〈天〉에 〈人〉이 매몰되어 합일되는 天人合一 사상이었다. 그러나 水雲의 독창적 발견은 〈人〉에 중심과 무게를 두어 〈人〉에 〈天〉이 들어와서合一되는 人間中心的 天人合一 사상을 정립한 점이었다. 이것을 「天心卽人心」¹⁷⁾ 「사람을 떠나 한울님을 생각할 수 없다」¹⁸⁾고 설파하였다. 이것은 동양의 전통적 天人合一 사상에 있어서 水雲이 코페르니쿠스적 大轉換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水雲의 天才性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水雲의 〈人〉의 안에 〈天〉이 들어오는 새로운 人間中心的 天人合一 사상은 바로 그의 「侍天主」 사상을 정립케 하였다. 즉 「사람은 누구나 모두 마음속

16) 『東經大全』, 「論學文」 참조.

17) 『東經大全』, 「論學文」

18) 吳知泳, 『東學史』, 1940, p.64

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상이다. 「侍天主」사상은 東學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水雲의 得道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水雲은 이것을 「사람이 한울님(天主)을 자기 몸 안에 모시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나는 도서 믿지 말고/한울님(하느님)만 믿어서라./네 몸에 모셨으니/捨近取遠하단말가.」¹⁹⁾

東學은 이 「侍天主」사상에서 「사람은 곧 하느님이다(人是天)」고 하여 人間을 하느님과 同格으로 보는 「人是天」사상의 독특한 휴머니즘을 창도하였다.

東學의 창시자인 水雲은 그의 侍天主사상에 의거하여 「사람이 하나님ियो, 하나님이 사람이라」²⁰⁾고 설파하였다. 東學의 제2세 교조 海月은 水雲을 계승하여 「사람은 곧 한울님이다(人是天).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같이 하라(事人如天)」고 가르쳤다. 海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꿈엔들 어찌 先生(水雲-인용자)의 遺訓을 잊으리오. 先生이 일찍 遺教이 있어 가르되 '사람은 한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 하셨도다.」²¹⁾

水雲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한다.

(문) 天道는 先天古來부터 있었나니 古人의 소위 天道와 다름이 있나뇨.

(답) 道則同也이나 理則非也니라. 古人 소위 天道라 함은 人類 밖에 따로이 最高無上의 神一位를 設하여 그를 人格的 上帝로 爲해 두고 人類는 그 下位에 居하여 拜服하며 自己의 生死禍福을 모다 그의 命命下에 定한 바라 하는 것이요, 나의 이른바 天道는 이를 反하여 사람이 한울(하느님)이오 (人是天)한울이 사람이라 한 것이다.

(문) 사람이 한울이라 함은 무엇이뇨.

19) 「龍潭遺詞」, 「教訓歌」.

20) 「東學史」, p.5

21) 「天道教 創建史」, 第2篇, pp.37~38.

(답) 有形曰 사람이오 無形曰 한울이니, 有形과 無形은 이름은 비록 다르나 理致는 곧 하나이니라. 사람이 한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혹은 말하되 물도 근원이 없는 물이 없고 나무도 뿌리없는 나무가 없나니 사람의 위에 따로 主宰하는 한울이 없다함은 깨닫기 어려운 말이라고 한다.

물이 만일 근원이 있어 흘러오는 것이라 하면 根源의 물은 처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무가 만일 뿌리가 있어 나오는 것이라 하면 뿌리의 뿌리는 또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리요. 사람도 이와같이 처음 한울님이 있어 났다 할 것 같으면 한울님은 처음 누가 주었다 하겠느냐. 사람이 누가 父母없이 난 사람이 있으리오 만은 父母의 父母를 거쳐 또 그 이상 千父母 萬父母를 찾아 올라가 보아도 맨처음 난 父母는 그 누구라고 할른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중략) 이럼으로써 사람의 根本을 찾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말이라고 하는 바이다.²³⁾

즉 水雲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곧 한울」(人是天)이어서 同一體이고 同格體인데, 구태어 구분한다면 有形的 것이 사람이고 無形的 것이 한울이라고 보는 것이다.

海月은 「人是天」 사상의 휴머니즘을 극히 강조하였다. 海月은 「事人如天」을 東學의 중심적 사상과 덕목으로 권장하였다. 海月은 동학 신도들에게 가르치기를 東學의 「道家에서는 사람이 오거든 天主가 강림한다고 말하라」²⁴⁾고 설파하였다. 오지영은 海月의 가르침에 대하여 「선생이 道를 선포할 때에는 「事人如天」이라는 말씀을 유일한 화제로 했었다」²⁵⁾고 기록하였다.

東學의 「사람은 곧 하느님이다(人是天)」고하여 人間을 至高至貴하신 하느님과 同格에 놓아 人間の 尊嚴性을 극도로 강조한 東學思想의 휴머니즘은 당시 하위신분층의 농민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동학사상의 휴머니즘은 당시 兩班官僚로부터 차별받고 학대받으며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

23) 『東學史』, pp.5~6. 이것의 水雲의 思想에 대한 吳知泳의 解說인.

24) 『東學史』, p.64.

25) 『東學史』, p.41.

고 있던 良人身分層과 賤人身分層의 농민들에게 人間이 하느님과 同格인 至高至貴함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東學의 人間을 하느님과 同格의 至高至貴한 存在로 설정하는 휴머니즘은 당시 最高度の 휴머니즘이어서 西學보다도 더 농민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었다.

당시 西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기성 종교들은 하느님(天主)을 人間의 外部에 있어 별개의 絶對의 主宰者로 설정하고, 人間은 하느님 밑에서 그 지배와 명령을 받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하느님의 <종(奴僕)>이라고 설파하고 있었다. 西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종교들도 人間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지배 밑에서의 인간들끼리의 문제이지, 人間의 至高至貴함을 하느님의 至高至貴함과 同格에 놓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東學思想의 휴머니즘은 이에 비하여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人是天)」이라고 하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느님이 계신 것이지, 사람의 외부에 별개의 主宰者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고 설파하고 人間의 至高至貴함을 하느님의 至高至貴함과 <완전히 同格>으로 설정하였다. 東學이 人間들끼리의 관계는 물론이요, 人間과 하느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人間을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 그 자체>라고 하여, 人間의 至高至貴함과 하느님의 至高至貴함을 <완전히 同格>에 설정한 것은 그 때까지 전세계 모든 종교들이 창안한 휴머니즘들 중에서도 새로이 <最高度の 휴머니즘>을 창도한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인류역사에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人間의 至高至貴한 尊嚴性을 하느님의 至高至貴함과 完全히 同格에 올려 놓은 휴머니즘이 東學을 제외하고는 또 어디에 있었는가? 西洋의 啓蒙思想까지도 하느님이 주신 태어날 때부터의 天賦人權을 말했고 人間들끼리의 天賦人權이지 절대자 하느님에 대해서만은 중으로 복종해야 함을 설파하지 않았는가?

東學의 휴머니즘이 세계 역사상 다른 휴머니즘에 비할 수 없는 最高度의 휴머니즘을 창도한 것이었다.

일찍이 水雲이 그의 東學을 「지금에도 듣지 못하고 옛날에도 듣지 못했던 일이고 지금에도 比할 수 없고 옛날에도 比할 곳 없는 法」, 「古不聞 今不聞之事 古不比 今不比之法」이라고 자부한 것은 東學사상의 극히 독창적인 새로운 最高度의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극히 정당한 자부심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四. 東學思想의 民主主義

필자는 東學思想에는 근원적인 기초적 民主主義사상이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그 하나는 모든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드는 민주적 平等思想이고, 다른 하나는 民主的 社會 政治機構를 만들려는 경향이다. 이 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一) 民主的 平等思想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근대적 신분제로부터의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은 기초적 민주주의의 대전제와 불감이 되는 것이다. 東學사상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되는 독특한 이론적 구조의 평등사상이 있다. 동학의 이 평등사상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의 사상이다.

동학의 민주적 平等思想은 水雲과 海月에 의해 정립되고 전개된 侍天主 사상과 人是天 사상에서 발전된 것이다.

동학의 민주적 평등사상의 기본적 이론구조를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안에 하느님(天主)을 모시고 있는데, 이 하느님은 身分, 嫡庶, 奴主,

男女, 老少, 貧富에 전혀 차별이 없이 모두 똑같은 하느님이며, 인간은 모두 동일한 하느님을 각각 마음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본래 平等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예컨대 身分差別 폐지와 身分平等의 이론구조를 보면, 兩班도 그의 마음 안에 하나의 하느님(天主)을 모시고 있고, 常民(平民, 良人)도 그의 마음 안에 동일한 하나의 하느님(天主)을 모시고 있으며, 賤民(奴婢, 七班賤人)도 그의 마음 안에 양반, 상민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과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하느님(天主)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兩班과 常民과 賤民은 서로 完全히 平等한 것이라고 설파하는 것이다. 동학은 이러한 이론위에서 兩班身分制度를 비판하고 그 철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水雲은 兩班身分制度를 비판하고 부정하여 「우습다. 저사람은/地閻(양반·벌열을 의미-인용자)이 무엇이게/君子를 비유하며/문필이 무엇이게/도덕을 의논하노」²⁶⁾라는 가사를 지어 불렀다. 水雲은 몰락양반의 庶子로서 자기 스스로를 貧賤者 집단에 동일시하여, 「富貴者는 公卿이요/貧賤者는 백성이라/우리 또한 貧賤者로/草野에 자라나서」²⁷⁾라고 읊으면서, 그 스스로를 <백성>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그는 후천개벽 후의 앞으로 오는 새시대에는 양반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따라서 貧賤者가 富貴者가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富하고 貴한 사람
이전 시절 貧賤이요,
貧하고 賤한 사람
오는 시절 富貴로세.²⁸⁾

水雲의 뒤를 이어 海月은 더욱 더 민주적 平等思想을 강조하고, 「우리 道

26) 「龍潭遺詞」, 「道德歌」.

27) 「龍潭遺詞」, 「安心歌」.

28) 「龍潭遺詞」, 「教訓歌」.

를 覺할 자는 호미를 들고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 속에서 많이 나오리라」²⁹⁾ 했으며, 「富한 사람과 貴한 사람과 글 잘하는 사람은 道를 통하기 어렵다」³⁰⁾고 하였다.

海月이 1891년 전라도 지방의 포교상태를 순시하고 있을 때 전라도의 교구를 둘로 나누어 임시로 便義長을 두어서, 全羅右道 便義長에 尹相五, 全羅左道 便義長에 南啓天을 임명하여 교도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南啓天은 賤人出身이고 尹相五는 兩班出身이었기 때문에 신분 격차로 말미암아 이 지역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海月은 이 신분 갈등 문제에 대하여 兩班출신 尹相五를 해임하고 賤民출신 南啓天을 全羅左右道便義長에 임명하여 전라도 전체를 지휘케 하였다. 대접주 金洛三이 교도 1백여명을 데리고 賤民출신 南啓天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고 海月에게 고하니, 海月은 先天의 썩어빠진 門閥制度·身分制度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일찍이 水雲大神師가 두 여종을 하나는 養女로 삼고 하나는 子婦를 삼은 뜻을 공부하고 깨달아 身分을 타파하여 행동하도록 다음과 같이 훈시하면서 모두 賤民 출신 南啓天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였다.³¹⁾

「들으라, 大神師께서 가르되 吾道는 後天開闢이오 更定胞胎之運이라 하였으니 先天에 썩어진 門閥의 高下와 貴賤의 等分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므로 先師가 일찍이 두 女婢를 解放하여 한사람으로 養女를 삼고 한 사람으로 子婦를 삼았으니 先師의 門閥이 諸君과 같지 못하냐. 제군은 먼저 이 마음을 깨치고 자격을 따라 지휘에 좇으라」³²⁾

東學은 조선왕조 시대에 극심했던 嫡庶의 差別에 대해서도 身分平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嫡·庶의 平等을 주장하였다.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한

29, 30) 『東學史』, p.42

31)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亞細亞文化社版), 제1권, pp. 434~435 참조.

32) 『天道教創建史』, 第2篇, p.44

兩班身分 출신 중에는 庶子계통이 많았다. 동학에서는 嫡·庶를 차별하지 않고 嫡·庶의 平等을 주장하고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제 3세 교조 義菴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도 庶子출신인 그가 동학에서의 嫡庶差別이 없는 平等主義에 감복했기 때문이었다.³³⁾

東學은 또한 조선왕조 사회에서 극심했던 男女差別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여 男女平等을 주장하였다. 동학사상에 의하면 女性도 남성과 똑같이 마음 안에 하느님(天主)을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다. 비유하면, 더 나아가서 여성은 「하느님을 낳는 하느님」으로서 尊貴하기 이룰데 없는 것이다. 海月은 「女性도 하느님(天主)」임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내 일찍이 청주 徐宅淳家를 지나다가 그 子婦의 織布의 聲을 듣고 徐君에게 물으되 君의 子婦가 織布하느냐 天主가 織布하느냐 함에 徐君이 不卞하였나니, 어찌 徐君뿐이리요.³⁴⁾

海月은 특히 女性들을 위하여 순국문으로 「內則」과 「內修道文」을 지어서 보급하였다. 海月은 女性도 마음에 하느님을 모신 尊貴한 하느님이므로 男女가 平等한 것임을 누누히 설교하고, 지아비들도 아내를 恭敬하여 夫婦가 和順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⁵⁾

東學은 또한 老少도 평등한 것임을 지적하고, 종래 홀대하여 오며 때로는 매질까지 자주 해오던 「어린이」도 尊重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海月은 「어린이도 하느님(天主)」임을 강조하고 어린이를 때리거나 差別하지 말 것을 설교하였다. 海月은 「內修道文」을 지어 부인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하면서 「어린이도 하느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게 곧 하느님을 치는 게오니」³⁶⁾라고 어린이를 尊重하고 절대로 때리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그

33) 『天道敎創建史』, 第3篇, pp.1~5 및 「나라사랑」, 「순명회선생 특집호」 참조.

34) 『天道敎創建史』, 第2篇, p.36

35) 『天道敎創建史』, 第2篇, p.37 참조.

36) 崔海月, 「內修道文」: 慎齋廬, 「崔時亨의 「內則」 「內修道文」 「遺訓」」, 『韓國學報』, 제12집, 1978, 〈새資料紹介〉 참조.

는 「(동학)道家에서 幼兒를 때림은 곧 天主를 때림이라 마땅히 삼갈지며」³⁷⁾라고 설교하면서 어린이를 尊重하도록 가르쳤다.

東學의 이러한 平等思想은 兩班官僚들에게 극심한 差別과 억압과 학대를 받아오던 常民(平民)들과 賤民들에게 그들도 兩班貴族과 꼭 마찬가지로 至高至貴한 하느님(天主)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兩班貴族과 完全히 平等的 至高至貴한 인간임을 가르쳐서 확고부동한 平等的 信念을 넣어 주었다.

東學의 이러한 平等사상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당시 西洋의 다른 종교사상들의 平等論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밑에서 人間이 하느님에 의하여 平等하게 창조되었으므로 平等的 것임을 설파했는데, 東學은 모든 人間들이 동일하고 至高至貴한 하느님을 자기들 마음 속에 각각 모시고 있으므로 모두가 〈하느님으로서〉 平等的 것이라는 훨씬 더 強度 높고 確固한 平等思想을 정립해 준 것이었다.

東學의 이러한 이론구조의 平等思想은 당시까지 세계의 모든 종교사상들이 창안한 平等사상 중에서도 가장 強度가 높고 확고한 사상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신도들에게 가장 確固한 平等的 信念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東學은 水雲이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古不聞 今不聞 古不比 今不比之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당시 常民(平民)層과 賤民層 등 下位身分層의 사람들은 東學의 이렇게 철저한 平等思想을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아 환영하듯이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왕조 정부에 의하여 水雲이 처형되어 殉道하고 東學이 不法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신분층의 농민들은 생명을 걸고 東學에 입도했으며, 확고한 平等的 신념을 갖게 되고 兩班社會身分制度의 폐지를 위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 常民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東學에 입도한 동기는 주로 이

37) 『東學史』, p.64

平等思想에 감복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8세대에 東學에 입도한 白凡 金九는 그의 입도 동기가 東學의 平等思想에 感服했기 때문이었으며, 주로 「상놈들이」 平等主義 때문에 東學에 들어갔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공손히 절을 한즉 그도 공손히 맞절을 하기로 나는 황공하여 내 성명과 문벌(상놈-인용자)을 말하고 내가 비록 成冠을 하였더라도 兩班대 서방님인 主人의 맞절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편발 아이에게 이런 대우가 과도한 것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선비는 감동한 빛을 보이면서, 그는 東學道人이라 先生의 훈계를 지켜 貧富貴賤에 差別이 없고 누구나 平等으로 대접하는 것이니 미안해 할 것 없다고 말하고 내가 찾아온 뜻을 물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別世界에 온 것 같았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늘 道를 행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일일 뿐더러 常놈 된 恨이 골수에 사무친 나로서는 東學의 平等主義가 더 할 수 없이 고마웠고,……나는 입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입도 절차를 물은즉 …….

이 때의 형편으로 말하면 兩班으로 東學에 들어오는 이가 적고 나와 같은 常놈들이 모여들었다.」³⁸⁾

東學의 이러한 평등사상과 동학에 입도한 신도들의 平等의 信念은 갑오년의 東學革命때 집강소의 농민통치에서 社會身分制의 廢止로 곧바로 실천되었다. 위정척사파 유생 黃玟의 『梧下記聞』은 이 때의 하위신분층의 동학 농민들의 양반 사회신분제 폐지 운동의 일 단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賊黨(동학농민군…인용자)은 모두 賤人奴隸이므로 兩班·士族을 가장 증오하였다. 그래서 兩班을 나타내는 幞족관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도 역시 兩班인가' 하고 冠을 빼앗아 버리거나 그 관을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兩班을 욕주었다.

무릇 집안의 奴婢로서 도적들(동학농민군-인용자)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38) 金九, 『白凡逸志』(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協會版), pp.27~29

도적들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 지극히 賤한 자가 主人을 위협 강제하여 奴婢文券을 불사르고 從良(良人됨)을 강제로 승인케 하거나 또는 그 主人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과 매를 치기도 하였다. 이에 奴婢를 가진 자들은 바람에 따라 奴婢文券을 불살라서 그 禍를 덜었다. (奴婢로서)삼가는 자가 혹시(奴婢文券을) 불사르지 말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러나 氣焰이 널리 맹렬하게 타고르고 있어서 主人이 더욱 이를 두려워 하였다.

혹은 奴와 士族主人이 모두 함께 도적을 따르는 경우에는 서로 (平等하게) 接長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법을 따랐다. 屠漢(白丁)·才人 등 속의 무리도 역시 平民·士族과 平等하게 禮를 했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치를 떨었다.³⁹⁾

황현의 이 기록은 동학농민들이 집강소 시기에 兩班社會身分制를 철폐하고 平等을 실천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묘사하여 알려주고 있다.

동학농민들은 집강소 시기에 兩班身分制를 폐지하고 平等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주로 ① 불량한 兩班들에 대한 응징과 兩班身分制度의 부정, ② 奴婢文書의 소각과 奴婢解放 ③ 七班賤人の 해방 ④ 地閥을 타파한 人材등용 ⑤ 靑春寡婦의 改嫁의 허용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⁴⁰⁾

후에 官軍이 동학혁명에 있어서의 동학도의 10죄 중의 여섯번째 죄목에 「平等을 가칭하여 名分(身分을 의미—인용자)을 부수었음」⁴¹⁾을 든 것이나, 또 「兩班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종文書를 불질러 綱常을 무너뜨렸으며」⁴²⁾라고 힐문한 것은 모두 동학 신도들이 兩班身分制를 철폐하고 平等을 추구하여 실천한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다.

東學의 이러한 平等思想과 平等을 실현하기 위한 兩班身分制 폐지운동은 동학사상의 민주주의의 기초와 한 측면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9) 黃玿, 『梧下記聞』, 第2筆의 p.97

40) 『梧下記聞』, 第2筆의 p.96; 『東學史』, pp.126~127 및 『草稿本東學史』, pp.43~44 참조.

41) 『兩湖右先鋒日記』, 『東學亂記錄』(국사편찬위원회판), 上卷, p.272.

42) 『東學史』, p.157.

(ㄴ) 民主的 社會政治機構의 모색

東學思想에서 보이는 民主主義의 요소는 동학혁명운동 기간 중에 民主的 社會政治機構를 모색한 곳으로 발전한 몇가지 사료들이 눈에 띈다.

東學은 1893년 3월 海月의 지휘하에 전국에서 약 2만 7천여명의 동학 간부들이 모여 〈報恩聚會〉를 개최하고, 斥倭洋倡義, 敎祖伸冤, 東學신앙의 自由등을 요구했는데, 정부에 의해 報恩聚會에 대한 대응으로서 兩湖都御使(후에 兩湖宣撫使)로 파견된 魚允中이 報恩에 도착하자, 보은취회의 동학도들은 그들의 집회 목적이 〈斥倭洋倡義〉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탐관오리의 축출을 요구하는 文狀을 어윤중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魚允中은 동학도들의 聚會를 〈民會〉라 하고 보은취회에 모인 동학도들을 〈民黨〉이라고 부르면서, 「그대들의 이 會가 무기를 전혀 들지 않았으니 곧 '民會' 라고 할 수 있다. 各國 역시 民會가 있어서 朝廷의 政令이 백성과 나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會議하여 講定한다고 일찍이 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에 접근하면 어찌 그대들을 匪類로 조치하겠는가」⁴³⁾라고 하였다.

이것은 東學의 報恩聚會라는 집회에 대하여 조선왕조의 고급관리가 〈民會〉라고 볼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各國의 民會가 朝廷의 政令이 백성과 나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會議하여 講定하는데」 東學의 民會도 그 일종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윤중이 말한 民會는 〈일종의 議會〉를 지칭한 것이었다. 즉 報恩聚會를 비롯한 東學의 集會에는 民主主義的 要素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들은 1894년 東學革命의 기간에 호남일대에 농민통치기관으로서 〈執綱所〉를 설치했는데, 이 집강소의 조직에는 執行機關(執綱·書記·省察·執事·童蒙의 행정기관)과 함께 10여인의 〈議員〉으로 구성된 〈議事機關〉을 두었다. 『刊行本 東學史』는 집강소에 「議事員 약간인을 두었으며」⁴⁴⁾라고 하여 議事機關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草稿本 東學史』는 집

43) 「聚語」, 「宣撫使再次狀啓 魚允中 兼帶」, 「東學亂記錄」, 上卷, p.123참조.

강소에서 「行政에 있어서는 執綱이 主務로 十數人의 議員이 있어 協議體로 組織되었었고」⁴⁴⁾라고 하여, 집강소에는 10여명의 〈議員〉으로 구성된 議事 決定의 協議體가 조직되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執綱所의 농민통치를 執綱이 단독으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하면 獨裁로 말미암은 착오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고 농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여명의 〈議員〉 〈議事員〉으로 구성되는 〈議事機關〉 〈協議體〉를 두어 여기서 충분한 討議와 檢討를 거친 후에 정책과 의사를 결정하도록 해서 이를 집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동학농민들의 執綱所가 일종의 〈地方議會〉와 유사한 議事機關의 協議體를 두어 民主主義的 議決過程을 거쳐서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실시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학도들이 民主的 社會政治機構를 조직하고 설치하기 시작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학혁명이 실패하고 全瑋準이 체포되어 서울에 압송되어서 일제 영사관 경찰의 심문을 받을 때⁴⁵⁾ 만일 동학군이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면 어떠한 政治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全瑋準은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간악한 관리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勢力家에게 맡기는 것은 弊害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名士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 政治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⁴⁷⁾고 대답하였다. 『東京朝日新聞』은 이것을 「東學首領과 合議政治」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하였다.

전봉준의 이러한 중앙에서의 合議政治의 구상에도 民主的 社會政治機構의 모색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전봉준의 이러한 중앙정치에서의 〈合議政治〉의 구상은 執綱所 통치에서의 〈議員〉과 〈議事機關〉의 설치를 통한 合議

44) 『東學史』, p.126.

45) 吳知泳, 『草稿本東學史』, pp.42~43

46) 姜昌一, 「甲午農民戰爭 자료 발굴: 全瑋準 會見記 및 取調記錄」,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년 9월호 참조.

47)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東學首領と合議政治」.

政治의 실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몇개의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東學과 동학농민들의 사상과 행동·실천 속에 民主主義的 요소가 있으며, 民主的 社會政治機構의 설치가 모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五. 맺음말

이상에서의 고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東學〉의 명칭은 〈東洋之學〉과 〈東國之學〉의 이중의 중첩된 의미를 가진 天道學이었다.

水雲의 東學은 종래 東洋의 전통적인 天人合一 사상에서 종래에는 〈天〉에 무게와 중심을 두었던 것을 水雲은 이를 逆轉시켜 〈人〉에 무게와 중심을 둬으로써, 〈人〉이 모두 마음 속에 〈天〉을 모시고 있다는 동학 특유의 〈侍天主〉사상을 정립하였다.

東學은 이 侍天主사상을 발전시켜 「사람이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사람이다.」라는 〈人是天〉 사상을 정립하여 人間의 至高至貴한 尊嚴性이 하느님의 至高至貴한 존엄성과 同格이라는 最高度の 휴머니즘을 정립하였다. 東學은 또 「사람은 곧 하느님이다(人是天),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 같이 하라(事人如天)」고 가르쳐서 最高度の 휴머니즘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을 사람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絕對的 主宰者로 설정하고 사람은 그 하느님 밑에서 하느님의 지배와 명령을 받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설파한 전세계 다른 종교들의 휴머니즘과는 크게 차원이 다른 最高度の 휴머니즘을 정립하여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人間의 至高至貴한 尊嚴性을 하느님의 至高至貴한 尊嚴性과 完全히 同格으로 격상시키고 〈人間과 하느님〉을 一體로 통합시킨 東學의 휴머니즘은 당시까지 전세계의 종교와 사상들이 창안한 휴머니즘들 중에서도 가장 格調높은 最高度の 휴머니즘이며, 매우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東學사상은 侍天主 사상을 발전시켜 民主主義 사상의 골간이 되는 독특한 이론구조의 平等思想을 정립하였다. 즉 사람은 누구나 마음 안에 하느님을 하나씩 모시고 있는데, 이 하느님은 貴賤·嫡庶·主奴·男女·老少·貧富에 차별없이 모두 똑같은 동일한 하느님인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동일한 하느님을 하나씩 平等하게 分有하여 內在化해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平等하다는 사상이 정립된 것이었다.

이러한 東學 특유의 平等思想은 身分差別에 적용되어 身分平等사상, 남녀차별에 적용되어 男女平等사상, 老少차별에 적용되어 어린이 존중사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東學의 이러한 平等思想은 신성한 하느님을 사람의 마음 안에 넣어 內在化함으로써 平等을 설파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平等하게 人權을 갖고 태어난다는 서양 계몽주의의 평등사상 보다 더욱 더 〈平等〉에 대한 강력한 確信을 심어준다는 데 큰 특징이 있었다.

동학사상의 이러한 最高度の 휴머니즘과 민주주의적 平等思想은 당시 兩班官僚들로부터 차별받고 학대받으며 천시되어 오던 下位身分層(平民層과 賤民層)의 농민들에게 人間의 하느님과 同格의 至高至貴한 尊嚴性和 완전한 社會的 平等성을 가르쳐 주고 確信을 심어주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활력을 주고, 그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아 급속히 교세가 확대된 것이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동학농민들이 執綱所를 설치했을 때, 동학도들은 그들의 最高度の 휴머니즘을 실천하여 「不殺人 不殺物」의 원칙을 매우 잘 준수했으며, 그러면서도 社會身分制 폐지를 과감하게 단행하였다.

또한 동학도들은 집강소에서 獨裁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명의 〈議員〉으로 구성된 〈議事機關〉을 두어 모든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民主的 討論과 檢討를 거쳐 合議케 하는 民主主義的 社會政治機構의 수립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전봉준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몰아낸 다음에는 獨裁를 방지하고 協議機關을 두어 合議政治를 실시할 것을 구

상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동학사상의 民主主義의 실천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東學의 開闢思想

表 嘆 三

(天道教·常住宣道師)

1. 머리말

東學을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東學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西學과 대항하기 위해 唱導된 종교로 보는가 하면, 儒·佛·仙 삼교의 장점을 뽑아다 혼합한 宗教로 보기도 한다. 東學 이해에 看過하는 점은 大神師 水雲 崔濟愚(1824~1864)가 자신의 道를 無極大道,¹⁾ 또는 天道라 했다가 1862년 1월에 “道는 비록 天道이나 學인즉 東學이라”²⁾ 했다는 점이다. 즉 道와 學을 兼用했다하는 점이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보면 ‘다시 開闢’과 ‘無極大道’, ‘侍天主’와 ‘輔國安民’이란 용어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시 開闢’과 ‘侍天主’가 핵심이 되고 있다. 즉 ‘다시 開闢’과 ‘侍天主’란 용어는 東學思想의 알맹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시 開闢’과 侍天主의 神觀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道·學의 說明體系

19세기 후반에 宗教라는 낱말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대부분 이 宗教라는 視點에서 東學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宗教的 측면에서만 접근할 때 제대로

1) 용담유사에서는 無極大道라 했고 東經大全에서는 天道라 했다.

2) <東經大全> 論學文 “曰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曰不然 吾亦生於東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

이해할 수 있을까. 東學은 서구적 종교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東洋에는 宗教란 낱말 대신에 道와 學·法·教·術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大神師 水雲도 道와 學·法·教라는 낱말을 사용했다. 즉 '敎人 此法', '天道' '無極大道' '東學' 또는 '西學' '聖教' '天主之教'라는 낱말들을 사용했다. 東學을 이해하려면 宗教 概念을 잠시 유보하고 道와 學·法·教라는 東洋的 概念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할까.

道와 學의 설명체계는 무엇인가. 大神師 水雲의 道와 學은 현세문제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 道란 무엇인가. 東經大全 八節에 “道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나의 信念이 한결 같은가를 헤아려 보라. 道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오 다름이 아니로다”³⁾라 했다. 道란 체계적인 신념의 틀같은 것이며,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중용에는 “性品에 따르는 것을 道라 하며,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⁴⁾고 했고 또한 “誠者는 天道요, 誠之者는 人道라”⁵⁾했다. 즉 誠 자체는 천도이며, 誠 되려는 것은 人道라는 것이다. 道는 보편적인 原理같은 것이며 마땅히 行해야 할 規範같은 것이다. 또한 治國平天下의 理念이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道理같은 것으로 설명 되어 있다. 동양의 道觀念은 엇비슷하다.

大神師 水雲도 無極大道와 天道란 사람답게 살아가는 道이며 다시 開關의 道라 했다. 말하자면 다시 開關을 위한 信念으로서의 道이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으로서의 道이다.

다음은 學이란 무엇인가이다. 교훈가에는 “心學이라 하였으니 不忘其意 하여 서라”라 했고, 布德文에는 ‘學成道德’이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學은 價值 中立的인 學問의 學은 아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信仰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學은 道를 學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즉 어떤 道를 學究하고 學習하고 學行하는 과정을 총칭해서 學이라 했다.

論學文에서 “道는 天道이나 學인즉 東學이라”⁶⁾했듯이 天道 즉 無極大道를

3) “不知道之所在 度吾心之一如 不知道之所在 我爲我而非他…”(東經大全·八節)

4)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中庸)

5)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中庸)

6) “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 曰 不然 吾亦生於東 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論學文)

學하는 것을 東學이라 한 것이다. 말하자면 道를 “바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實踐하는 것”을 學이라 했다. 마찬가지로 西道를 學하는 것을 西學이라 했다. 이처럼 學이란 어떤 道에 대한 學이다. 예컨대 大神師 水雲의 道를 學하는 것을 東學이라 하고, 크리스트의 道를 學하는 것을 西學이라 하고, 공자의 道를 學하는 것을 儒學이라 한다. 仙道를 학하는 것을 仙術이라 한다.

大神師 水雲은 學의 구체성을 어떻게 설명 했는가. 교훈가에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⁷⁾ 라 하여 本呪文에 心學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本呪文의 핵심은 ‘造化定’과 ‘萬事知’이다. 論學文에서 造化定の “定은 한울님과 合其德하며 한울님의 마음으로 定한다는 뜻”이라 했고, 萬事知의 “지는 道를 알고 받아들인다”는 뜻⁸⁾이라 했다. 저절로 造化가 생긴다는 뜻도 아니며, 저절로 알게 된다는 뜻도 아니다.⁹⁾ 定者는 신비체험의 측면이라면 知者는 窮理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神師 海月은 侍天主造化定은 根本이요 永世不忘萬事知는 窮理라 했다.

수덕문에 信자 풀이가 있다.¹⁰⁾ 이것은 ‘믿을 信’자의 해석이 아니다. 道를 바로 알아 확고한 신념을 세우기 위한 學의 일면을 설명한 信자 해석이다. 東學의 學은 信念體系인 無極大道를 궁리로서 知其道하고 知其道한 것을 學習하여 익히고 끝으로 學行하는 실천이 합쳐져야 함을 말했다. 이처럼 大神師 水雲은 독특한 道와 學의 설명체계를 제시했다.

3. ‘다시 開關’의 참뜻

7) “해몽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조 폐코 수도하기 힘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이라. 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 허사 될가보다.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어라. 현인군자 될것이니 도성입덕 못미칠가.” (용담유사 교훈가)

8) “定者 合其德 定其心也,...知者 知其道而 受其知也...” (東經大全 論學文)

9) 本呪文 解釋은 大神師 水雲이 집필한 論學文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가끔 恣意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한울님을 잘 모시면 造化가 저절로 定해진다. 한울님을 永世 不忘하면 萬事가 저절로 알게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10) “大低此道心信爲誠 以信爲幻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取可退否 再思心定之後言不信曰信”(修德文)

원래 開闢은 天地開闢을 뜻한다. 그러나 용담가에 보면 “開闢 후 5만년에 네가 또한 침이로다”라 하여 開闢된지 겨우 5만년이라 했으므로 天地 開闢은 아니다. 또한 안심가와 몽중노소문답가에 “십이 제국 괴질 運數 다시 開闢 아닐런가”¹¹⁾라 하여 병든 세상을 ‘다시 開闢’하자 했으므로 천지를 개혁하자는 뜻은 아니다.

開闢이란 세상을 ‘열었다’는 말이므로 다시 開闢은 이미 열었던 세상을 다시 새 세상이 되게 열자는 말이다. 그리고 다시 開闢해야 할 세상은 갈등과 모순의 질병에 빠진 文化體制의 세상을 말한다.

다음은 ‘다시 開闢’을 課題로 삼게 된 大神師 水雲의 歷史的 視覺은 무어인가. 한마디로 創造的 循環史觀¹²⁾이었다. 즉 文化體制는 살아 움직이는 生成變化하는 有機體로 보고, 이 유기체인 문화체제는 誕生→成長→衰退→解體¹³⁾의 순환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지향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다.

布德文에 보면 “挽近 以來로 세상 사람들이 各自爲心이 되어 不順天理하고 不顧天命하니… 우리 나라도 惡疾이 가득차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¹⁴⁾고 했다. 요순시절에 꽃피웠던 지난 문화체제가 지금 解體期에 이르러 終末現像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했다.

大神師 水雲은 독특한 歷史觀인 創造的 循環史觀으로 오늘의 종말현상을 진단했으며 ‘다시 開闢’의 과제상황까지도 설정했던 것이다.

17)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혁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와서 국태민안 되지 만은 기험하다 기험하다 야국운수 기험하다.” (안심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혁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 정해 국태민안 할것이니 개탄지심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내서라.” (몽중노소문답가)

12) 循環史觀의 대표적 이론은 孟子의 一治一亂說을 든다. 구체적인 주장으로서 ‘五百歲王者興’이라는 說인데 堯舜에서 湯王, 湯王에서 文王, 文王에서 孔子에 이르는 期間이 각기 5백년이라 보고 이 期間을 週期로 하여 一治一亂의 現像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3) A.J.Toynbee는 文明이 誕生하고 成長한 다음 老衰하여 解體되는 것은 人類가 創出한 文明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14) 布德文은 歷史觀을 서술한 글이다. 文化前 時代, 文化時代, 文化全盛時代(五帝時代), 文化 衰退時代, 文化沒落時代의 순환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挽近以來란 文化全盛時代로부터 점점 衰退하기 시작하다가 近者에 이르러 더욱 衰退現像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말이다.

4. 無極大道와 呪文

文化體制를 ‘다시 開關’하려면 새 文化의 씨앗이 되는 새로운 信念體系가 필요하다. 大神師 水雲은 새로운 신념체계의 道를 얻기 위해 名과 字와 號까지 고쳐가며 求道에 전념했다.¹⁵⁾ 1860년 4월 5일(양 5월 25일)에 드디어 ‘다시 開關’의 無極大道¹⁶⁾를 한울님으로부터 받아냈다.

布德文과 論學文을 보면 한울님으로부터 받아낸 것은 靈符와 呪文이다. “나에게 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僊藥이오 그 형태는 太極과 같고 또한 弓弓과 같도다. 나의 이 靈符를 받아 질병에서 사람을 건지고 나의 呪文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 나를 위하면 너 또한 長生하여 천하에 德을 퍼게 되리라.”¹⁷⁾했다.

論學文에서는 “너는 이미 無窮無窮한 道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닦고 鍛鍊해서 呪文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法을 정해 布德하면 너로 하여금 長生하여 빛나게 하리라.”¹⁸⁾했다. 布德文에서는 呪文을 받으라 했고 論學文에서는 呪文을 지으라 했다.

呪文을 받은 것인지, 지은 것인지 판단키 어렵다. 차원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呪文을 받았느냐,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呪文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神師 水雲은 “道法의 次第는 呪文 스물한자에 있다.”¹⁹⁾고 했으며, 그리고

15) 大神師 水雲은 1859년 10월(음)에 용담 골짜기로 들어오자 道를 얻어내지 못하면 죽겠다는 결심을 했다.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巢穴未定 誰云 天地之廣大 所業交違 自憐一身之難狀…龍潭古舍 家嚴之丈席… 率妻子 遷徙之日 己未之十月”(修德文)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 소리오 높으나니 산이로세…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듯고… (용담가) “입산한 그 달부터 자호 이름 고칠 때는 무슨뜻을 그리하고…(교훈가) 字는 道彦을 性默으로, 號는 무엇을 水雲으로, 이름은 濟宣을 濟愚로 고쳤다.

16) 龍潭論詞에는 無極大道라 했고 東經大全에는 天道라 했다.

17) “吾有靈符 其名僊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 則余亦長生 布德天下矣.”(布德文)

18) “及汝 無窮無窮之道 修而鍊之制其文 正其法布德 則令汝長生 昭然于天下矣.”…(論學文)

19) “吾亦 幾至一歲 修而度之 則亦不無 自然之理 故一以作呪文 一以作降靈之法 一以作 不忘之詞 次第道法 猶爲二十一字而已.”…(論學文)

“天地의 무궁한 數와 道의 무궁한 理致가 이 글(論學文)에 실려 있다.”²⁰⁾고 했다. 이 呪文이 무극대도의 핵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無極大道의 씨앗은 呪文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1자의 주문은 降靈呪文과 本呪文으로 되어 있다. 그 중 本呪文의 기본 言語는 侍天主이다. 이 侍天主 神觀念이 無極大道의 핵심을 이루는 셈이다.

侍天主 神觀念을 이해하자면 먼저 ‘한울님’ 觀念부터 알아봐야 한다. 經典에 나타난 한울님 觀念들은 십 여가지가 된다. 類型別로 보면 다섯 지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唯一 하신 분, 둘째 超越해 있는 분, 셋째 人格的인 분, 넷째 生成과 약동을 지속하는 분, 다섯째 초월해 있으면서 內在하신 분이다. 이 중 唯一性·超越性·人格性 등은 唯神論과 다를 것이 없으나 生成觀念과 內在觀念은 侍天主 神觀念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生成 觀念은 存在로서의 한울님 관념과는 반대이다. 變化와 生成을 요구하는 相對的이고 時間的인 한울님이며, 언제나 되어져 가고 있는 한울님이다.²¹⁾ 그리고 侍天主 觀念은 超越的인 한울님이면서 우리 몸 안에 모셔져 있다는 內在的인 한울님 관념이다.

大神師 水雲은 生成의 神觀念은 勞而無功으로, 內在的 神觀念은 侍天主로 표현하기도 했다. “나 또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너를 세상에 냈다.”²²⁾ 던가 “한울님 하신 말씀 새벽 후 오만 년에 내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새벽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²³⁾라고 했다. 神은 全知全能한 분인데 勞而無功했다면 과거의 神觀念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勞而無功이란 하고자 意慾했던 것이 미완되었음을 말한다. 生成의 神觀念으로 보면 언제나 未完 상태일 수밖에 없다. 勞而無功이란 표현은 무능의 神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生成의 神, 변화과정의 神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侍天

20) “凡天地無窮之數 道之無極之理 皆載此書”…(論學文)

21) “수운이 이해하고 체험한 신은 존재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당신이었으며, 절대적인 영원한 무궁이면서 동시에 변화과정 속에 있는 상대적인 시간적 生成神이기도 했다.”…(過程哲學과 過程神學: 水雲의 汎在神論 · 金敬宰)

22) ‘廬亦無功 故生汝世間 敎人此法’…(布德文)

23) (용담유사 용담가.)

主 神觀念으로서 우리의 價値觀을 근본적으로 顛倒시키는 새로운 관념이다.

5. 侍天主 神觀念의 참뜻

論學文에서 侍天主의 '侍'자는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 不移者也”라 했다. 교훈가에서는 “네 몸에 모셨으니 捨近取遠하단 말까”라 했다. 한마디로 태어나면서 우리 몸안에 한울님이 모셔져 있다고 했다.

侍字에는 적어도 세가지 뜻이 있다. '兩親父母를 모신다' '선생님 모시고 다녀오라' '어른을 사랑방에 모셨다' 등이다. 이 중에서 侍의 뜻은 '어른을 사랑방에 모셨다' '선생님을 안방에 모셨다'는 식으로 場所性을 지칭하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侍天主의 侍자는 곧 '네 몸 안에 한울님이 모셔져 있다'는 장소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면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라는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네 몸에 한울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직역하면 “侍者는 우리 몸 안에는 한울님 靈이 있고, 밖으로 氣化하고 있음은 모든 사람이 不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뜻이다.²⁴⁾

“움길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움길 수 없다”는 말을 “움적일 수 없다”는 말로 대치시키면 요지부동 하다는 뜻이 된다. 즉 “우리 몸 안에 한울님 靈이 있고 밖으로 氣化하고 있다는 사실은 움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사람들이 모두 안다”는 말이 된다. 비약일지 모르나 우리 몸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立證하는 뜻이라 여겨진다. 이것이 侍天主의 해석이며 內在神과 生成의 神을 설명한 要諦라 본다.

文化時代 이후부터 우리들의 기본관념은 超感性界에 最高價値體系인 神이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리하여 이 神이 인간의 善惡을 審判하고, 역사를 豫定하고, 禍福을 결정해 준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天上에 神이 있어 모든 것을 관리한다

24) “各知不移者也”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한울님 體驗을 타인에게 말로 움길 수 없다라기도 하고, 몸 전체 곧 生命全體로써 모셔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生命의 根源者 한울님을 자기의 몸밖으로 움겨놓을 수 없는 자로 해석하기도 한다. 요는 不移者의 해석에 좌우된다.

는 觀念은 허무지설이라 규정하고 일축했다.²⁵⁾ 超感性界에 설정한 神인 最高價 價值體系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다.

侍天主 神觀念이 갖는 몇 가지 意義를 살펴보면 첫째, 神과 人間의 관계를 天人合一의 관계로 파악 했으며, 둘째, 역사에서 인간의 主體性을 배제한 決定論的 요소들을 克服했으며 셋째, 수직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水平的이며 圓形的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한울님이 내 몸에 모셔져 있다는 神觀念은 새로운 人乃天의 人間觀을 만들어 놓았다.²⁶⁾

특히 “勞而無功 하다가서 너를 만나 成功했다”²⁷⁾는 뜻은 한마디로 어떠한 決定論도, 어떠한 運命論도 배제한 人間 스스로가 歷史의 主體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歷史觀을 갖는 東學에 대해 運命論을 신봉하는 종교라고 오해하는 예가 있다. 社會改革思想이 없다든지, 역사가 無爲而化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지 여러모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無爲而化를 잘못 이해한데서 연유 된다. 論學文에 “吾道 無爲而化矣,”²⁸⁾라는 글귀가 있다. “守其心 正其氣 率其性 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하는 것이 無爲而化라 했다. 이 말은 크리스티교의 수행방법과 어떤점이 다른가고 묻자 나의 道서 無爲而化라 설명했던 것이다.²⁹⁾ 無爲而化란 함이 없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無爲而化란 첫째 순수한 그 마음을 지켜야 하고, 둘째 기운을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하고, 셋째 주어진 本性에 따라야 하고, 넷째 참된 가르침을 받아 들일

25) “천상에 상제님이 옥경대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하니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 아닐런가.” (道德歌)

26) <東學之人生觀> 夜雷 李敦化 著. 1974年天道教中央總部 復刊. “神은 우주의 因, 사람은 우주의 果, ...그렇다고 사람 그 자체가 곧 神으로 輕斷 誤信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27) “한울님 하신 말씀 개벽 후 오만년에 내가 또한 참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이 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득의 너희 집안 운수로다.” (용담가)

28) 無爲而化라는 말이 나온 전후 文脈을 보면 洋學과 다른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大神師 水雲은 자신의 道는 無爲而化로, 西道는 只祝 自爲身之謀로 표현했다. 말하자면 修行의 차이점을 말한 것이다. 그 설명을 보면 “마음을 순수하게 갖고, 氣를 바르게 하고, 本性에 따르고, 가르침을 받으면 스스로 그러하게(自然) 道의 이치에 맞게끔 되어진다는 뜻이다.

29) “曰 洋道無異者乎. 曰 洋學如斯而有異 如呪而無實 然而 運則一也 道則同也 理則非也. 曰 何爲其然也. 曰 吾道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論學文)

때 隱然 중에 되어진다는 뜻이다. 적어도 마음과 氣運과 性品과 가르침 등 네 가지 修行要件을 충실히 갖췄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無爲而化란 개인적인 修行에 관한 用語³⁰⁾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無爲而化的 반대어는 各自爲心이다. 大神師 水雲은 西道에 대해 “자신의 한 몸만 圖謀하기 위해 祝願한다”고 비판했다. 동학은 無爲而化的 자세인데 비해 西學은 각자위심의 자세라고 설명한 것이다.

끝으로 大神師 水雲은 侍天主 神觀念을 어떻게 생활에 실천 했는가. 神師 海月에 의하면 “항상 제자들에게 事人如天하라고 누누이 당부 했다”는 것이다.³¹⁾ 事人如天이란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 섬기듯이 하라”³²⁾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 섬기듯이 하라 한 것이다. 侍天主 神觀念은 새로운 人間觀과 世界觀을 정립케 했다.

1865년 10월 神師 海月은 劔谷(금동골)說法에서 “人是 곧 天이라. 故로 人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나니...우리 道人들은 일체 貴賤의 차별을 철폐토록 하여 스승님의 본뜻에 따르도록 하라”³³⁾고 했다. 東學 초기부터 侍天主 神觀念은 事人如天의 실천적 人間觀을 강조하여 자리잡게 했다.

6. 理想社會와 輔國安民

東學은 文化的 차원에서 ‘다시 開闢’하여 새 문화체제를 창조해 내자는 것을

30) 大神師 水雲은 여러 글에서 無爲而化를 사용했다. “오는 사람 효유해서 삼칠자 전해주니 無爲而化 아닐런가.”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 부터 군자되어 無爲而化 될것이니 지상신선 내아닌가.” “造化者 無爲而化也”등이다. 역사에 적용시킨 말이 아니라 개인 수행에 관한 말임을 알 수 있다.

31) 天道敎書와 天道敎會史 草稿 布德 26年條에는 “余 夢寐의 間인들 어찌 先生의 遺訓을 妄覺하리오. 先生이 人乃天의 本義를 說하사대 曰 事人如天하라 하셨나니 故로 余 小兒의 孺이라도 또한 學하며 師하노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事人如天의 說法은 神師 海月의 說法이 아니라 大神師 水雲의 說法이다. 그리고 人乃天이란 용어를 聖師 義菴의 法說로 알고 있는데 神師 海月의 說法이다.

32) 지금은 事人如天으로 표기하지만 한때 동학 당시에는 事人如事天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33) <天道敎書> 1920年 天道敎中央總部 刊 프린트 講習敎材本.

목적으로 하는 信念集團이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理想社會는 ‘堯舜聖世’나 ‘太平聖世’와 같은 社會이다. 그러나 大神師 水雲은 復古主義의인 이상사회를 바란 것은 아니다. 새로운 요순성세, 새로운 태평성세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理想社會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正義로운 社會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사회를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란 理想社會의 실현을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다.

동학에서 말하는 正義로운 사회란 輔國安民의 사회를 말한다.³⁴⁾ 輔國이란 무조건 나라를 돕는다는 뜻이 아니다. 輔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도울 輔자”다. 1890년 이후 輔자를 안보 保자로 사용하여 保國安民이라 쓴 경우가 있으나 經典에는 도울 輔자 만을 사용했다.

다음은 安民이다. 安民이란 말 그대로 백성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최소한의 福祉가 보장되고 公正한 配分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大神師 水雲이 말하는 輔國安民이란 正義로운 나라, 복된 사회를 만들자는 말이다. 이 輔國安民은 東學의 일차적인 목표이며 理想社會로 가기 위한 前提조건이요 必要的 要件이다.

正義와 公正에는 어떤 基準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基準이 있어야 한다. 東學은 人乃天과 事人如天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사람이 한울님처럼 존엄하다는 人間尊嚴性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사람의 尊嚴性은 한울님 尊嚴성과 같다”는 人乃天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은 한울님처럼 존엄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상과 같이 東學은 다시 開闢을 통해 새로운 삶의 틀인 文化體制를 재창조 하자는 것이다. 동학을 宗教라 하든, 道學이라 하든 窮極의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울님처럼 대접 받을 수 있는 現實 社會를 만들자는 데 있다.(끝)

34) 布德文에서는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 傷害之數也, …輔國安民計將安出.”이라 했고 권학가에서는 “一世上 저 人物이 塗炭中 아닐런가. 陷地死地 出生되어 輔國安民 어찌할고.”라 했다. 東學의 一次의인 課題는 現世에서 輔國安民을 이루는 일이다. 東經大全 이외의 글에서 保國安民이라 표기한 사례가 있는데, 輔國安民의 뜻과는 다르다.

東學思想의 革命性

林 賢 九

(中國 延邊大)

東學은 1860년 4月5日 宗教思想家 崔濟愚(水雲, 1824~1864)에 의하여 創道되었다.

崔濟愚는 東學을 創道하자 손수 詩, 歌詞, 短文을 지어 교리로 定하시고 布教에 着手하시었다. 敎理가 민중의 心意에 符合되고 敎化가 적절하여 東學에 따르는자 其數不知였다고 한다.

東學의 急速한 發展은 封建統治배들을 경황실색케 하였다. 그들은 동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를 파괴하려고 미쳐날뛰었다. 그러나 (一切迫害는 모두 相反되는 結果를 빚어내게 된다. 그것은 민중조직을 파괴하지 못하였고 억누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신도를 모여들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민중의 조직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하여 동학은 점차 민중성적 종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나중엔 甲午東學革命運動을 發動하여 近世 朝鮮民族의 反封建, 反侵略투쟁의 序幕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東學은 결국 무엇때문에 이같이 重要的 歷史的 作用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思想的으로 밝히어 널리 宣揚하는 것이 바로 本文이 다 하여야 할 重要과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本人의 水平制限으로 하여 어려움을 바가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릇됨을 피면키도 어려울 것이어니 여러 碩學諸賢의 서슴없는 批評과 敎正이 계시기를 삼가 바라는 바이다.

1. 東學의 創道

19세기 後半期는 바로 李朝封建社會가 해체 몰락에로 직면되던 時期이다. 當時 西方國家들의 侵略的策動은 뒤떨어졌던 朝鮮에 대하여 (西勢東漸)의 엄중한 威脅으로 되었다. 그러나 부패몰락한 兩班統治階級은 나라의 흥망성쇠, 민중의 생사존망은 아랑곳도 하지않고 더 큰 권력과 재부를 쟁탈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다. 이로하여 민중의 생활은 더욱 영락되었으며 나라경제도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같은 형세에 직면한 광대한 민중은 兩班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사회투쟁에로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민중투쟁은 지도사상이 명확치 못하며 조직적이 못되어서 죄다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로하여 어떤 민중들은 실망한 나머지 社會투쟁에 參加할 것을 단념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민중은 (구세주)의 出現만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정세하에서도 崔濟愚는 남달리 時勢의 變化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중의 心理動向을 깊이 이해한 끝에 고난속에서 허덕이는 廣大한 민중을 구제하리라 作心하고 민중의 앞장에 뛰어나섰다. 그로부터 광대한 민중을 구제할 수 있는 참된 眞理를 찾기 위하여 민중속으로 또는 名山大川 古刹宗廟를 찾으면서 오랜 세월의 방랑생활을 지내었다.

그래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다시금 고향땅에 돌아와 집안에 조용히 앉아 묵상으로 구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던 중 어느날 홀연히 한 道師를 통하여 (49日 기도하라)는 啓示를 받아 매일같이 한울님에게 기도를 드리였다. 이와 同時에 求道의 굳은 마음을 다지기 위하여 本名(제선)을 (제우)로 고치어 자기의 (세상의 우매한 인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널리 알렸으며 또한 (道氣長存邪不入 世間衆人不同歸)라는 立春時를 써서 문설주에 부쳐

求道하는 마음의 견정척백함을 표시하였다.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努力에 努力을 다한 結果 마침내 그가 37세가 되던 해인 1860년 4월5일 드디어 (宗教大覺)을 이루어 한울님의 啓示에 따라 (天道)를 받게 되었다. 이로서 그는 東學의 創道를 宣布하였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동학은 時代의 變化에 따라 產生하게 되었으며 민중의 욕망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 그 時代의 社會的 產物이다. 때문에 동학은 그 時代의 特性과 민중의 욕망을 反映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東學思想이 社會性과 民衆性 심지어는 革命性的 思想을 포괄할 수 있었던 前提條件이었던 것이다.

2. 東學의 思想的 根源

原始東學思想은 教祖 崔濟愚가 쓰신 詩, 歌詞, 短文 등으로 構成되었다. 後日 第二世教祖 崔時亨(海月, 1827~1898)이 漢文 東經大全과 朝鮮말로 된 龍潭遺詞로 편찬하여 出刊하였다. 東學思想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原始的 東學思想을 취급하려는 것이다.

그 內容을 보면 동학사상은 한울님을 唯一의 信仰對象으로 삼으면서 한울님을 마음속에 모심을 宗旨的 理念으로 한다. 그는 한울님을 몸에 모심을 (侍天主)라 지칭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侍天主思想과 開闢思想의 두가지 中心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侍天主란 누구나가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으로 宗教信仰的 思想이다. 개혁이란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처음 열린다는 것으로 變革을 意味하는 革命性的 思想이다. 이렇기에 동학은 修道와 革命, 卽 教政變修의 一體化를 強要하게 된다.

東學思想이 이같은 構成을 가지게 된 것은 絶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위에서 제기한 동학이 그 時代의 特性과 當時 民중의 욕망을 애써 반영한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다.

아래에 동학사상의 根源을 소급하여 살펴보려 한다. 우선 侍天主思想을 보면 그것은 한울님을 믿는 土俗의 信仰思想에서 由來되었다. 조선민족은 自古로부터 한울님은, 天地를 개벽하고 人間의 生命을 부여한 존재로 믿으면서 숭배하였다. 후엔 人類命運의 주재자로 그의 造化가 내려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같은 것이 민중속에 스며들어 土俗의 信仰思想으로 形成되었다. 그는 여기서 계발되어 한울님의 萬能한 造化力을 빌어 宗教目的을 이루려는데서 侍天主思想을 構成하여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동학의 구체사상내용을 보면 그것은 민중속에 널리 알려졌던 (儒佛道)의 個別思想을 토대로 이루었다. 물론 그는 (儒佛道)에 대하여 過時的임을 지적하면서 그의 治者學的 機能을 否定한다. 그러나 그것은 (儒佛道)의 個別的 思想마저 否定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말한 (該道는 元非儒 非佛 非仙(道) 而儒佛仙三者爲合一)이라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동학사상은 土俗의 信仰思想을 (體)로 하고 (儒佛道)의 個別的 思想을 (用)으로 하여 構成되었다. 이와같이 동학은 現實的 社會思想을 토대로 하였으며 또한 이로서 形成되었기에 사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민중하고 결합하게 되었다. 이것이 또한 동학사상이 사회성과 민중성적 사상을 포괄할 수 있었던 思想的 基礎인 것이다.

3. 東學思想에 內在되었던 革命性的 思想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동학사상은 宗教性的 呪術思想과 現實性的 革命思想을 포괄하고 있다. 이것들은 서로 依存하고 추동하면서 竝進하기에 그의 實現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동학이 創建된후 갖은 逆境을 물리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동학사상의 教政쌍방면의 役割을 充分히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呪術의 思想의 基本內容으로 되는 것은 (天主呪文)에 記載된 侍天主인데 거기에는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고 規定되었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侍)는 (內有神靈하고 外有氣化하여 一世之人이 各知不移者也)인데 그뜻으로 보아 이것은 한울님의 존재를 肉身的으로 體驗하여 한울님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울님을 모시면 必然 造化를 이루게 되며 만사를 모두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니 이 사상은 常賤民 혹은 兩班士大夫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모두 한울님앞에서는 다같은 人間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侍天主思想은 呪術의이면서도 人間의 人格의 平等思想을 啓示하는 것이다.

現實性的 革命思想은 주로 現實社會에 제기되었던 問題점을 풀어나가려는 趣向性的 思想을 말하는 것인데 이같은 사상은 自初부터 近代指向性的 社會革新性和 民主하고 結合할 수 있는 經世性을 帶有하고 있기에 前者보다 社會進歩性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보면 첫째로 輔國安民思想이다. 이것은 그가 (西勢東漸)的 威脅에 대처하려 제기한 사상이다. 그로보면 조선과 중국은 (唇亡齒寒)的 關係인데 中國의 (天下紛亂)은 조선을 (亦不無唇亡之嘆)을 느끼게 하였다. 게다가 西洋人은 (道成德立이 되어 그 造化에 이르러서는 안되는 일이 없고 무기로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니 西洋人을 쫓아야 하지 만약 (西洋戰勝攻取……則輔國安民計將安出)인가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시 日本도 朝鮮을 侵略하려 호시탐탐하고 있었으니 그는 壬辰倭亂뒤의 歷史事實을 回顧하면서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간에 소멸하리)라고 외쳤다. 이같은 것은 當時 民중의 心意에 完全이 符合되는 思想으로서 民중을 고무 추동하여 民族的 反侵略투쟁의 새로운 高潮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로부터 輔國安民은 進歩的인 社會思想임이 分明하다. 後日 甲午東學革命運動時 제기한 (除暴救民, 斥洋斥倭)도 이 사상이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렇다고 보면 이 사상은 또한 近世

民族的 反侵略 鬪爭의 先驅的作用을 일으킨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로, 전통사상과 外來思想에 대한 否定的 思想이다. 그는 儒學과 佛敎에 대하여 (儒道 佛道累千年에 運이 역시 다했던가)라고 지적하였다. 그 뜻인즉 유학과 불교는 過時的이어서 다시는 治者之學의 機能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堯舜의 치법도 부족시요 공맹의 지덕도 모자람이다)고 그를 否定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바로 조선에 전하여지고 있는 西學天主教에 대하여도 否定的이었다. 그것은 우선 천주교는 그 道가 (虛無에 가까우며 學은 天主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또한 天主教는 전도의 탈을 쓰고 침략의 선구적 役割을 하기때문이며 나가서는 天主教徒들이 祖上을 崇拜하지 않고 父母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倫理道德을 無視하기 때문이다. 否定뒤에는 肯定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긍정하였을까? 그것이 바로 동학인 것이다. 동학의 창도는 곧 民族主體思想樹立의 첫 상식인 것이다. 이러하니 전통사상과 外來思想에 대한 否定은 社會意識形態上에서의 한차례 革新으로 되는 것이니 이것이 進步의 社會思想임은 더 疑心할 바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後天개벽사상이다. 崔濟愚는 東學의 創道를 새로운 時代的 發端이라 인정하고 歷史를 크게 두개 단계로 나누어 그 以前을 (下元甲의 先天)이라 하고 그 以後를 (上元甲의 後天)이라 이르면서 先天에는 (一世之人이 各自爲心하여 天理에 順應하지않고 天命을 돌보지 않았기에) 社會는 幣端뿐이었다. 그러나 (天運이 순환함에따라) 先天의 낡은 文化는 무너지고 (上元甲의 後天)이 到來되어 後天開闢을 하니 社會는 마치 (苦盡甘來)되어 (山河大運이 모두 其道에 쏠리게 되어)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게 되니 사욕과 偏見, 낡은 악습은 사라지고 인간은 (地上神仙)이 되어 (地上天國)을 이루게 된다. 이때에야 비로소 광제창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地上天國은 현실적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세속에서 헤탈된 새로운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이렇지만 그 사상속에는 既存社

會에 대한 否定과 未來에 대한 憧憬이 體現되어 있기에 後天개벽은 社會變革을 意味하게 되니 당시 社會에 대하여 一定한 進步的인 役割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로, 人格의 平等을 고취하는 사상이다. 崔濟愚는 人間은 本來 人格上 無差別的이라고 인정하면서 人格의 平等을 고취하였다. 그는 (천심이 곧 민심이니 무슨 선악의 分別이 있으며 귀천의 차별이 있겠는가)고 지적하였다. 이 뜻인즉 무릇 인간은 모두 한울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어서 천심이 곧 인심으로 되니 사람지간에 무슨 선악의 分別이 있으며 귀천의 차별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니 이것은 人間의 人格的 平等思想을 公公연이 고취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또한 이같은 사상을 實생활에 體現시켰던 것이다. 바로 동학의 도통을 전수할때에 그는 빈부와 귀천의 차별을 마다하고 사람됨을 우선으로 보면서 머슴살이꾼이었던 崔時亨에게 동학도통을 전수하였다. 다른 한가지로는 들째머느리를 삼을때 일이다. 그는 자기집 머슴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낮은 습관을 타파하고 내집 머느리로 맞았던 것이다. 이로보아 그는 人間의 人格的 平等을 宣揚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思想을 實踐化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思想의 存在는 必然 사람지간의 上下主從관계 或은 支配의 服從關係를 否定하게 되는 것이다. 當時 身分等級制度가 李朝封建社會의 階級的 基礎로 되어 鐵則鐵案으로 인정받고 있을 때에 上述한 思想의 제기는 李朝封建社會에 대한 全的인 挑戰으로 되어 兩班貴族들을 호되게 타격하였으며 민중의 貴賤差別을 反對하는 思想을 고무 추동하였다. 이 사상의 영향하에 광대한 민중은 낮은 사상적 속박에서 벗어나 과감히 社會투쟁의 活舞台에로 進出하였다. 이로하여 동학엔 (參加하는 자 모두 상천민이며) (상천민이 동학의 동량으로 되었다)고까지 이를 지경이었다. 이로보아 이 사상은 당시 민중의 心意에 完全이 符合되어 民族的 反封建鬪爭을 크게 促進한 일층 進步的인 社會思想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廣濟蒼生思想이다. 이른바 광제창생이란 말그대로 고난속에서

허덕이는 만백성을 널리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가 동학창건시에 제기한 (세상의 우매한 인생을 구제한다)는 말과 一脈을 構成하는 사상으로 동학이 실현하려는 현실적 目的으로 되는 것이다. 이 두말은 모두 大多數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이다. 이로 하여 性格上 個人救靈을 目的으로 하는 종교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民衆性的 宗教로 되며 또한 大多數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는 언제나 社會문제의 해결에 착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社會的투쟁을 회피하면서 燒動된 民心이나 무마하려는 宗教群과도 다른 經世型的인 宗教로 되는 것이다. 當時 민중運動이 거듭되는 失敗로 하여 어떤 민중들은 사회적 해방에 실망되어 再투쟁을 포기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민중들은 어찌할 바가 없어 죽음앞에 굴하고 있을 때에 광제창생의 제기는 하나의 우렁찬 민중해방의 종소리가 되어 마치 오랜 가뭄뒤의 단비마냥 민중의 가슴속에 잔잔이 숨어들어 재생의 희망과 열의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이로하여 민중들은 마음속의 상처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대다수 민중의 구원을 위하여 동학으로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이로보아 廣濟蒼生은 민중의 해방투쟁 熱意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進歩的인 社會思想인 것이다.

그밖에도 동학사상에는 社會性和 民衆性 그리고 革命性을 띤 社會思想이 적지않게 存在하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사상이 東學民衆性的 宗教運動의 思想的 基礎가 되어 民衆을 啓蒙하고 組織動員하여 社會鬭爭에로 進出시켰으며 나중엔 敎祖伸冤運動을 展開하여 集團活動에서의 政治的力量을 成長시켰으며, 또한 地域的 農民運動을 東學周圍에 뭉치게 하여 드디어 1894年 東學革命運動을 發動하여 貪官汚吏를 숙청하고 外세침략세력을 배격하여 近世 朝鮮民族의 反封建, 反侵略鬭爭의 序幕을 올리게 되었다.

東學이 걸어온 偉大한 業跡은 靑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 ▣

東學革命에 있어서 東學의 役割

朴 孟 洙

(靈山圓佛敎大學)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1860년 水雲 崔濟愚(1824~1864)에 의해 창도된 東學 思想 및 敎團 組職, 1892·3년에 동학교단 지도부에 의해 전개된 大先生伸冤運動,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 일원의 동학 하층 지도자들과 일반 교도들이 주축이 되었던 古阜民亂 등과 긴밀한 연관 관계 아래 전개되었다.

1860년 수운에 의해 제시된 동학사상은 19세기 부패한 조선왕조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하나의 現實否定的 사상, 즉 낡은 체제를 부정하고 새 체제 건설을 지향하는 革世思想으로 기능했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동학사상은 특히 '待天主'를 근간으로 한 平等思想의 측면에서 당시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周知의 사실이다.

한편, 1880년대에 들어와 호서·호남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조직화되었던 동학 교세는 1890년대 초에 접어들어 大先生伸冤運動과 같은 집단시위운동을 통하여 동학 조직 속에 당시의 민중들을 광범위하게 결속 시킴으로써, 1894년 봉기과정에서 각 지역단위 동학 농민들의 조직적인 봉기를 주도하는 탄탄한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 지역별로 농민들을 이끌고 起包한 농민군 지도자 대다수는 동학 교단의 接主 출신들이었으며, 각 지역의 민중들을 동학의 包와 接과 같은 단위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특히 1892·3년에 걸쳐 동학교단 지도부의 主導에 의해 '敎祖 수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과 敎徒들에 대한 가림주구의 금지'를 기본적인 요구조항으로 하여 즐기차게 전개된 대선생신원운동은 결국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동학농민혁명 지도부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 前단계 투쟁으로서 당시 민중들의 反封建·反侵略 의지를 일정하게 고양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갑오년에 농민군이 봉기하여 치열한 항쟁을 했던 지역 대부분은 동학이 널리 포교된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의 발상지인 嶺南지방이나, 70년대 동학 포교지역인 嶺西지방이 아니라, 영남·영서지방에 비해 비교적 후대인 80년대부터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되기 시작했던 湖西·湖南지방이 그 진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全瑋準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세력들이 60년대 이래 오래도록 교단을 이끌어왔던 동학 교단지도자들이 아니라 80년대말 또는 90년대초에 부상한 하층 지도자 출신이라는 면에서 1894년 동학혁명에 있어 동학의 역할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글의 전개는 먼저 동학사상의 본질을 재검토하여 그것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 끼친 역할을 살피기로 하겠다. 물론 동학사상이 지닌 진보적 측면과 동시에 역사적 제한성도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동학 포교의 시대별 추이와 함께 그에 따른 동학 교단 조직의 조직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또 각 지방의 동학조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1894년 농민봉기의 조직으로 轉化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1892·3년에 전개된 동학 교단이 주체가 된 일련의 대선생신원운동 전개과정 검토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대선생신원운동이야말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前단계 투쟁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2. 東學思想의 本質과 東學農民革命에서의 役割

1) 동학사상의 본질

1860년 4월 5일 무극대도를 깨달은 수운에 의해 확립된 동학사상의 특징으로는 대체로 '다시 開闢'과 '無爲而化'로 대변되는 現實否定사상, '待天主'와 '修心正氣'에서 발견되는 平等사상, '靈符'와 '呪文'수행에서 드러나는 治病사상, '有無相資'에서 보이는 共同體사상, 斥倭洋에 나타나는 民族主體사상, 정감록적 요소 수용에서 확인되는 避亂사상 및 豫言사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다시 개혁'과 '無爲而化'에 나타난 現實否定思想
- ② '待天主'와 '修心正氣'에 나타난 平等思想
- ③ '斥倭洋'의 民族主體思想
- ④ 治病思想과 有無相資思想
- ⑤ 鄭鑑錄的 避亂思想과 豫言思想

2) 동학농민혁명에서의 역할

1860년대 성립된 동학사상은 수운의 제자 해월에 의해 매우 실천적으로 확대 발전된다. 해월에 의해 발전된 동학사상의 특징은 한 마디로 '天地萬物 莫非待天主'라는 汎天論的 사상이다. 사람만이 '한울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두가 바로 '한울님'이라는 사상이다. 어린이도 한울님이요, 며느리도 한울님이요, 날아가는 새도 한울님이요, 들에 핀 한송이 꽃도 한울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발전된 동학사상은 신분제에 의해 억압받고 있던 모든 계층들 즉, 양반중의 庶孽들과 中人·平民·賤民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신분해방사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해월은 일생동안 그 자

신 머슴출신이라는 신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事人如天을 유일한 화제로 삼아 사람과 사람사이의 富貴貧賤과 老少男女와 嫡庶奴主의 別을 가리지 말라고 역설하였다. 1860년대 후반 경상도 寧海 盈德 일대의 새로운 신분 상승세력 이른바 新鄕들이 대거 동학에 가담하였다가 舊鄕들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1871년 3월 이필제와 함께 兵亂을 주도하였던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1891년 해월이 백정 출신으로 알려진 南啓天을 湖南 左右道 便義長이라는 중책에 임명하였을 때 호남지방 16포 교도대표들이 불복하자 그 대표자격인 金洛三을 불러 준절히 꾸짖으며 '비록 출신이 낮고 미미할 지라도 두령의 자격이 있으면 그 지휘를 따라 도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옳다'라고 역설한 사실 등은 동학의 평등사상이 수운에 의해 제시된 이래 즐기치게 기능을 하며 계승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평등사상은 1880년대 초반 義菴 孫秉熙 선생의 동학입교동기와 1890년대 초반 白凡 金九 선생의 동학입교동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조 재세시부터 면면히 실천되어온 동학의 평등사상은 갑오년 당시에도 즐기치게 실천되고 있었다. 경상도땅에서도, 충청도땅에서도, 전라도땅에서도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은 그 날로 모두 '接長'의 대우를 받았으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맞절을 하였다. 즉 1860년대 이후 동학이 당시 민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주된 요인중의 하나는 바로 시천주사상을 근간으로 한 동학의 평등사상이었던 것이다.

평등사상을 강조하며 민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던 동학은 1864년 교조의 순교와 1871년 '영해신원운동'으로 인하여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를 해월 중심의 지도체제 정비를 통해 극복해내고, 70년대 말에는 영서지방을 근거지로 삼아 조직과 체제를 정비한 다음, 1880년대 들어와 호서 호남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동학 교단을 둘러싼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었으며, 동학지도부는 유리해지는 외부 정세를 교단 조직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만한 주체적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기였다.

즉 신사척사운동(1881),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등 지배층 내부의 開化와 守舊세력간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동학에 대한 지배층의 탄압이 느슨해지게 하였고, 급진적인 개화정책의 추진을 둘러싼 재야 유생들의 반발은 민중들에게 배외의식과 함께 위기의식을 불리와 척왜양을 강조하고 병화로부터의 피란을 강조하는 동학사상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동학은 호서 호남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바로 이 무렵, 80년대 후반 호서 호남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동학이 급속하게 전파되던 시기에 장차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할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등이 동학에 입교하게 된다. 이 중에서 전봉준이 언제 동학에 입도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동학농민혁명 지도부 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나 현존 사료에 의해 정확한 입교시기를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런데 전봉준이 이해하고 수용했던 동학사상은 해월에 의해 발전된 범천론적 동학사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정치사상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전봉준은 供草에서 “동학은 수심경천하는 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하였다”고 하면서도, 또 동학이란 어떠한 주의인가를 묻자 “守心하여 충효를 본을 삼아 輔國安民하자는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다. 또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주의에서 생각할 때에는 正心외에 ‘協同一致’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입교하였다고 함으로써 동학의 가르침을 보다 현실지향적 입장에서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전봉준의 동학사상 수용 태도는 이른바 해월 문하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같이 해왔던 장로급 지도자들의 동학사상 이해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봉준의 경우는 세 두락을 경영하는 빈농의 처지로서 생활감정이 당시 전연 일반 농민들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관의 부당

한 수탈에 의해 희생당하는 당시 전라도 고부 일대의 농민들의 현실은 전봉준 장군 자신의 처지와 그다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供草에 나타난 “일신의 해로 말미암아 기포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리요. 衆民이 억울해 하고 한탄하는 고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코자 한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전봉준의 의식이 당시 고통받던 민중들의 일반적 현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관념적 수준이긴 하지만 당시 조선왕조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현실부정사상으로 제시된 수운의 동학사상이 제자 해월의 汎天論的 동학사상에 의해 보다 실천적으로 해석되고 일반 민중들속에 널리 전파됨으로써, 80년대말 혹은 90년대 초에 이르면 조선말의 사회경제적 현실위에서 수운에 의해 제시되고 해월에 의해 실천적으로 전개된 동학사상을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확대발전시킨 전봉준과 같은 동학 하층 지도자들이 나타나 초기 동학사상을 질적으로 확대발전시킨 전봉준과 같은 동학 하층 지도자들이 나타나 초기 동학사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東學의 組織化와 東學農民革命에서의 役割

동학 조직은 시기별·지역별로 특이한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교조의 재세기인 1860년대 초반에는 경상도 慶州 중심으로 발전되다가, 동학이 불법화되고 교조가 처형된 이후인 60년대 후반부터는 경상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도체제가 정비되고 조직이 복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60년대 후반 경상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조직의 복원은 1871년 영해 이필제란에 동학이 깊히 개입됨으로써 다시 그 기반을 상실하고, 70년대 내내 강원도 嶺西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조직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1870년대에 이루어지는 조직복원은 강원도 출신 인물들이 주도하고 이갈

은 노력은 교단 조직의 정비, 경전의 집성, 새로운 의례의 창제 등으로 이어져 장차 본격적인 포교활동의 기반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1880년대 동학은 최시형을 필두로 하여 70년대에 양성된 중견지도자들이 호서 호남지방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1876년 개항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와 그로 인해 고조되고 있던 민중들의 위기意識, 그리고 개화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라는 시대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

호서·호남지방을 무대로 한 동학 포교는 80년대초에 개시되어 80년대 후반부터는 淸州, 報恩, 木川, 公州, 益山, 參禮, 全州, 扶安 등 호서·호남지방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널리 포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호서·호남의 동학은 90년대 초기에 이르면 비약적인 교세 증가를 이룬다. 한편 이 지역에서의 교세의 비약적 증가는 기존의 동학 교단조직과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서·호남지방 지배층들에게도 커다란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기감을 느낀 지방 수령들은 동학 금단조치를 강화하고 동학교도의 색출과 체포에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하여 조직화 되고 있던 동학과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하는 지방 수령들과의 충돌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교세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동학 조직내의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전반까지 嶺南·嶺西 지방이 근간이 되었던 교세의 지역적 기반이 湖西·湖南지방으로 바뀌고 이 지역의 교세가 영남 영서의 교세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며,

둘째 최시형을 정점으로 한 교단 지도부가 정비되는 가운데 신앙경력이 비교적 짧은 소장 지도자들이 부상하여 교도들을 직접 지도하게 되며,

셋째 동학의 교리 해석에 일정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즉 80년대 이전 영서의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던 동학의 사상적 기반에는 道·佛敎의 영향이 컸으나, 80년대초 호서·호남출신 인물들의 입교를 계기로 동학 교

리를 유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80년대초에 들어온 승려 출신 徐仁周의 역할이 90년대초에 들어와 퇴조하고 유교적 소양이 강한 孫天民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주목할만한 변화였다. 동학 교리의 유교적 해석은 동학을 배척하는 봉건왕조와 보수유생들에게 동학이 야말로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자학과 하등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자학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사상이라고 인식시킴으로써 90년대 초 대선생신원 운동 전개에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넷째 교도의 비약적 증가로 그간의 인적 결합조직인 接制가 지역적 결합조직의 성격이 강한 包制로 변화되었으며 包와 包, 接과 接간에 교세 확장을 위한 경쟁 현상이 일고 기존 동학 조직내의 분화 현상도 노정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동학지도부로 하여금 지도체제와 조직정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들었으나, 이같은 동학지도부의 조치는 여러 조건들에 의해 그다지 순조롭게 행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간의 분화 경쟁 현상은 이른바 갑오년 당시 '南北接 갈등문제' 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長老급 지도자를 淵源으로 하여 비교적 늦게 입도한 인물들이 90년대 초기에 소장 지도자로 성장하고, 이들을 淵源으로 한 聯臂들이 증가함으로써 교단 지도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접이나 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로급 지도자에 비해 신앙경력이 짧고, 특히 교단 지도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남의 소장지도자들은 聯臂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단 지도부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포나 접에 속해 있는 다수의 하급 접주나 연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삼례취회후 최시형을 法軒으로 추대하고 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단결하기로 결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학지도부의 분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90년대 초기 교세의 비약적 증가와 함께 대두된 동학 조직을 둘러싸고 일어난 현상들은 교단 지도부로 하여금 교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로운 포교방식을 채택하도록 강제하였다. 즉 봉건지배층과 지방 수령들의 탄압과 수탈을 피해 그간 수동적으로 전개해온 지하포교방식을 청산하고 포교의 공인 획득을 위한 '스승의 신원'과 동학도에 대한 '가림주구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1892·3년에 이른바 '大先生伸冤運動'이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4. 1892·3年の 大先生 伸冤運動과 東學農民革命에서의 役割

周知하듯이 호남 땅에 동학이 포교되는 계기는 1861년 11월경 교조 수운의 남원지방으로의 피신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교조 자신에 의한 호남 지방 동학 포교는 그 뒤로 별로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동학이 호남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은 해월을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체제가 정비되고 난 뒤인 188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런데 이 80년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급속한 개화정책을 둘러싸고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辛巳斥邪運動(1881), 壬午軍亂(1882), 甲申政變(1884) 등 나라 안이 온통 뒤흔들리는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가히 위기의식이 최고로 고조되는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으로 인하여 그간 강경했던 동학에 대한 금압정책이 느슨해졌으며, 민중들은 오히려 불안과 위기의식의 해소를 위해 동학과 같은 새로운 가르침에 다투어 귀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고무된 동학지도부는 70년대까지 주로 영서지방 북부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던 동학 교세의 기반을 평야지대인 호서 호남 특히 전라도 扶安, 益山을 중심으로 널리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동학지도부는 시대적 조건이 동학의 가르침을 널리 퍼기

에 매우 유리해진 상황과, 70년대말까지 지도체계의 정비, 교조 수운의 문집편찬, 경전의 집대성, 조직정비 및 의례의 제정 등을 달성한 자체내의 준비된 역량에 힘입어 호남지방을 무대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호남지방의 동학교세는 동학지도부 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신장되었다. 특히 1890~3년간에는 가히 폭발적으로 교세가 신장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동학 조직제도의 근간인 六任制가 80년대이후 호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이루어지는 교세 신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1884년 10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1891년 5월경에는 해월이 직접 호남지방의 扶安 泰仁 등을 순방하고 六任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급격히 신장되어 가던 동학교세는 동학지도부로 하여금 교세의 조직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인맥중심의 조직제도인 淵源制를 지역단위 조직의 성격이 강한 包制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각 지역의 동학조직을 통괄하는 便義長制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늘어나는 교세를 일사분란한 조직 체계하에 관리하려는 조치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호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교도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각 고을 守令 使胥 土豪들이 다투어 조정에서 금하는 동학 禁斷을 빙자하여 동학교도들의 錢財를 수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 동학교도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동학금단을 빙자한 수령 이서 토호배들의 수탈행위는 이미 교조 재세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전라도 지방에서 특히 가혹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전까지 동학지도부와 교도들은 동학도로 지목되어 체포되면 贖錢(일종의 석방금)을 바치고 풀려나가거나 체포를 피해 다른 고을로 피신해버리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곤 했지만, 90년대 들어 교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조직화되면서 수령 이서 토호배들의 탄압과 수탈행위가 날로 가혹해지자 종전의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강경한 맞대응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당한 방법으로 토색질을 하

는 해당 고을 수령을 향하여 직접 호소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한 시위운동을 통하여 “동학도에 대한 부당한 수탈행위를 중지할 것”과 “억울하게 처형된 스승 수운의 신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동학도들은 수령이나 감사의 부당한 행위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지면상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취회 당시 전라감사 李耕植에게 제출된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의 일부 내용을 통해 동학교도의 집단시위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목하기를 서학의 여파라 하여 열읍수령들이 빗질하듯 잡아가두고 매질로 전재를 토색하여 계속 쓰러져 죽어가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골 세력 있는 백성들도 소문에 따라 침해하고 업신여기며 집에서 내쫓고 재산도 약탈하여 때때로 산업을 탕패하고 고향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니(중략) 어찌하여 열읍 관리들이 동학을 재물로 보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하며 살길을 없게 하는가(目之以西學餘派 列邑守令 查櫛促囚 杖索錢財 致斃相續 鄉曲豪民 隨聞侵侮 毀家奪財 往往流離蕩敗 (中略) 奈之如何 列邑之官 視以貨泉 流離漂迫 生活無路)

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90년대 초반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도들의 의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세가 약하여 대응 방책이 없던 지난 시대의 나약함을 떨치고 당당하게 동학의 정당성과 수령들의 不當誅求를 금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동학도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지방의 동학 교도들의 움직임에는 종전의 동학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요체는 첫째 동학도들의 의식에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의식의 변화가 동학도에 집중되는 봉건 지배층과 지방수령들의 부당한 가렴주구에 대한 저항운동, 즉 집단적인 시위운동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바

로 이러한 요소들은 60년대 이래로 동학지도부를 이끌어왔던 장로급지도자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교단내의 새로운 양상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양상의 주무대가 바로 호서·호남지방이 되었으며, 호서·호남지방으로부터 비롯된 동학 교단내의 새로운 양상들은 그후 계속된 집단시위운동의 과정 속에서 급격한 질적 변화를 거쳐 보은취회 금구취회 등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바로 갑오년 전라도 땅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연결하기에 이른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이른바 대선생신원운동 단계에서의 1892년 11월의 삼례취회의 성격문제이다. 삼례취회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하기 전에 잠시 삼례취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살펴보겠다.

1892. 10.27 동학지도부 전라도 삼례에 都會所 설치하고 각 포의 접장들은 일제히 모일 것을 지시하는 敬通(동학 교단내의 일종의 공문) 발송

11. 1 각지로부터 온 동학접장 및 교도 천여명 삼례역에 집결
11. 2 동학교조의 신원과 동학도에 대한 수탈증지를 요구하는 「각도 동학유생 의송단자」를 전라감사에게 제출
11. 7 6일간이나 무소식인 전라감사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독촉 「議送狀」을 다시 제출
11. 9 '물리가서 새 사람되라' 는 내용없는 전라감사의 題晉이 내려오자 동학교도들 흥분, 별도의 집회가 金溝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함(이 시기 금구취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11.11 '동학금단을 빙자한 전제 수탈을 금하라' 는 전라감사의 甘結이 각 고을로 하달됨
- 11.12 동학지도부 교조의 신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과 각포 소속 교인들의 준칙사항을 담은 敬通을 발하고 해산

합

11.19 동학지도부 중앙에 올라가 伏閣할 구체적 계획 하달시까지 교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 담은 敬通을 각 포에 발함

11.21 전라감사 재차 '동학금단을 빙자한 토색을 금하라'는 감결전달

위의 삼례취회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학지도부 및 동학도들의 취회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음을 금방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학 지도부 스스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삼례취회에서는 적어도 교조의 신원을 통한 공인획득과 동학포교의 자유를 얻지는 못했어도 각 고을 수령들의 동학도에 대한 부당주구를 금지하라는 감영의 조치를 얻어냄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삼례취회의 결과에 성과에 대한 동학지도부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삼례취회의 의의를 평가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모인 것으로 사방에 좋은 평판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충청·전라 양 감영에서 또한 판문을 하달하였으니 이제부터 지목이 없을 것이다. (今番會事 非但聲聞四方 且有兩關飭 自無指目—11월 12일 동학지도부의 敬通)”

위의 내용에서 보듯 삼례취회에서의 일정한 성과(동학도들의 집단시위 운동에 의하여 전라감사로부터 부당주구금지 조치를 얻어낸 것)는 동학지도부와 동학도들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음은 물론 일반 민중들에게도 동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 즉 민중들 자신의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동학, 또는 수령 이서 토호로부터의 부당한 수탈을 막아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동학의 실체를 일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동학지도부는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가산을 탕진한 교도들과 민중들을 '유무상자'의

정신을 발휘하여 보살핌으로써 당시의 일반 민중들이 다투어 동학에 입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바로 이 삼례취회에서부터 동학조직이 당시의 일반 민중(농민)들과 굳게 결합하기 시작함으로써 광화문 복소, 보은취회, 금구취회 등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며, 이러한 일련의 대선생신원운동이 결국 전봉준을 위시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의 형성과 성장의 배경이 되게 하는 동시에, 삼례취회이후 부터 급속히 이루어지는 동학조직과 일반 농민과의 결합 현상은 갑오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 맺음말

東學革命의 本質과 社會改革

— 修道를 중심으로 —

임 운 길

(중학대학원 교수)

I. 서 론

東學革命은 布德 35(1894)년 조선조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혁명으로서 한마디로 反封建 反外勢의인 근대사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민족적 최대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의 개입으로 수십만의 희생을 내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위대한 정신은 면면히 흘러서 10년후의 갑진개화혁신운동을 일으켰고 다시 기미 3·1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 남북통일, 세계평화건설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

東學革命은 封建체제의 종식을 고하게 하고 近代史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東學革命은 우리 民族의 혈맥속에 약동하는 민족의 얼을 되살아 나게 하였고 民族自主精神을 일깨웠던 民族正氣의 분출이었다. 우리 민족역사에 있어서 東學革命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없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굴욕적인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東學革命은 아직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東學革命

의 本質과 社會改革의 기본방향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학혁명의 본질과 사회개혁의 기본방향은 東學思想과 東學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동학사상의 본질은 한마디로 人乃天이라 할 수 있고 開闢思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사상은 新人間創造를 위한 修道煉性과 社會改革을 위한 革命性 등 양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학을 볼때 근본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운동과 혁명성만을 論하는 경향이 있다.

천도교 경전에 不然其然의 事物觀察의 원리가 있다. 긍정과 부정, 무형과 유형, 지엽과 근본, 현상과 본체 등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事物은 근본적 관찰이 있어야 한다는 觀點에서 本主題를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동학혁명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므로써 동학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할 수 있고 보다 깊은 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反封建, 反侵略 民主化의 거대한 혁명의 햇불이었고 除暴救民 斥洋斥倭 輔國安民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학혁명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집권층의 東學탄압, 농민수탈에 따른 불평과 원한, 개혁의지 그리고 不義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의 노도와 같은 저항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위대하고 소중한 것은 동학혁명의 저변에는 동학군의 수도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나 깨나 한울님과 스승님의 感應을 기원하고 道成德立과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염원하는 동학교도들의 지극한 수도의 힘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修道와 東學革命의 密接한 관계를 알지 못하면 동학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며 東學革命의 本質과 사회개혁의 기본방향을 바르게 보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동학혁명을 난이니 전쟁이니 하는 것도 修道를 모르는 외피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동학혁명 지도자들은 修道煉性으로 다져진 비범한 인격과 道力を 발휘하

여 민중을 혁명의 대열에 동원할 수 있었고 굳은 결속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동학군에 수도가 없었다면 위대한 혁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민란이나 폭동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수십만 민중을 東學革命의 대열에 묶어 세울 수 있었고 위대한 혁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侍天主신앙과 인간의 존엄성과 만인평등을 일깨워 주는 人乃天 진리와 새로운 세계의 희망을 보여주는 開闢思想과 특히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 修道의 힘이었던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Ⅱ. 東學教徒들의 修煉

동학은 본래 新人間創造를 위한 修道와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계창생을 목적으로 하는 새 宗教이다. 우리는 天道敎 스승님들의 행적과 선열들의 활동에서 東學군의 수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수운대신사의 득도과정과 포덕교화의 과정을 보면 수도생활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주유천하에서 도를 깨닫지 못한 대신사는 울산 여시바윗골에서 침사명상 기도를 계속하시다가 을묘년에 천서를 받는 영험을 얻으셨고 그 이듬해 양산통도사 내원암에서 49일 기도중 47일만에 고향 숙부의 환원을 영안으로 직관하시고 하산하였다가 다시 다음해 적멸굴에 들어가 49일 기도를 봉행 하시었으며 솔처자하여 용담옛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불출산외를 맹세하고 더욱 지극한 기도와 명상을 계속하시다가 드디어 경신 4월5일에 만고없는 무극대도를 받으신 것이다. 득도후 1년을 더 닦고 다듬은후 풍운같이 모여드는 도유들에게 告天(心告), 呪文, 守心正氣, 誠敬信 등 수도법을 가르쳐 널리 수도의 기풍이 확산된 것이다.

해월신사는 입도후 엄동설한에 목욕하고 불철송주하는 등 득공수련을 계

속하셨으며 관헌의 탄압으로 숨어다니는 몸이지만 가시는 곳마다 기도를 봉행하시었다. 때로는 1년에 무려 네차례나 49일 기도를 하셨으며 영월 직곡리에서, 태백산 적조암에서, 공주 가섭사에서 그밖에 여러곳에서 49일 기도를 봉행하시며 대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동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과 저력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다.

갑오년 10월 16일 해월신사로부터 東學革命軍 統領旗를 받고 전봉준과 합세하여 동학혁명을 영도했던 義菴聖師(손병희선생)께서는 입도후 3년간 매일 주문 3만독을 외웠고 때로는 21일 기도예 주문 100만독을 목표로 정진하신 일도 있다. 그후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와 수련을 하셨으며 특히 포덕 53년부터 3년간 우이동 봉황각에서 7차에 걸쳐 교역자 수련 483명을 실시하여 300만 교단을 확보하고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3·1운동 때에도 년초에 전국교인이 49일 기도를 봉행한 바 있다.

東學革命때 德義大接主로 크게 활약하신 春菴上師(朴寅浩 선생) 역시 입도후 무려 10년간이나 어육주초를 끊고 독공수련을 계속하셨으며 낮자루를 베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주문공부를 계속하시는 등 끊임없는 수련을 하시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중진교역자와 독신교인들도 모두 한결같이 스승님의 교훈 그대로 수도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다.

東學군들은 행진할 때에도 心告를 하고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 그리고 동학혁명당시 세상에 널리 유포된 풍설을 보더라도 수도의 힘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東學군은 달아나고 싶으면 달아날 「走」자를 써서 손에 쥐고 날고 싶으면 날 「飛」자를 써서 손에 쥐다. 맑은 날에도 구름 「雲」자를 써서 날리면 비가 온다. 「지팡이를 가지고 칼로 쓰면 칼이 되고 창으로 쓰면 창이 되고 타면 말이 된다.』

『降靈呪文 여덟자만 외우면 天神이 내려와서 몸을 둘러싸고 本呪文 열석자만 외우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 「무슨 일에 심고만 드리면 안되는 일

없이 마음먹는대로 된다」

이 풍설만 보더라도 東學군이 얼마나 修道에 힘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쫓겨가는 동학군들은 도망을 가면서도 주문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를 외웠다는 그 지방 노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동학군은 관군의 대포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풍설도 있었다.

동학혁명에 앞장섰던 전봉준장군은 105염주를 목에 걸고 궁을견장을 달고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몸에 범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다 한다. 풍설이었지만 이러한 말들을 분석해 보면 동학군들은 수도로써 정신을 굳게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東學革命군의 위대한 혁명정신은 修道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修道에 대한 연구없이 東學革命의 本質과 사회개혁의 기본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Ⅲ. 東學의 修道節次

東學의 초창기인 대신사 해월신사 시대의 수행절차를 水雲行錄, 道源記書, 天道教書, 紀念史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운행록(포덕 6년, 世祚와 朴夏善共著)

도원기서(포덕 20년, 姜士元(洙, 時元) 記述)

- ① 21字呪文(21자주문을 항상 외운다)
- ② 食告, 出必告, 入必告(식사할 때, 어디 갈때, 갔다와서 반드시 심고를 한다)
- ③ 不爲用藥(약을 쓰지 않는다)
- ④ 修心正氣(도원기서에는 守心正氣)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 ⑤ 去惡爲善(악을 제거하고 선을 위한다)
- ⑥ 物慾自去(물욕을 스스로 제거한다)
- ⑦ 不貪他利(도원기서에는 不探他利)
(타인의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
- ⑧ 不取有夫之女(유부녀를 취하지 않는다.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 ⑨ 不言人之過(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 ⑩ 不食惡肉(악한 고기(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 ⑪ 以 誠敬信 三字爲主(정성·공경·믿음 석자로써 주를 삼는다)
(괄호안은 필자가 번역한 것임)

천도교서(포덕 61년, 천도교 교리강습회 교재로 발행)

- ① 道 - 天道
- ② 其綱 - 守心正氣와 誠敬信
- ③ 修道의 大節
清水를 卓上에 奠하여 端拱危坐(단공괴좌)하여 念天誦呪 함이요
- ④ 細節은 寢食必告, 出入必告
無惡, 無貪, 無淫으로 心箴을 삼으시다

※ 東學의 修誠

(紀念史譜(포덕 105년 발행, 李敦化 편술, 참조)

修誠에는 일정한 과목으로 오계 혹은 십계 등의 定則이 있는 것이 아니요 대신사의 法說 또는 임시 훈계로 제자들에게 들려준 바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褻履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 逆理者요 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 鄙陋者요 헛말로 誘引하면 이는 역시 惑世者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欺天者라」

「奸淫하지 말라」 「惡肉을 먹지 말라」 「뒤집지지 말라」 「일체 陽身에 所害되는 일을 하지 말라」

윤리적 방면에 있어 적극적으로 권면한 敎說로써 중요한 것을 들면

1. 忠孝를 主하라
 2. 사람을 神靈같이 대하라
 3. 夫婦和順하라
 4. 衣冠을 정제하라
 5. 음식을 공경히 먹으라
 6. 清潔을 重히 하라
 7. 매사에 誠敬信을 다하라
 8. 守口如瓶하라(언어敬慎)
- ⑥ 경전봉독(經典奉讀)

경전은 東經四編과 遺詞八編을 이름이니 『구구자자 살피내어 속독상미 하였어라』라고 하셨다.

※ 지금은 呪文, 淸水, 侍日, 誠米, 祈禱 등의 五款을 실행하고 있다.

IV. 東學의 社會改革의 方向

水雲大神師의 求道목적이 낱고 병든 세상을 개혁하여 새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데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東學의 創道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新人間創造와 새세상건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東學이 指向하는 사회개혁의 기본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東學의 總精神을 要約한 人乃天 思想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人乃天의 뜻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의 이치 기운으로 태어났고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뜻
2. 따라서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고 양반 상민 등의 차별을 없이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만인평등을 강조하는 사상

3. 인간사회는 한울님의 뜻인 자유 평등 평화를 실현해야 하며
4. 사람은 天人合一의 人格完成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생활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은 물질의 노예도 아니요 神의 노예도 아닌 神人一體의 自主정신을 확립해야 하며
5. 이 땅위에 한울나라를 건설하자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그리고 個個人的 행복과 國家社會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理想世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東學은 精神開闢, 民族開闢, 社會開闢의 三大개혁을 통하여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 地上天國을 건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는 지금 몇가지 큰과제를 안고 몸부림치고 있다. 1.인간성 회복 문제 2.환경보전 문제 3. 질병을 없이하고 건강하게 사는 문제 4.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문제 5. 다같이 풍요롭게 사는 문제 6. 특히 우리민족은 자주정신 확립과 남북통일 문제를 하나 더 안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극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人乃天진리에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사상은 사회제도를 창출하게 마련이다. 唯物思想은 물질위주의 공산사회를 추구하다가 자체모순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唯心, 자본주의 사상은 너무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다가 그만 인간간의 갈등과 부정 부패를 막지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다.

東學은 인간의 존엄성을 밝히고 事人如天 敬天順天 同歸一體 自由平等平和의 새세계 건설을 추구하는 人乃天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反封建, 反侵略, 民主化의 햇볕을 들지 않을 수 없고 不合理, 不自由, 不平等한 사회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개혁적인 사회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東學革命의 폐정개혁안도 이런 정신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동학군의 12개조 폐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혹의단발과 신문화운동을 전개한 갑진개화혁신운동도 기미 3·1독립운동도 人乃天정신에서 나왔고 과거 天道教 靑友黨의 三大강령도 이 정신에서 나와진 것이라고 보며 여기에서도 東學 - 天道教에서 추구하는 사회개혁의 方向을 알 수 있다.

※ 靑友黨 綱領

1. 民族自主의 理想的 民主國家의 建設
2. 事人如天의 精神에 맞는 새 倫理의 樹立
3. 同歸一體의 新生活理念에 基한 새 經濟制度의 實現

그리고 東學은 布德 46년(1905) 12월 1일을 기해 天道教로 大告天下 하므로써 범인류, 범세계적 종교로 발전하면서 인류를 교화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地上에 天國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東學이 志向하는 社會改革의 基本方向을 우선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誠敬信을 추구하는 새 도덕사회 실현

정성과 공경과 믿음의 실천도덕을 추구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事人如天의 새 윤리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부귀빈천, 압박과 착취, 침략과 약탈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미로에서 방황하거나 비인간적 부도덕 타락현상이 없는 사람마다 진리를 연구하고 과학 기술을 연마하면서 서로서로를 믿고 공경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계 일가의 이상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誠敬信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본다.

2. 自由, 平等, 平和의 실현

한울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마땅히 자유, 평등, 평화가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선천 5만년 동안 부자유, 불합리, 불평등을 당연시 하고 살아 왔다. 東學은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3.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건전사회실현

인류의 재앙을 크게 나누어 전쟁(개인간의 싸움, 집단간의 싸움 포함)과 질병과 가난으로 볼 수 있다. 인류를 人乃天진리로 교화하면 이 세가지 큰 재앙이 없는 물심양면으로 풍요를 다같이 누리는 새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4. 사람마다 天人合一, 同歸一體를 추구하는 사회건설

사람은 天人合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同歸一體를 추구해야 세계일가의 새 세상이 될것이다.

5. 民族自主의 理想的 民主國家건설

세계 일가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면 민족단위로 세계질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여러민족이 복합된 나라를 구성하면 약소민족은 강대민족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다. 민족단위로 자주적, 민주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文化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6. 個全一體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실현

지금 인류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모순대립을 해결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다. 東學은 개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국가사회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인류의 숙제를 풀어줄 열쇠가 바로 東學에 있다고 믿는다 東學은 同歸一體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東學은 儒佛仙合一의 無極大道로서 모든 종교사상의 本源을 把持하여 능히 화합하고 統一하고 하나로 歸一시키는 反對一致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人乃天진리는 나와 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민족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만고없는 무극대도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V. 結 論

이상에서 東學革命의 本質과 社會改革의 방향을 照明해 보았다.

東學思想의 本質은 물론 人乃天진리와 開闢思想에 있고 개혁사상은 新人間창조의 修道煉性과 社會改造의 革命性이 있음을 알아 보았다. 위대한 東學革命精神의 뿌리가 守心正氣, 誠敬信, 以身換性을 要諦로 하는 修道煉性에 있고 개혁에 있음을 생각함으로써 東學革命의 本質을 把指하리라 생각한다.

모든 事物은 外形의 皮相의 觀察에 그칠 것이 아니라 根本的 관찰이 있

어야 한다. 東學革命을 亂이나 戰爭으로 보는 것은 근본을 살피지 못하고 外形만 보는 觀點에서 나온 견해라고 생각한다. 東學革命의 정신적 뿌리가 人乃天 眞理具顯에 있고 人乃天진리를 社會的으로 실현하려면 不合理, 不自由, 不平等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自由, 平等, 平和를 추구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東學革命은 封建王權制度의 復古가 목적이 아니었다. 동학혁명은 우선 近代的 民主國家건설을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강령에 澄清聖道라 했고 전봉준 供草에 「나라의 정치를 개인에 맡기지 않고 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려 했다」는 내용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東學革命은 조국근대화의 호시였고 독립운동의 횃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민족과 인류의 정신을 쇄신하는 원동력이 될것이다.

海月神師(崔時亨 先生) 법설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갑오 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사람을 원망하고 한울을 원망하나 이후부터는 한울이 귀화하는 것을 보이어 원성이 없어지고 도리어 찬성하리라.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 일이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인민의 정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니라.」■

제2주제: 동학혁명의 민족사적 의미

(제2일) 1993년 10월 28일(목)

〈사회〉 신 일 철(고려대)

발표1: 10:20~10:50

한국민족주의와 동학혁명/김창수

발표2: 10:50~11:20

동학혁명과 민족구국운동/이현희

발표3: 11:20~11:50

동학혁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조항래

발표4: 13:00~13:30

동학사상의 평화관/노태구

발표5: 13:30~14:00

교조신원운동과 동학혁명의 발단/신영우

발표6: 14:00~14:30

동학혁명과 청·일관계/中塚明

토론: 15:00~16:00

고성훈(국사편찬위원회) 김정희(한양여전) 유준기(충신대)

배영기(숭의여전) 조성윤(제주대) 김승일(동국대)

종합토론: 16:30~18:00

발표자, 토론자, 일반참석자

韓國民族主義와 東學革命

金 昌 洙

(東國大교수, 韓國近代史)

一. 머 리 말

19世紀 후반기부터 비롯되는 韓國近代史의 흐름은 自主獨立을 위한 抵抗과 近代化를 위한 變革이라는 구조와 논리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1876년의 개항에 따른 외세의 충격은 反侵略的 抵抗主體와 反封建的 變革主體의 歷史的展開라는 논리구조를 처음부터 민족적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19世紀 후반기의 충격과 위기, 그리고 변혁의 역사적 조건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근대사의 큰 흐름은 결국 한국 민족주의에 결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近代의 소산인 민족주의는¹⁾ 東學의 형성과 革命으로의 전개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한국민족주의가

1) John H. Kautsky,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Wiley & Sons, 1963.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1961.

Michael Edson Robin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Nationalism and the Korean Tradition, 1896~1920: Iconoclasm, Reform, and National Identity" *Korean Studies*. Vol 10(1987)

李用熙, 『韓國民族主義』, 瑞文堂, 1977. 宋建鎔·姜萬吉, 『韓國民族主義論』, 創作과 批評社, 1982. 姜萬吉, 『韓國民族運動史論』, 한길사, 1985. 李庭植, 『韓國民族主義의 運動史』, 한밭출판사, 1982. 姜在彥·飯沼二郎, 『近代朝鮮의 社會と思想』, 未來社, 1981. 朴宗根, 『朝鮮近代에 於ける 民族運動의 展開』 『歷史學研究』 452, 1978.

비로소 성장되었다고 생각된다.²⁾ 그러므로 한국민족주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한국근대사의 격동기에 전개된 반봉건적 사회경제관계와 반침략적 자주독립의 문제와는 內在的, 外面的 시각에서의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 필자는 한국 민족주의의 문제를 東學思想 및 東學革命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는 것이다.

2. 近代思潮와 民族主義의 문제

한국 근대에서의 민족주의 형성의 정치사상적 기초가 된 것은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 衛正斥邪思想, 開化思想, 東學思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의 사상적 흐름이 한국 근대의 민족주의 운동의 중요한 정치사상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때까지의 하계에서 일반적 견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세 흐름의 정치 사상의 다른 사조로서 필자는 中道的 改革思想(온건개화, 중도개량주의 사상)을 보태고 싶다.³⁾ 그리고 이러한 思潮에 있어서도 어느것에 보다 더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평가는 논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또한 위의 여러 思潮를 변혁주체, 저항주체로 주목하고 그 성격과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종래 몇가지의 연구가 이

2) 馬淵貞利, "近代朝鮮における變革主體·抵抗主體の形成と展開", 『歴史學研究』 별책, 1975. 金昌洙 『韓國近代의 民族意識研究』, 同和出版社, 1987.

一, "民族意識·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 『韓國史研究入門』, 知鐵産業社, 1987. pp. 506~512

3) 필자의 위의 책 및 논문. 美國 學界에서의 韓國近代史의 권위 로빈슨 박사는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萌芽로서 開化派와 東學을 들고 있다. Michael Edson Robinson, Ibid Chap. 1. "近代朝鮮의 民族主義"

4) 姜在彥, 『近代朝鮮의 變革思想』, 日本評論社, 1973. 馬淵貞利, "近代朝鮮に於ける變革主體·抵抗主體の形成と展開" 『歴史學研究』, 1975, 別冊. 朴宗根, "朝鮮近代に於ける民族運動의 展開" 『歴史學研究』 452, 1978.

루어진 바 있으나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위정척사상은 보수적 在野儒林에 의하여 주도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支柱로 하면서 봉건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척사파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在鄕地主층으로서 鄕班이 그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들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전통적인 華夷論에 바탕을 둔 「倭洋一體論」을 펴면서 개항을 반대하였으며⁵⁾ 나아가 「內修外攘」이 일관된 그들의 논리였다. 위정척사파의 倭洋에 대한 대응논리는 개항이 후 물밀듯이 침투해온 외래 자본주의의 열강에 항거하고 외세의존적인 개화파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항일민족운동으로 연결되는 반침략적 성격을 지닌 민족의식과 민족적 주체의식으로 이해하려는 일부 견해도 있다.⁶⁾ 그러나 위정척사파의 외세에 대한 대응 내지 운동은 객관적으로는 반침략적 민족의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군주대권의 수호라는 봉건적 반동적 성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한 排外主義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점으로 위정척사사상 내지 운동은 뒤에 의병항쟁의 사상적 지주의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反封建性을 결여한 것으로 근대적 민족주의의 성격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開化思想 및 그 그룹은 양반 지배층 내부 및 중인층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유력한 양반출신자들이었다.⁷⁾ 따라서 그동안 개화사상과 개화파는 한국근대의 변혁주체로 주목하여 반봉건적 근대적 개혁과 자주독립의식을 성장시키는데 주요한 구실을 담당하였다

5) 李恒老, 『華西集』, 「日省錄」, 高宗 丙寅10月7日「李恒老 上疏」

6) 尹炳奭, 「帝國主義侵略에 대한 韓國의 抵抗 — 抗日獨立運動의 思潮를 中心으로 —」(《韓國近代社會와 帝國主義》, 三知院, 1985)

崔昌圭, 「朝鮮朝儒學과 韓民族의 主體性」(《斯文論叢》, 1, 1973)

洪淳利, 「衛正斥邪思想과 民族意識」(《嶺南史學》, 1975)

韓佑旻,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韓國史研究》, 1968)

7) 馬淵貞和, 앞의 논문 및 필자의 앞의 논문 「民族意識·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

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⁸⁾ 그리하여 개화파는 근대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처음 국내 상업의 보호를 근간으로 한 殖産興業에 따른 국내개혁을 주장하고⁹⁾ 1884년의 甲申政變과 1894년의 개화파 정권에 의하여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좌절되고 1905년 이후 지식인 중심의 민족운동인 애국계몽운동으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그러나 개화사상 및 개화파의 운동은 처음부터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주체에 의한 반봉건적 요구와 통합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민족주의의 성장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물론 뒤에 민권적 성격이 강한 부분은 외세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키면서 그 저항력 강화를 위해 애국계몽운동에 힘을 쏟게 되었다고 하지만¹⁰⁾ 한편 개화파의 주류는 反侵略的 저항주체의 측면에서는 역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일제의 침략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동조 내지 안주하는 일부 세력마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위의 두 사상적 경향 내지 흐름외에 주목되는 것이 앞서 지적한 중도적 개혁사상 및 그 운동이다. 이 사상 및 그룹은 전통을 바탕으로하는 내재적 측면과 근대문물의 수용이라는 외래적 측면의 和應을 통해 보수성과 개혁성을 공존시키는 논리의 양면성이 아울러 나타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개화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수파로, 보수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개화파로 그리고 농민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농민의 개혁요구에는 긍정적 입장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¹¹⁾ 이 사상경향에 대하여는 온건개화파를 주류로 한다는 것이 이때까지의 견해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사상 경향은 보수파에서도 나올 수 있고 개화파

8) 李光麟, 「開化黨研究」, 「開化思想研究」, 一潮閣

9) 「承政院日記」, 高宗 19年9月, 「甲申日錄」 12月 5日, 「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0) 馬淵貞利, 앞의 논문. 黃義敦, 「光武·隆熙 時代の 啓蒙運動」, 「純宗實記」, 1926.

11) 필자의 앞의 논문.

12) 金泳鎭, 「兪吉濬의 開化思想」(《創作과 批評》, 1968)

_____, 「韓末西洋技術의 受容」(《亞細亞研究》 11-3, 1968).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중도적 개혁주의자의 현실 대응자세는 전통적 통치질서에 있어서도 이를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고 봉건사회를 온존시키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근대화의 중요한 과제였던 富國強兵의 추진에 있어서도 외형적 결과로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¹³⁾ 이를테면 개항으로부터 대한제국시기까지 활동한 정치가인 荅菴 金炳始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래 그를 보수파의 정치가로 다룬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그의 活動歷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그에 대한 종래의 견해가 잘못된 견해였음이 드러난다.¹⁴⁾ 곧 그가 元老大臣으로서 1894년의 東學農民革命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직접 목격하고 이의 진압책에 관여하면서 東學農民軍을 개화파조차 「東匪」, 「匪徒」 등으로 매도하는 상황아래서 오직 그만이 東學農民軍을 「民」으로 파악함으로써 官軍과 外兵(淸軍)을 끌어들이(借入) 백성(民)을 탄압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東學農民軍의 弊政改革要求를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개혁정치를 실시하자는 주장과 함께 校正廳의 설치에 관여하면서 무엇보다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고 민족자주의식을 강조한 점 등의 경륜을 펴고 있는 점 등은 매우 주목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어떤 면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외세(일본)에 따른 타율적 개혁(甲午更張)을 사전에 배제하자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다만 중도적 개혁파의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 전통질서와 봉건체제의 타파가 아니라 그것을 온존하면서 개량주의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반봉건성에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13) 金昌洙, 〈荅菴 金炳始의 經世觀〉(《曹佐鎭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1977)

14) 위의 논문.

15) 金昌洙, 「東學農民革命과 外兵借入問題」, 〈東國史學〉, 15·16合輯, 198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정척사파는 외세의 침략을 봉건체제의 위기와 결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봉건적 변혁주체로서의 취약성을 들어내고 있으며 개화파는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 개혁요구와 통합되지 못하고 외세 의존적 성격 때문에 일제의 침략이 격화됨에 따라 그 일부 세력이 식민지적 재편성과정에서 순응되고 마는 취약점을 들어내게 되었다. 그리고 중도적 개혁파(온건개화파)는 봉건체제의 유지라는 반봉건성의 한계때문에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봉건체제의 위기와 결부된 위정척사파의 행동을 극복하지 못한 취약성을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반봉건적 변혁주체와 반침략적 저항주체를 통합한 의미의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를 한국근대사에서 찾는다면 역시 동학사상 및 동학혁명이 그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다.

3. 東學思想·東學革命과 民族主義

1876년의 개항으로부터 비롯된 외래 자본주의 열강의 침투는 1894년의 東學農民革命을 전후한 시기에 들어서면 종래의 牧歌的 農村經濟를 파탄의 위기에 몰아 넣게 하였다. 따라서 이미 조선후기부터 봉건적 수탈에 시달려온 농민들은 외세의 침투로 말미암은 농촌의 파탄이 가져온 위기라는 이중의 고통에 신음하게 되었다. 여기에 농민들은 대내적으로 봉건적 수탈과 함께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서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¹⁶⁾ 그 중에서도 東學이라는 새로운 宗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東學은 조선후기의 많은 신흥종교 가운데서도 유독히 기존의 종교윤리를 극복하여 민중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민족종교로서 곤경에 처한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줌으로써 농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¹⁷⁾

東學思想은 그 종교적 성격으로 보아 보수적 敎化의 종교로서 관념적이

16)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17) 金昌洙, 「東學運動과 民族意識의 成長」 「人文科學研究」 第1輯, 誠信女大, 1981.p.90

고 환상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¹⁸⁾ 東學에는 사회개혁의 원리, 정치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종교였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므로 東學은 처음부터 봉건사회의 지도이념인 유교윤리를 부정하고 西勢東漸 이후의 列強의 침투와 위기로부터의 輔國安民, 西學에 대한 반발과 후천개혁에 의한 현실부정적인 성격등은²⁰⁾ 革命的 實踐原理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東學思想에 보이는 현실부정적인 성격은 단순한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봉건사회의 질서에 대한 부정이며, 나아가 社會改革의 혁신성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학사상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성격은 단순한 종교포교운동에 그치지 않고 뒤에 일련의 동학운동, 곧 복합상소, 신원운동이라는 취회를 통한 조직적인 운동을 거치면서 점차 정치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東學思想에는 東經大全과 龍潭遺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침략적 저항사상과 반봉건적인 사회개혁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있어서서는 동학사상을 보수적으로 관념화하는 실천성에 대한 제약요인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²¹⁾ 이러한 지적은 대체로 옳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고 실천원리로 지양한 곳에 동학사상의 혁신성이 있는 것이다. 곧 보수성과 혁신성을 아울러 지닌 동학사상을 뒤에는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함으로써 농민들의 사회개혁요구와 결합하고 보국사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학의 관념적인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東學思想에 내포된 反封建, 反侵略의 성격은 특히 개항이후 외세의 침투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경제적 곤경은 이것이 민족적인 배외의식으로 나타

18) 韓佑勳, “東學의 性格과 東學教徒의 運動” 『한국사 17. 근대』 p.79

19) 필자의 “東學運動과 民族意識의 成長” p.91

20) 『東經大全』, 布德文.

21) 金榮作, “東學思想と農民蜂起” 『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 東京大出版會, 1975.

나고 다시 뒤에는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1894년 1월 10일(음) 전라도 고부지방의 민란에서 비롯된 동학농민혁명 이보다 앞서 일어난 東學運動 곧 1892년 11월 1일(음)의 參禮聚會 및 이듬해 2월 11일(음)의 서울 伏閣上疏, 그리고 같은해 3월 11일(음)의 報恩聚會와 또한 각 지방에서 일어난 民亂과의 결합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²²⁾ 따라서 이로부터 비롯되는 東學農民革命은 위정척사파가 봉건체제의 수호, 중도적 개혁파가 체제내의 개량, 개화파가 위로부터의 개혁과 외세의존적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사회 경제적 평등과 反外勢를 주장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東學思想 및 東學教門조직의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크게 두 견해가 있다.²³⁾ 먼저 東學의 민족적, 민중적, 개혁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여 이것이 동학교문의 운동을 통하여 정치운동화하고 나아가 1894년의 동학혁명의 지도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²⁴⁾ 이 견해는 동학사상, 동학운동, 동학혁명을 연속선상의 운동으로 파악하여 동학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필자도 이 견해에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자세한 검토는 다른 논문에서 다룬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할애한다.²⁵⁾

다음으로 위의 견해와는 반대로 동학과 1894년의 농민전쟁의 관계를 차단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의 東學의 역할을 매개체의 정도밖에는 인정하지 않고,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도 이의 지도자 전봉준의 새로운 지도원리에서 창출되었다는 것으로 동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22) 『東學亂記錄』下, 「全瑋準供草」初招問目. p.525.

鄭喬, 『大韓季年史』上, 卷2. 高宗31年甲午3月.

金昌洙, 『全瑋準과 東學農民革命』, 『韓國近代의 民族意識研究』, 同和出版社, 1987.

23)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金容燮의 “動向, 東學亂研究를 中心으로” (『歷史教育』3, 1958), 朴宗根의 “東學과 1894年(甲午)의 農民戰爭에 대하여” (『歷史學研究』269, 1962), 鄭昌烈의 “東學教門과 全瑋準의 관계” (『民族文化叢書』1, 『19世紀韓國傳統社會의 變貌와 民衆意識』, 高麗大, 1982), 그리고 필자의 “東學農民革命研究의 動向과 問題意識” (『新人間』, 1983년 3월호) 등이 있다.

이 견해는 이른바 甲午農民戰爭論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앵겔스의 “獨逸農民戰爭”에서 이론적 근거를 차용해 온 것으로 초기의 재일동포학자 및 북한 학자들이 대체로 이에 속하며 농민전쟁에서의 동학의 역할을 종교적 의피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동학과는 관계없는 조선후기부터 빈발되어 온 민란의 연속선상에서 봉기하였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이 견해는 오늘 날에 와서는 진부한 이론에 속하여 북한학자 및 재일좌파학자들까지도 동학의 역할을 부정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절충설인 매개체설이 나온 것인데 이 주장마저 史料的 뒷받침이 없는 공론에 가깝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어쨌든 東學思想에 보이는 개혁사상과 민족자주사상은 한국 근대의 민족주의의 형성 및 그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원류가 되고 있으며²⁵⁾, 이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의 단계에 와서는 반봉건 반침략의 변혁주체, 저항주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사상에 나타난 반봉건, 반침략의 사상을 계승하고 그 사상을 전봉준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때의 투쟁목표가 되었으며,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진전과 전개에 따라 그때 그 때에 발표된 강령, 창의문, 원정서, 폐정개혁안 등²⁶⁾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폐정개혁안은 전봉

24) 韓佑勳, “東學의 리더십”, 『白山學報』, 8, 1970. pp.500~503.

金昌洙, 『全球準과 東學農民革命』, 앞의 책.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 大成文化社, 1947(韓國日報社, 春秋文庫로 再刊, 1957.)

李丙燾, “東學亂의 歷史的意義”, 『思想界』 11월호, 1954.

金龍德, “東學思想研究”, 『中央大論文集』 9.

1964. 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研究』, 乙酉文化社, 1977.

崔東熙, 『東學의 思想과 運動』, 成均館大出版部, 1980.

25) 필자의 위의 논문.

26) 姜在彥, “封建體制解體期の 甲午農民戰爭”, 『朝鮮近代史研究』, 1970.

朴慶植, “開國と 甲午農民戰爭”, 『歷史學研究』(朝鮮史特集), 1953

梶村秀樹, “開國에 의한 社會變動과 甲午農民戰爭”, 『朝鮮近代史』(渡部學編), 1979.

橫川正夫, “全球準에 대한 一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1976.

鄭昌烈, “東學敎門과 全球準의 關係 — 敎祖伸冤運動을 古阜民란을 中心으로”, 『高麗大民族文化叢書』 1. 1982.

준 재판 판결문에 27개조, 대한 계년사의 13개조, 속음청사의 36개조를 비롯하여 吳知泳의 東學史에는 12개조로 정리되어 있다.³⁰⁾ 이와같이 항목수가 자료에 따라 다른 것은 동학농민의 개혁요구가 혁명의 진전에 따라 개혁요구 내용도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를 뒤에 오지영이 12개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 자료중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더러 있고, 또한 혁명적 요구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비혁명적 항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동학 농민들의 주장은 탐관오리의 숙청, 신분제의 철폐 등 反封建的의 요구와 일본의 침투를 배제하자는 反侵略的의 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封建的인 폐정의 시정과 개혁은 뒤에 단기간이나마 집강소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침략은 제 2차 동학농민봉기를 통해 대결한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의 近代史에서의 민족주의의 성립은 東學革命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물론 東學革命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개혁요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한국민족주의 특수성을 고려에 넣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위에서 지적한바 있거니와 한국근대사의 큰 흐름은 민족주의의 형성과정

27) 姜在彦, 「朝鮮の攘夷と開化」, 에필로그, 1977.

金容燮, "全球準供草의 分析—東學亂의 性格一斑—", 「史學研究」2, 1958.

金容燮, "東學亂研究를 中心으로", 「歷史教育」3, 1958.

馬淵貞利, "東學農民戰爭의 歷史的位置", 「朝鮮歷史論文集」下卷5, ("近代朝鮮과 日本" 旗田魏先生古稀記念會編), 1979.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성격", 「朝鮮史研究會論文集」19 (特集 "朝鮮의 社會와 思想"), 1982.

이 밖에도 北韓의 吳吉實·李羅英 등의 주장이 이에 속한다.

28) 필자의 앞의 책.

29) 韓佑劬, 「東學軍의 弊政改革案檢討」, 「歷史學報」23, 1964.

朴宗根, 「甲午農民戰爭に於ける「全州和約」と「弊政改革案」」, 「歷史評論」, 140.

30) 위의 논문.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의 민족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라는 外壓과 이에 대한 抵抗의 논리로만 이해할 때 너무 저항주의적인 현상론에만 치우쳐 한국근대사의 자율적, 내재적 발전의 측면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 근대의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하여는 개항후 격동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개된 반봉건적 사회경제관계와 반침략적 자주독립의 문제라는 두가지의 측면을 내재적, 외향적 시각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주체적인 한국 민족주의 또는 韓國近代史像이 들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변혁적 근대화와 저항적 자주독립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통합하여 민족주의에 결집시킨 근대의 민족운동을 東學農民革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근대사의 큰 분수령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學思想은 변혁과 저항의 논리를 내포한 근대민족사상이며 이 사상을 원류로 하여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의 단계에 와서는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두 과제를 통합한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한국민족주의의 성장과 東學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로부터 비롯되는 민족독립운동, 곧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있어서 東學은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一翼을 담당하였음은 누구나 부인 못할 것이다. ■

東學革命과 民族救國運動

— 3·1 革命으로 이어진 東學革命 —

李 炫 熙

(성신여대 교수·한국사)

1. 서 론

동학이 창도되던 1860년대, 일진회·진보회 등이 혼동된 동학에서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여 천도교로 개편 발전했던 1905년, 그리고 1919년 3·1 민주혁명을 일으키는데 주동적 임무를 담당하였던 시대적 배경속에서 동학—천도교는 민족종교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표출하였다. 이에 단순한 종교적인 신앙차원이 아닌 하나의 정치구국적인 민중구원과 외세배격·주체성 강조라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1894년 초에 일어난 동학혁명은 제1차로 반봉건운동과 제2차로 민중구국투쟁을 일으키게 되어 그것이 성장하여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최초의 민중항일 구국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발점을 형성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동학의 역사와 더불어 봉건적 압제나 외세의 침입과 위협등 험한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많은 민중이 좌절하고 있을때 의식의 혁명을 이룩한 동학 교도들은 앞장서서 그 압제를 타파하고 민중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발전해 왔다.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30여년간 우리 근대사회 변혁과 발전에 미친 큰 영향은 그 이후 동학혁명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혁명의 저항의식은 천도교인들이 주도

적으로 이끌어간 1919년 3·1 민주혁명으로 다시 구체화되어 항일구국의지로 표출된 것이다.

2. 동학혁명과 민중구국투쟁

① 민중구국투쟁

동학혁명은 두번에 걸쳐 폭발되었는데 첫번째는 1894년 2월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의 영도하에 폭발한 민중봉기였으며, 두번째는 그해 10월 일본의 침략에 대한 忠君愛國의 일념에서 義旅를 규합하고 일으킨 항일민중구국 투쟁이었다.

동학혁명군은 고종과 민씨정권의 요청으로 들어온 청일침략군이 조선 내정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이 위기에 처하자 구국의 일념으로 재차 폭발하게 된 것이다. 1차 봉기하였던 동학군이 전주성에서 和約하고 철수하자 조선정부는 양국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기는 커녕 조선의 내정개혁을 함께 할 것을 청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청이 이를 거절하자 그해 7월 청일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결국 침략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武俠團을 동원한 내란을 선동하여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동학군의 영수 전봉준의 배일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마침내 전주에서 교도를 모아 항일구국투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군대를 증파하고 동학혁명군을 섬멸할 작전을 세웠다.

오직 구국일념에서 출발한 동학혁명군은 공주까지 북상하였으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좌절하고 말았다. 후퇴하면서도 재봉기를 도모하였던 동학혁명군은 전봉준이 12월말경 체포되어 사형당함으로써 그들의 항일구국투쟁은 1895년 1월 이후 매듭짓게 되었다.

그러나 동학혁명군이 과감히 전개하였던 항일구국투쟁은 이후 국내외에

서 의욕적으로 봉기되는 각종 민중구국투쟁의 기원을 마련해 주어 독립사상이나 민족독립 구국운동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② 동학교도의 대외인식

1890년대 들어 우리 나라는 봉건적 모순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어 동학혁명 운동을 일으키고, 청일침략전쟁은 민족적 위기를 고조시키니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와 위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 계층이 동학이었다.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수운이 순도한 이후 공인을 받지 못하자 1892년 參禮집회에서 포교공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그들은 포교공인을 강력히 요구함과 함께 외래종교의 배척과 외국 상인의 축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미선교사의 출국과 기독교계 학교 재학생의 자진퇴학을 요구하는 등 배외관은 철저하였다.

이같은 배척적인 대외관은 보은대집회에서 강한 주체의식하에 언행으로 현저하게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斥倭洋倡義'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동시에 국토는 오랑캐의 소굴화가 되었으니 동학 신도는 우리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倭洋을 소탕, 파기하고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쫓기해야만 경쟁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총궐기를 제창하였다.

이와같이 동학교도의 대외관은 위정척사파의 민족 정통성의 보전이라는 고정관념과 우리 것을 굳게 지키자는 주체성과 배외의식으로 충만해 있어 1900년대에 들어서는 개화의식으로 발전하지만 철저한 배외사상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③ 청국의 조선정책

조선정부는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청국군대의 조선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나름대로 조선정부내에서 파병요청만 오면 이를 기회로 군대파견은 물론 내정에 관여하여 한국에서의 일본·러시아 세력 등을 제거하고 독점적인

우위권을 장악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청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따라서 청의 이홍장은 5월 1일 북양수사제독 정여창으로 하여금 2척의 함정을 인천으로 출동케 하고 육군 천5백명을 기선으로 발진하여 인천에 도착케 하였다. 동시에 주일 청국공사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친진조약에 따라 조선정부의 원병요청으로 청국이 조선에 파병함을 통고하였다.

이러한 청국의 조선파병은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나 원래부터 청국 정부의 조선 내정간섭의 단서를 잡으려는 끈질긴 정책적 차원에서 달성되었던 것이다.

④ 일본의 조선정책

이미 1890년대초 조선내에서의 동학교도의 종교운동이 반봉건 반침략적 구국 운동으로 확산되어 갈 형세를 알아차린 일본은 장차 조선내에서의 청국과 대결할 기회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다. 즉 동학교도의 척외결기를 이용하여 일본군대의 조선 출병의 구실과 함께 조선에 대한 소위 종주권 쟁투를 무력으로 제압할 계기로 삼을 생각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 청국군대의 조선파병 소식에 접한 일본은 혼성여단 규모의 병력을 출동시켜 조선내에서 청국과 대결할 정략을 짜놓았다. 이에 일본공사와 일본 상비함대 사령관은 군함 3척을 인솔하여 인천에 상륙, 서울로 육전대 3백여 명을 도착시킨다는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일본군의 입경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마침 동학혁명군에 함락되었던 전주가 관군에 의해 수복되었다는 보고가 오자 정부는 즉시 청일양국에게 군대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내정개혁을 제기함으로써 청과의 정면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결국 일본의 조선파병은 조선지배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침략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장악한 일본은 이어 1904년 대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함으로 조선을 침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청일침략전쟁은 조·청·일을 식민·반식민·제국주의로 전환케 한 최대의 충격적인 계기였다고 하겠다.

3. 을사조약과 동학군의 대응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과의 비밀협약을 통해 전후대책으로 한국에서의 정치·경제·군사상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받게 되어 한국은 일본의 침략적 위협앞에 정치 외교권을 탈취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것이 곧 1905년 1월 17일자로 한일간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이른바 통감부시대를 맞게 된 한국민들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항일구국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민들은 동학혁명에서의 항일구국의식을 계승하여 1904년 보국안민을 뜻하는 보안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황무지 개척요구권을 성토·규탄함으로써 철회케 하였다. 그뒤 1905년 헌정연구회가 조직되어 민중의 교육과 계몽에 힘썼으며, 일진회의 친일적 행위를 규탄, 민족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어 1906년 이를 확대하여 대한자강회를 창립하고 「자강회월보」를 발행하면서 민중의 독립사상을 선양하였으며, 이는 다시 대한협회로 계승되어 기관지 <대한민보>를 통해 실력양성과 지식향상을 절규하였다. 그외에도 보민회, 대동관문회, 신민회 등이 조직되어 민중항일투쟁은 각계 각층에서 전개되었다.

이같은 항일투쟁은 이후 전민중적 구국운동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1910년 8월 강제로 경술국치를 당한 이후 1945년 8·15 민족의 광복때까지 내재적이고 전통적으로 저력있게 연결되어졌다.

4. 1910년대 천도교인의 항일구국의식

천도교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창도 46년만에 의암 손병희에 의하여 반역분자등을 과감히 축출·척결한 뒤 새로 출범하면서부터 동학사상을 민족독립사상으로 연결함에 크게 기여하였고, 구국의 항일투쟁을 위한 민족종교로 발전시켰다.

천도교의 항일독립사상은 의암, 목암등에 의하여 성숙 발전되었으며, 그것은 민중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민중의식의 강한 혁명운동 정신과 연합하여 각종 비밀결사 항쟁을 동학의 민중구원적 독립사상의 사조와 연락하면서 항일구국의 사상체계를 세워 나갔다.

의암의 60평생은 개화와 독립의식이 침잠되어 있는 민족구국운동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는 천도교로 내실을 다진 뒤 동학의 민족구국적 차원에서 의식개혁에 앞장서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진작시켰으며 구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폈다.

의암은 목암등과 3·1 민주혁명을 준비하면서 그의 항일의식을 집약시켰으며, 신정부의 수립을 통한 민주국민국가 건설을 결의하였다. 의암의 민족구국의 독립사상은 동학의 현실구제와 민중위주적 복락사상에서 맥락되어져 1910년대에 이르러는 항일의식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한편 목암은 70평생중 30여년을 민족구국운동에 헌신하였다. 그의 항일의식은 제국신문을 통한 일제의 침략적 근성을 날날이 규탄 성토했고, 소위 세계열강들의 이권탈취와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주권수호를 절규함에 잘 반영되고 있다.

그는 1906년 장지연·윤효정등과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으로 애국계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동료들과 보성사내에 천도구국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3·1민주혁명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의암의 권유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서명날인하고, 보성사에서 3만5천여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전국 주요지역에 배포케 주선하였으며, 조선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천도교인들의 항일민족독립의식은 각종 애국활동속에서 싹터왔으며, 동학의 사상적·신앙적 차원에서 맥락지어진 민중구원적 사상이 항일구국의식으로 발전되어졌다.

5. 3·1혁명의 주도와 대중화운동

천도교가 구국종교로서 민족운동에 기여한 것은 1919년 3·1민주혁명에서의 타종단에의 자금지원·기밀연락 등 선편적인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내부로부터 싹터 성장한 민족의식에 따라 민중을 이끈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운동은 당시 3·1민주혁명을 의식한 것이 아닌 거족적 민중운동을 동학에서의 보국안민적 구국이념에 따라 1910년 9월말로부터 이미 천도교 중진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천도교의 구국적 신앙에 입각한 대중봉기운동을 동학혁명의 재현과 계승으로하여 그 이후 1919년 3월 1일까지 근 10년간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던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타 종교를 흡수하고 민중운동의 원칙을 비폭력·대중화·일원화로 세워 9월 9일을 1차 민중봉기일자로 정하였다. 그러나 1919년 1월 고종이 일제에 독살당하여 한 국민사이에 일제에 대한 분노가 치솟게 되자 민중운동 봉기일자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고, 이어 동경 한국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소식에 접함으로써 고무되어 2월 15일 천도교측은 유·불·기독교측과 학생층, 기타 대중들과의 비밀연락을 완료하였다.

마침내 3월 1일을 거사날짜로 결정, 거국거족적인 만세독립운동을 일으키니 그것은 국내의 각지로 파급 확산되어 갔다. 결국 국민국가 실현과 완

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1민주혁명은 천도교의 민중운동 3대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는데, 그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22년에 폐막된 워싱턴의 태평양회의를 통해 3·1독립만세운동과 같은 거사를 천도교의 보성사팀이 중심이 되어 민중과의 합세와 지지·호소하에 재차 제2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봉기하려 기도하였다.

더욱이 3·1 민주혁명 이후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정통민간정부가 수립됨으로 민족독립운동은 이를 구심점으로 정통성있게 지속되어졌다.

그뒤 천도교는 동학정신에 의한 대중적 문화운동의 맥락을 계승하여 잡지운동과 소년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 대중화운동을 통해 민중구국의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6. 결 론

1894년의 동학혁명은 1860년에 태동한 동학사상의 인간성 회복과 보국안민의 국가관, 민족관의 정립 정신속에서 혁명의식이 싹텄다고 보며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본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민족문제의 해결의식으로 계승되어 민족운동을 유발할 충동의욕으로 파급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동학혁명은 종교운동의 차원을 넘어 반침략, 반체제의 정치성을 띤 주체적 자립자주적인 의식과 인식하에서 일어난 민중구국운동의 신기원이었다.

특히 동학혁명의 정신사적 유산은 3·1민주혁명운동에 직·간접적인 영향과 맥락을 조성해 주어 두번째의 민주혁명을 가능케 하였고, 성공한 민주혁명의 실체를 내외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은 통일과 단합, 자주와 주체성의 대명사로 성장함으로써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사상적인 기간이 되었고, 커다란 영향을 내면적이고 맥락적으로 강하게 제공하였다. 그것이 동학 — 천도교로 이어지는

130여년의 빛나는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천도교는 과거사에 만족하거나 재음미속에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새로운 민족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130여년간 쌓아온 역사가 살아있는 비약사로 연결될 것이라 믿는다. ■

東學革命과 甲辰開化革新運動

趙 恒 來

(숙명여대 교수·한국사)

I. 머리말

東學은 부패한 우리 정부를 개혁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물리치고자 1894년 東學農民革命運動을 일으켰다.

그러나 外勢의 개입으로 동학은 중추세력마저 와해되어 한때 존립마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再起의 기회를 엿보던 중 1904년 제 3세 교조 孫秉熙의 주도아래 다시금 개화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갑진개화혁신운동 그리고 3·1운동은 동학의 주도아래 전개한 일련의 개화혁신 구국운동이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운동이나 3·1운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갑진개화혁신운동에 대해서는 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¹⁾를 참조하면서, 天道敎측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구한말 어려운 상황에서 동학의 開化革新運動이 비롯된 경위 및 그 改革論과 이어 進歩會의 조직과 개화혁신운동이 전개된 과정과 아울

1) 본고는 필자가 줄고, 〈一進會의 組織과 背後關係〉, 《徐廷德教授華甲紀念論叢》, 1970, 이후 주목된 邢文泰, 〈1904·5年代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究〉, 《史學論叢》 제4·5합집, 漢陽大史學會, 1977; 崔東熙, 〈天道敎의 民族運動〉, 《韓國思想》제21집, 1989; 黃善禧, 〈1900年代 天道敎의 開化運動〉,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一》, 1992; 姜成銀, 〈20世紀初頭における 天道敎上層部の 活動と その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러 一進會에 의한 進步會의 買收와 개화혁신운동이 挫絶하게 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開化革新運動의 改革論

최시형이 순교한 후 제3세 교조 孫秉熙는 동학도중의 재수습에 진력해 보았으나 관헌의 지목이 극심해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그 형세가 날로 글리감을 보고 교세를 제대로 재건키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장래에 동학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면 문명의 대세를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1901년 3월에 손병희는 아우 孫秉欽과 제자 李容九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려다가 여의치 못해서 일본 長崎에 체류하다가 손병희와 같이 청국 上海로 건너가 잠시 머문 후 다시 일본으로 왔다. 그때 손병희는 李祥憲이라고 變姓名하고 세계정세를 관망하면서 동학재건을 준비하였다. 甲申, 乙未의 정변으로 인해서 국사범으로 지목되어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權東鎭, 吳世昌, 趙羲淵, 朴泳孝 등과 交友하여 국사를 의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동학 지도자들과 기맥을 상통해서 교세 재건과 교도의 결집에 주력하였고 문명·학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 교도의 자제를 중심으로 청년을 선발해서 1902년 3월에 24명, 1904년 3월에 40명, 모두 64명을 유학시켰다. 이는 새로운 세계 문명과 접촉시켜 세계적인 문명사조에 호응시킴으로써 부강한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아래 취해진 것이었다.²⁾

어떻든 이래서 동학교도가 날로 늘어나게 되자 정부 관헌의 지목 또한 더욱 심해져서 전국 방방곡곡 津津浦浦에 이르기까지 교인과 관료배의 충

2) 天道敎敎理臨時講習會刊, (天道敎書) Ⅱ, (亞細亞研究) 通卷 제11호,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2, p.449(이敎書는 1920년 '天道敎敎理講習會'의 교제로, 등사본이고, 이를 토대로 (天道敎創建史)가 출판되었다.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亞細亞研究) 通卷 제9권, p.211, 1962; 韓國思想研究會編, (韓國思想)6, pp.295~6, 敎史篇, 1963.); 李敦化편, (天道敎創建史) 제3편, 天道敎中央宗理院, 1933, pp.27~31 참조.

들이 그칠 날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아울러 민심이 흉흉하고 세상의 여론도 대단히 분분해졌다.³⁾

1903년에 이르러서 한국문제를 둘러싼 러·일간에 戰雲이 급박해 진 것을 본 孫秉熙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러·일간의 전쟁은 곧 韓滿의 두 나라에 관련되는 전쟁인 즉 어느편이 이기든지 한국은 이기는 편에 예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국의 運命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강력한 政治結社를 조직해서 단결된 힘으로 한국정부의 秕政을 개혁하고 러·일 두나라의 전쟁에 있어 일본이 승리하며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즉 '日勝露敗'로 判斷하고 러시아에 선전을 포고하되 일본과 동맹을 체결해서 共同出兵을 하고 戰勝國의 입장에서 강화조약에 참여하려고 계획하였다.⁴⁾

이 정책의 첫 단계로서 손병희와 동학세력은 서울의 친로파 정권을 타도하는 방략을 세웠다. 동학의 조직은 상인을 가장하여 우리나라의 항구로 상륙하는 일군을 돕고 동학군과 일군이 합세하여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제안을 일군 참모장 田村怡興에게 보여 찬동까지 얻었다. 이 제안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⁵⁾

權東鎭·趙義淵 양인이 다갈오되 “일본 참모총장 田村의 사람됨이 智略이 잇고 그 뜻이 또한 精篤하니 가히 더부러 일을 의론함즉 하다” 하거늘, 聖師—곧 權東鎭으로 더부러 가만히 田村을 보고 日露전쟁의 이혜를 설파한 뒤에 갈오되 “일본 兵隊로 하여금 商裝을 한 후에 비밀히 각지

3)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31; 위의 책, (天道敎書) Ⅲ 제3편, 義菴聖師 1901년(布德 42) 壬寅, 1904년 甲辰條, 그리고 동학교도의 동향에 대해서는 (皇成新聞) 1904년 4월 12일·6월 2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各館往剪電〉 1903, 〈機密各館 往復〉 1904, (陸海軍往復—進會) 1904, 〈鎮平義元城往來〉 1904, 〈馬釜木群往來〉 1904, 〈機密本省往〉 1904 등을 참조하여 後考를 할 작정이다.

4) 日勝露敗의 理由로서 첫째, 地理上關係, 둘째, 開戰의 目的(精神的 動機), 셋째, 軍略과 兵機(器) 問題(軍事的인 實力)는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p. 31~34; 위의 책(天道敎書) Ⅲ, 布德 44년(1903) 癸卯條에 자세히 말하고 있다.

5)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33; 위의 책, (天道敎書) Ⅲ, 1903년(布德 44) 癸卯條.

不通의 商港에 드리가게 하고 吾道儒 이에 응하여 韓京에 直衝하면 露黨을 가히 除滅한 것이요 노당이 파괴하면 露勢가 반드시 고립할 것이니 이때 道儒 수십만과 어울려 露人을 力功하면 露 반드시 패할지니 동양평화의 術이 이에서 右할 자—없다한대 田村이 크게 기뻐하여 드디어 그 계책을 좇기로 굳게 맹서...

하였다. 동시에 손병홍을 국내에 보내 국내 동지들로 하여금 거사의 준비를 서두르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약속했던 田村이 8월 5일 급사와 또한 손병홍 역시 다시 일본으로 가는 도중 8월 3일 부산에서 猝死하였다. 공교롭게도 중대사를 띤 田村과 손병홍이 이틀 사이에 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손병희는 乾坤一擲의 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보고 실망하여 3일간이나 식사를 전폐하기까지 하였다.⁶⁾ 하는 수 없이 공동출병 제안을 포기한 손병희는 다시 용기와 인내로써 李仁淑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부의 議政大臣 尹容善과 法務大臣에게 ‘秕政革新’의 疏文 즉 국정개혁에 대한 건의를 보냈다.⁷⁾ 이 건의서는 갑오개혁(1894) 이래의 개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輔國安民’ 할 것과 근대국가로 발전할 것을 제창한 역사적 문헌으로서 흔히 손병희의 三戰論⁸⁾이라고 한다.

이 건의서 중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부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선택할 것을 말하고, 승리할 편에 서서 공동출병해야 한다는 이론을 계속 개진하고 있다.

그의 三戰論은 “목하 시급히 힘쓸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財政·道政·

6)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p.33~44; 위의 책, 《天道敎書》Ⅲ, 1903년 癸卯條.

7) 孫秉熙는 李仁淑으로 하여금 당시 議政大臣인 尹容善과 法部大臣에게 글(疏文)을 보내어 러·일간의 戰雲이 급박해진 이 중대한 시기에 秕政을 개혁해서 善處할 것을 호소하며 정부 당국자의 각성을 促求해 본 것이다.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p.34~42; 義菴 孫秉熙先生 紀念事業會, 《義菴 孫秉熙先生傳記》(1967), pp.188~192에 각각 議政大臣·法部大臣에게 보낸 疏文이 收錄되어 있다.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43; 渡邊彰述, 《天道敎と侍天敎》, p.30, 大阪屋號書店, 1919.

8)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p.82~86; 앞의 글, 《1900年代 天道敎의 開化運動》,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p.46

言政”이라고 하여, ① 경제개혁 ② 사상·종교의 주체확립 ③ 외교·언론을 역설하고 있다.⁹⁾ 삼전론은 일본 체류에서 얻은 개화사상과 일본의 근대화 에 자극된 데서 얻어진 결론이었다.

동학의 보국안민책은 근대사상의 형태로 발전하고 정치·경제면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동시에 동학세력은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무능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개화혁신운동의 이니시에이터부를 잡기에 이르렀다.¹⁰⁾

Ⅲ. 開化革新運動의 展開

1) 進歩會의 組職

이러한 상황에서 1904년 2월에 급기야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국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어 孫秉熙는 이웃나라의 誼를 표하기 위해서 일본 陸軍省에 軍資金 萬圓을 寄贈¹¹⁾하는 한편 개화혁신운동으로는 적극적인 국정개혁과 동학세력의 집정까지 감행하려고 일본과 제휴하였다. 동시에 나아가서 일반국민의 생활을 혁신해야겠다는 趣旨 아래서 종래 동학의 會名을 大同

9) 孫秉熙는 1903년 ‘輔國安民’ ‘廣濟蒼生’의 近代的 具現이라 할 수 있는 ‘三戰論’을 지었다. 이 三戰論에 의거해서 ‘稅政革新’ 疏文이 지어졌다. 三戰論의 道戰·財戰·言戰이 稅政革新의 疏文에는 財政·道政·言政으로, 戰이 政으로 道政과 財政의 차례가 바뀌어졌다.

10) 이 開化革新運動은 일본과 제휴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결국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에 휘말려든 셈이 되었다는 속단을 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앞의 논문, 〈20世紀初頭における天道教上層部の活動とその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24, p.159, p.161, p.173). 그러나 그 目的이 輔國安民이었으며 日本勢에 편승하여 國權을 수호하려 한 태도는 國際外交關係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以夷制夷의 방법을 의도한 경우로 볼 수 있다.(앞의 글, 〈1900年代 天道教의 開化運動〉,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p.469참조.

11) 앞의 책, 《天道教創建史》, p.43: 앞의 책, 《天道教と侍天教》, p.30: 앞의 책, 《天道教書》, 1904년 甲辰條.

會 (1904. 4), 中立會(1904. 7)라 칭하여 오다가 權東鎭, 吳世昌, 趙義淵 등과 상의해서 그해 9월에 회명을 다시 '進步會'라 개칭하고 취지·강령·규칙을 지어 李容九로 하여금 진보회의 조직운영을 主幹케 하였다. 그 綱領은 ① 皇室을 尊重하고 獨立基礎를 공고히 할 것 ② 政府를 改善할 것 ③ 軍政財政을 정리할 것 ④ 人民의 生命財產을 보호할 것 등이다.¹²⁾

이 4대 강령은 손병희의 '三戰論'의 구현인 동시에 개화의 범국민운동 단체의 일대 선언이기도 하였다.

당시 진보회의 임원구성은 각 郡마다 회장과 부회장 각 1명, 評議員 若干명, 각 道를 대표하는 總會長·부회장 각 1명을 두고 각 郡을 순시하며, 각 道회장은 관리와의 교섭담판을 하였다. 서울 본부에는 總會長에 李容九, 부회장에 權鍾德으로 되어 있었다.¹³⁾ 이때부터 이용구는 진보회본부 총회장으로서 손병희를 대신해서 동학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동학이 다시 開化革新的인 기치를 내건 진보회란 이름으로 손병희의 지도아래 모든 일을 이용구가 대신하게 되었고, 이를 잘 모르는 국내의 교도들은 이용구가 동학의 중심되는 인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2) 開化革新運動의 展開

이와 같은 4대강령 아래서 동학교도들은 손병희의 指令에 따라 하루 아침에 경향각지에서 일제히 開會하여 斷髮黑衣 즉, 머리를 깎고 색옷을 입고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는 정부에서 斷髮令을 발표해도 상투머리를 깎지 않고 실패했던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동학의 교도들은 일심단결하는 결의로 단발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¹⁴⁾

12) 위의 책, (天道敎書) Ⅱ. 1904년 甲辰條: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p.44~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4년 (明治37)陸海軍往復: 참고, (一進會研究) p.37 註65 참조.

13) 위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1904년陸海軍往復〉.

14) 앞의 글 〈甲辰革新運動과 東學〉, (韓國思想) 6, pp.77~78;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44 에는 斷髮의 목적은 첫째, 〈世界文明에 참여하는 標準이요 또한 團結을 固結하여 회원의 心志를 一致케 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발 혐의를 한 동학교도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 죽음을 각오하고 政府改革과 國政刷新을 절규하였는데, 당시 거의 20만명에 이르는 회원이 상투머리를 잘라 이 개화혁신운동에 참가하였다.¹⁵⁾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天道敎에서는

八城各郡에 進歩會의 旗幟가 林立하니 實로 天地의 壯觀이요 宇宙間大快事¹⁶⁾

이라 하였고, 일본측 기록에도 비록 숫자는 줄었으나

韓廷의 暴虐의 壓迫에도 不拘하고 地方進歩會員 11萬餘에 達하여 鷄林八道를 風靡하는 바¹⁷⁾

라고 하였으니 그러한 개화혁신적인 운동에 공감하는 교도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 운동을 경향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진보회의 활동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로 말하면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不敢毀損'이라는 유가의 戒銘에 의해서 국왕의 권한으로 단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생들이 '頭可斷이언정 髮不可斷'이라며 항거하게 되어 단발령이 철회되었던 시기이므로 이때 단발한 사람이 20여만명에 육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전국 360여 군에 진보회 支會가 설치되어 관찰사·군수 등 관헌을 상대로 각종 민원에 대한 단판을 실시함으로써 東學農民軍의 봉기 당시의 지방 민정을 대행한 執綱所 정신을 계승한 듯한 民權行使라든지, 수천만의 群衆을 상대

15)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p.45~49에는 당시 進歩會는 전국 360餘郡에 支會를 두고, 그 支會의 活動人物을 열거하고 있다. 會員數에 관한 이 밖에 기록에 의하면, 위의 책, (天道敎書)Ⅱ, 1904년 甲辰條는 16萬名, 위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11萬名, (皇城新聞), 1904년 11월 11일자는 5萬名이다.

16) 위의 책, (天道敎創建史), p.45; 위의 책, (天道敎書)Ⅱ, 1904年 甲辰條.

17) 앞의 기록,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5年 本省來機密>.

로 開化思想에 대한 啓蒙演說 등을 경향각지에서 감행한 진보회의 '甲辰開化革新運動'이야말로 당시 守舊思想에 깊이 물들고 있는 유생들을 비롯해서 官民을 막론하고 지탄과 반발을 받게되어 갖은 욕설과 빈축을 사게된 여러 일화를 남겨놓은 양극의 상황속에서 선구적인 受難史가 파묻혀 있다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進步會의 개회·조직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관민을 막론하고 한참동안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唐慌罔措할 뿐이었고, 외국인들도 그 이면관계의 곡절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몹시 놀랄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진보회의 내용이 곧 東學黨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놀라서 한편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진보회를 탄압하고, 또한 日軍과 교섭해서 재차 甲午東學農民運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게 되자, 進步會는 사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¹⁹⁾

IV. 開化革新運動의 挫折

1) 一進會의 進步會買收

이에 앞서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10년 가까이 일본에 망명해 있던 宋秉峻이 일본군 제12사단 兵站監 大谷喜久藏소장을 따라 군사통역으로 일군과 함께 청국까지 종군하였다가 서울에 돌아와서,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군을 배경으로 하여 마침내 그해 8월에 일진회를 조직하고 그들 일제의 對韓侵略의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計劃의 행위자들의 앞잡이 단체로서 그 所任이 주어졌던 것이다.²⁰⁾

18) 앞의 글, 〈甲辰革新運動과 東學〉, 《韓國思想》6, pp.77~78.

19) 앞의 책, 《天道敎創建史》, p.50; 앞의 책 〈天道敎書〉Ⅲ, 1904年 甲辰條.

20) 앞의 참고, 《一進會研究》, pp.22~35 참조.

그래서 일진회는 창립 당시의 취지나 강령에서 제시한 국정의 개혁과 독립을 추구한다는 명분상의 취지와는 달리 처음부터 애국을 가장한 표리가 부동한 상투적인 구호로 내어 걸은 단체였다.²¹⁾

그러나 그들에게 저마다의 고민이 있었다. 이용구는 號曰百萬의 진보회원을 거느리던 진보회장이지만 東學 자체가 國禁이 되어 세상에 활개칠 수 없었으며 송병준은 일군을 배경으로 조직된 그야말로 一進會의 수령이었지만 지방적인 기반이 전혀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이용구는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기 위해 송병준을 필요로 하였고, 반면 송병준은 지방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1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용구를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 두사람은 8월 이후 가을 어느날 泥峴에 있는 송병준이 자주 드나드는 일본요정 淸華亭에서 隱密한 계획을 갖고 만나 밀담을 나누었다. 결국 '於是公(李容九:필자주)欣然與宋秉峻 盡露肝膽 結刎之交'²²⁾라고 한 바와 같이 이때 그들 나름대로 두사람의 意氣가 投合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서로의 方案을 우선 강구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더욱이 진보회의 발족 이후 정부에서는 탄압을 계속 감행하는 — 발포·위협·구타·감금·살상 등 — 살벌한 반목이 더욱 심하였다.²³⁾ 그 중에서 泰川(泰川郡 檢岩) 고치江上에서 관군의 핍박한 바 되어 회원 수백명이 강중에 몰사한 사건 같은 것은 처참한 것이었다.²⁴⁾

21) 一進會의 趣旨書는 李寅燮, (元韓國一進會歷史)권1, pp.2~4, 全秩4冊, 文明社, 1911; (一進會會報) (一進會機關紙로서 1904년 8-9월경 創刊, 單 1卷으로 終刊?) 第1號, pp. 1~3에 수록되어 있고, 그 綱領은 (元韓國一進會歷史)권1, p.5; (一進會會報)제1號, p. 6; (皇城新聞), 光武 3년(1904) 8월 22일자에 綱領이 수록되어 있다. 一進會가 指向하는 趣旨의 목적 즉 4대 강령은 ① 皇室을 <尊重>케 하고 國家基礎를 공고케 할 것 ② 人民의 生命 財産을 保護케 할 것 ③ 政府의 改善政治를 實施케 할 것 ④ 軍政과 財政을 정리케 할 것 등으로 一進會 및 進歩會(一進會에 買收되기까지)의 綱領은 用語上的 차이는 있으나 實質的인 兩會의 政綱政策의 內容面에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表面上의 취지와는 달리 일제 侵略에 동조하여, 親日色彩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22) 大東國男, (李容九의生涯)附錄, <侍天教宗釋史>第3篇, p.149, 時事通信社, 1961.

23) 앞의 글 (甲辰改革運動과 東學), (韓國思想)6, pp.81~82.

이러한 실정의 반목이 정부와 진보회 사이에 석연찮은 상황속에서 정부의 탄압을 간파한 일진회에서는 이용구에게 '지금 정부에서는 갑오동학농민운동 토벌때와 같이 일군과 협력해서 진보회를 剿蕩할 방침인 듯하니 진보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일진회와 합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유혹적인 합동제의를 거부할 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04년 12월 2일에 진보회는 송병준의 요구대로 일진회에 매수되고, 회명을 일진회로 하는 동시에 회장도 일진회의 회장인 尹始炳으로 하고 이용구만 13府總會長(13道地方會長)이라는 성격이 애매한 자리를 첨가한데 지나지 않았다.²⁵⁾ 이는 지방지회 회원 전부가 진보회원이라는 것과 지방회원을 통솔하는데 역시 이용구가 책임자이었으며, 또한 진보회 측의 체면도, 살려주는 점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일진회의 조직과 송병준, 이용구의 밀회의 배후에서 진보회의 매수 등을 직접 조종한 초기의 일은 神鞭知常·望月龍太郎·佐瀨熊鐵·神谷卓男 등 이른바 일진회 고문이라는 자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였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²⁶⁾ 그러므로 진보회가 창립 4개월만에 일진회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일진회와 진보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보회의 개화혁신운동이 곧 일진회의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⁷⁾

2) 開化革新運動의 挫折

일진회가 진보회를 매수한 후 이용구와 송병준은 이때부터 러·일전쟁에 개입해서 일군의 러시아에 대한 전승을 위해 일진회는 경향각지에서 時局講演會²⁸⁾를 비롯해서 咸鏡道·間島 지방의 러시아군에 침투해서 비밀정탐, 일군의 軍需物資 수송²⁹⁾ 軍用鐵道인 京義線 鐵道敷設工事 등에 一進會員과

24) 앞의 책, (天道敎書)Ⅲ, 1904年 甲辰조, 9월 (p.449): 앞의 책, (天道敎創建史) p.51.

25) 앞의 줄고, (一進會研究), pp.44~40.

26) 줄고, (一進會의 背後關係), (淑大論文集) 제28집, p.367, 1988.

27) 앞의 줄고, (一進會研究) p.51~56.

28) 앞의 줄고, (一進會研究), pp.124~126.

연변 주민을 강제로 동원시켰다.³⁰⁾

한편 지금까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이용구·송병준 등의 可欺以方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늘 불안과 의혹을 가졌던 손병희는 지방 진보회의 동지들의 직접보고를 받고 大事가 違算됨과 배신에 驚怪千萬이었다. 때는 이미 늦었는지라 이에 自重善處하여 다음 일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었다.³¹⁾

그후 1905년 9월 30일에 一進會의 조직을 개편하여 13道支府總會를 폐지하고 제도상 진보회의 독자성을 말살하였다.³²⁾ 이어 11월 6일에는 이른바 一進會宣言書를 발표하였다.³³⁾ 이 선언서는 일진회 고문인 佐瀨가 기초한 것으로, “일본의 지도보호를 받기 위해서 內治 外交權을 일본에 일임해야 된다”는 내용이였다. 이 기만적인 保護獨立의 정체를 파악한 손병희는 이용구를 불러 保護宣言을 크게 책망하고 보호독립의 허구성을 찢러 “보호를 받고저 하면 독립을 버려야 하고 독립을 하고저 하면 보호를 버려야 하나니 어찌 보호라는 이름아래 독립을 하고저 하느냐”라고 호령하였다.³⁴⁾ 이로써 일진회의 賣國의 正體가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일진회의 진보회계통의 東學 교도들의 “自願退會者가 增大” 하여³⁵⁾ 경향각지에서는 反一進會運動이 전개되기도 하였다.³⁶⁾

이와 같이 이용구의 배신과 송병준에 매수되어 진보회를 조직해서 국권

29) 1905년 6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動員된 회원은 114,500명에 달하였다.(앞의 책, (元韓國一進會歷史)권2, 附錄上, p.161).

30) 1904년 10월부터 1905년 9월까지 平安南道 64,700명, 平安北道 72,900명, 黃海道 11,514명 합계 149,114명에 달하였다.(위의 책, (元韓國一進會歷史)권2, 附錄下, p.167, p.173). 그리고 이같은 당시의 사정은 송병준이 직접 일본 어느 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앞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1905年(明治38)本省來密〉).

31) 앞의 책, (天道教創建史)p.52; 위의 책(元韓國一進會歷史), 권2, 참조.

32) 위의 책, (元韓國一進會歷史) 권2, p.94~95.

33) 앞의 책 P.162, (侍天教宗 釋史)제3편 제7장; 위의 책, (元韓國一進會歷史)권2, pp.106~111; 靑柳南冥, 〈一進會裏面史〉, (朝鮮史話と史蹟)pp.948~952, 朝鮮研究會, 1926.

34) 앞의 글, 〈甲辰革新運動과 東學〉, (韓國思想)6, pp.88~89; 앞의 줄고, 〈一進會研究〉p.55, 註108) 참조. 앞의 책, (天道教創建史), pp.52~53.

35)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17일자 잡보〈自願自退〉.

36) 줄고, 〈舊韓末社會團體의 救國運動〉, (省谷論叢)제7집, pp.528~530참조, 1976.

을 찾으려는 깊은 충정은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자 내심으로 東學魂 수습과 교도의 재조직에 착수해서 1905년 12월 1일에 동학을 “天道教”라 선포하니 이는 東經大全에 道則天道란 데서 따온 것이며 教字만을 손병희 교조가 종교란 뜻에서 붙인 것이다.³⁷⁾ 그리하여 진보회의 출발 동기나 정신과 전혀 다른 일진회의 妄動을 계속 고집하는 이용구 등 親日走狗 62명의 동학의 대두목들에게 黜教處分을 단행하였던 것이다.³⁸⁾

송병준은 일제의 凶計에 호응해서 아무런 조직적인 회원의 배경이 없는 尹始炳 등을 敬遠하면서 전국적으로 동학교도의 조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용구를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즉 송병준은 일군부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자금과 관찰사·군수를 내고 들이고 하는 권력과 아름다운 女色을 이용해서 이용구로 하여금 자기 스승의 命教는 물론 국가민족의 장래를 완전히 잊어 버리도록 마취시켰던 것이다.³⁹⁾

이용구는 본래 동학의 종교수련도 있고 갑오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선두에서 싸우기까지 했지만 한번 권력과 금전과 女色에 耽溺되고 보니 이제 이용구에게는 국가도 민족도 개인의 지조도 명예도 모두 초개와 같이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오직 송병준이 시키는대로 움직일 뿐이었다.⁴⁰⁾

이렇게 완전히 꼭두각시로 타락한 이용구를 1905년 12월 22일 송병준이 일진회에서 회장으로 승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⁴¹⁾ 이때부터 이용구는 더욱 일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골적인 우리나라 침략의 앞잡이 行脚을 거

37) 《帝國新聞》, 1905년 12월 2일자 廣告欄: 앞의 책, 《天道教創建史》, p.53: 앞의 책, 《天道教書》Ⅲ, 1905(布德46), 乙巳條.

38) 위의 책, 《天道教創建史》, p.56: 앞의 책, p.152, 《侍天教宗釋史》: 吳知泳著·李章熙 教註, 《東學史》, pp.215~220, 博英社, 1974.

39) 당시 一進會의 財政을 맡아 보던 嚴柱東은 거의 밤마다 李容九에게 女色을 제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당시 17세의 弱冠으로 一進會의 司察職을 맡아본 바 있는 李在賢이 證言(앞의 글, 〈甲辰革新運動과 東學〉《韓國思想》6, p.86).

40) 위의 글, p.86.

41) 앞의 註 25) 참조: 앞의 줄고 《一進會研究》p.57 註 115) 참조.

리낌 없이 감행하였던 것이다.⁴²⁾

그러나 종래 진보회의 창립발기나 그 취지와 목적을 일진회와 대동소이 하거나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다.⁴³⁾ 그러나 甲辰開化革新運動의 발단은 일본과 제휴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결국 일제의 대한침략정책에 휘말려 든 셈이 되었다는 本末이 顛倒된 속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평가의 바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⁴⁾

앞서 본 바와 같이 1905년 12월 1일 孫秉熙는 동학을 天道教로 선포하고 1906년 1월에 일본에서 귀국한 손병희는 먼저 '天道教大憲'을 선포한 뒤 교회 組織體系를 개편함과 함께 교회 儀式을 새로 제정하여 천도교의 교단재건과 교리의 근대화를 위해 힘썼다.⁴⁵⁾ 손병희는 그후 大道主의 자리를 金演局(1907), 朴寅浩(1908년 이후)에 맡기고 1910년 경술국치를 거쳐 1919년 3·1운동까지 근 10년간 표면으로는 향락적인 타락생활을 가장하고 안으로 교회조직 확대와 교육사업 및 언론출판활동을 추진하여⁴⁶⁾ 동학운동을 계승한 천도교운동은 날로 증가된 100만 교도의 대중적 기초 위에서 한편으로 개화혁신운동을 전개하면서 統監府에 의한 직접적인 탄압을 회피하면서 宗教團體로서의 합법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⁴⁷⁾ 그의 천도교 사업은 곧 輔國安民의 독립운동 준비였다. 따라서 독

42) 釋尾東邦, 《朝鮮併合史》, p.667, 朝鮮及滿洲, 1926李容九의 遺子라는 자가 쓴 앞의 책, 《李容九의生涯—善隣友好의初一念을貫く—》및 西尾陽太郎, 《李容九小傳》葦書房, 1978 등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韓國民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賣國奴의 오명을 극구 辯明하고 있다.

4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4年(明治37) 陸海軍往復〉; 앞의 책, 《元韓國一進會歷史》권1 참조; 앞의 책, 《日韓合邦秘史》, 上, pp.33~34; 앞의 책, 《隆熙改元秘事》, 참조, 그리고 一進會의 조직에 李容九가 처음부터 가담되어 있다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1909年 憲兵機密文書 韓末官人の 經歷一般〉이나 一進會와 進歩會가 異名同體라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1904年 陸海軍往復一進會〉(앞의 글, 〈1904·5年代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究〉, 《史學論志》제4·5합집, p.72, p.78) 등 자료에서 보이는 一進會가 1904년 8월 20일에 조직된 서울의 일진회인지 12월 22일에 一進會에 買收되어 통합된 일진회인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양회는 명칭을 지역에 따라 混用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앞으로 여러계통의 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後考를 할 작정이다.

44) 앞의 註 10) 참조.

립운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천도교운동은 1919년 3·1운동에서 민족사의 근대적 과제를 감당한 역사의 주역이었다는 것이다.⁴⁶⁾

V. 맺음말

이상에서 1904년에 孫秉熙의 주도아래 추진했던 甲辰開化革新運動은 일제침략과 그 추종세력인 이용구, 송병준 앞잡이들로 인해 좌절되고 오히려 동학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개화혁신운동을 추진시킨 목적은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급박해진 러·일간의 대립이 격화해서 전쟁으로 치닫게 되자 이 틈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국정쇄신운동을 전개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인 중에서 정수분자를 뽑아 그들을 핵심으로 진보회를 조직해서 개화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주체인 진보회의 취지는 혁신운동을 통해서 외세로부터 유린당하는 국권을 수호하고 독립보존·민권옹호·국정쇄신과 함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운동이 지난날의 동학세력의 부활로 단정하여 탄

45) 1906년 2월 16일 선포한 '天道敎大憲'은 모두 5篇41章 189條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大道主의 地位, 中央과 地方組織體系, 淵源 및 原住職, 敎律 등이고, 敎組織體는 종래의 屬人制에서 中央總部와 地方 72개소의 大敎區인 機關制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敎組織體系를 改編함과 함께 敎儀式 역시 5款 ① 呪文 ② 清水 ③ 侍日 ④ 祈禱 ⑤ 誠米의 다섯 계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특히 당시 천도교의 강력하고 방대한 전국조직과 교도가 100만으로 늘어나고 '誠米運動'으로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다. (金用天·崔東熙共著, 《韓國宗教大系7, 天道敎》, p.211, 圓光大宗敎問題研究所, 1976; 앞의 책, 《東學史》, pp.221~224, 참조).

46) 앞의 글, <20世紀初頭における天道敎上層部の活動とその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pp.167~168 참조.

47) 앞의 글, <天道敎의 民族運動>, 《韓國思想》 제21집, p.47, 그리고 위의 글, pp.169~174참조. 視角의 差는 있으나 這間의 사정의 일면은 엮을 수 있다.

48) 申一撤, <韓國獨立運動의 思想的性格>,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 pp.252~261 참조, 1981.

압의 손길이 뻗어 오는 데다가 일제는 일제대로 우리나라 침략에 방해가 되는 동학세력과 진보회를 파괴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방법으로 먼저 진보회를 친일세력으로 매수 전환시키는 한편 이용구를 동학에 대한 배교분자로 활동시키면서 손병희와 맞서게 해서 천도교와 일진회로 분열시켰다. 이 때문에 개화혁신은 고사하고 교단마저 양분되어 위기에 처했으나 손병희의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일제 추종분자들을 천도교로부터 축출하고 政敎分離 원칙을 내세워 이 난국을 수습하였다. 이 때문에 1910년경에 천도교는 재정적으로 한때 위기에 처했으나 교도의 誠米로써 명실공히 재건되어 民族宗教로서의 기틀을 잡았으며, 오히려 갑진혁신운동이 좌절이 아니라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천도교가 주도하는 3·1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3·1운동을 민족적인 국권회복운동의 기념탑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

東學思想의 平和觀

— 造化理論을 중심으로 —

盧 泰 九

(경기대 법정대학 교수)

I

東學의 平和觀을 비롯한 民族의 傳統思想을 다룬다는 것은 고도의 方法論(現象學的方法, 解釋學的方法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에서 교육되고 연구되는 지식은 西洋學問의 理念과 분류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것이며 우리의 傳統學問은 이미 學이 아니라 史로서 歷史學의 연구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재야학자들의 秘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韓國學界는 西洋學界의 支部이고 韓國文化는 西洋文化의 亞流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과 사회의 발전은 자기문화에 대한 理解와 評價를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哲學, 思想, 政治學, 經濟學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우리의 傳統學問에 대한 새로운 교육목표와 학문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날 人間學과 社會科學의 言述에 횡행하고 있는 '脫', '포스트'라는 관행어가 응축적으로 시사하듯이 知識世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혼돈의 징후로 미루어 볼 때 우리 時代는 분명 思惟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論의 危機는 인식론의 챔피언이자 産業革命의 화신이었던 '發

展' 개념에 치명적인 도전장으로 되었다. 이 認識은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나 方法論이 이 시대 진리탐구행위에 적합한 도구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추구활동에 부정부상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와 비판에서 출발한다.

19세기 思想에 입각한 現代社會科學에 대한 회의는 內容面에서는 근대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이며, 方法論의 측면에서는 단순화, 법칙화, 이론화의 맹신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것이 오늘 날 思惟의 위기이자 社會科學이 빠진 딜레마이다. 西歐(19C) 思想의 認識論의 危機인 것이다.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社會科學은 이렇게 歐美에서의 보편적 진리추구보다는 자신의 사회와 국가속에서 부딪치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西歐社會를 배경으로 성립한 社會科學의 기본틀을 무원칙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基本理念과 學問體系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基礎學問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東·西洋의 古典들을 집중적으로 익히게 함으로써 大學의 學部 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지식과 종합적 판단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다음 世代에서는 우리 자신의 理論과 文化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晚時之歎의 感은 있지만 天道敎의 敎理를 平和觀이라는 측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 소론은 필자 자신의 길잡이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東學은 東學革命이 일어나기 30여년전 崔濟愚(1824~1864)가 창시한 종교이다. 당시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東아시아에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西勢東漸이 더욱 노골화되던 시기이다. 이 때 서양의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세력을 떨쳐가고 있었는데 조선朝의 指導理念인 주자학은 이미 思想的으로 그에 대항할 수 없는 空理空論이었다. 힘으로나 사상적으로 민족적 위기를 느낀 水雲은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守心正氣)는 말을 기

본이념으로 한 東學을 창시한 것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事人如天)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고 平等·平和의 思想을 실천해 나갔다. 이 自由·平等의 平和思想이 東學이란 종교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실천덕목이었다.

東學革命 당시에는 事人如天思想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였기 때문에 종이나 백정 등 천민들이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다.

조선왕조가 무너진 다음 일제통치로 들어가자 東學이 天道敎로 현도되면서 “사람이 한울”(人乃天)이라는 思想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게 된다.

이러한 東學이 조선반도에 있어서 平和理念 연구의 현안으로 되는 남북의 自由主義 이념과 社會主義이념을 통일할 수는 없는 것일까. 결론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自由競爭, 自由主義의 資本主義와 계급타파, 平等主義의 社會主義는 물체의 양면처럼 원래 하나의 思想的 뿌리에서 분화되어 나온 理念들인 것이다. 그 하나의 思想은 무엇인가. “人是天이니 事人如天하라”는 이러한 人乃天의 정신에는 自由가 스스로 內在되어 있고 또 사람마다 平等일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乃天思想이야말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정치이념을 평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요한 통일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東學은 우리나라의 主體思想인 동시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精神的 道德的 최고이념인 것이다. 이제 時運이 와서 다시 東學의 平和觀을 비롯하여 東學 본연의 목소리를 제창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II

平和란 무엇인가. 또 왜 오늘 날 平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두고 특별히 東學의 平和觀을 注目하여 그 理解와 分析을 도모함은 각별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平和’의 사전적 의미로는 “화합하고 고요함,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 없이 세상이 잘 다스려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平和共存’이라는 단어는 “이익이나 서로 반발하는 두개 이상의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理論과 實踐을 현실적으로 보장해가는 운동”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20C에 들어와 西洋哲學은 唯物論과 觀念論의 대립, 理論과 實踐의 균열, 마음과 몸의 갈등 등 산적인 人類의 平和와 福祉의 問題앞에 더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리하여 근대 서양철학의 구조적 모순(二元論)에서 파생된 우리 韓民族의 남북분단과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두고 이제 대립과 갈등이 아닌 和解와 調和의 연구가 世人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東學革命을 주도한 東學思想에 대한 學問的 탐구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고 하겠다.

혹자는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의 有機體哲學을 東洋哲學을 통해 人間과 自然, 神의 統一을 파악하여 兩哲學의 유사성을 밝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여 20C의 데카르트로 불리는 화이트헤드의 有機體哲學과 天道教思想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화이트헤드가 그의 思想을 哲學的으로 발전시켰다면 東學의 창도자 崔水雲(水雲은 號, 本名은 濟愚, 1824~1864)은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社會變革에 적용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哲學적 命題의 핵심은 “하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하나가 되는” 창조성으로 이는 韓國語의 ‘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한’의 概念 속에는 하나(one)와 다수(many)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人格神인 ‘하느님’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兩哲學이 유사성을 뛰어넘어 東洋哲學이 西洋哲學을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모든 존재는 자기 창조적이며 전체가 완전하다면 또한 부분도 완전하다”는 명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의 存在論은 具體와 抽象이 연속적(續)으로 일어나(起)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兩哲學의 유사성을 韓國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면 栗谷의 '理通氣局論'과 水雲의 '待天主造化定'에서 東-西哲學의 만남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理는 하나이고 수만가지로 분별되는 것은 氣가 하는 일이다."(理=一者, 氣=多者). 이러한 논리의 理通氣局論은 화이트헤드의 '영원대상'과 '사실존재'와 같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理氣가 처음이 없으므로 끝이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므로 다함이 없고, 박이 없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영원대상과 사실존재도 본래부터 이러한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現代哲學 또는 神學課題는 絶對無(佛敎)와 人格神을 調和시키는 일인데, 지금까지 西洋의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자의 無의 개념을 무시해온데 비해 東洋의 氣나 道思想은 人格神을 결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이트헤드는 그의 思想을 哲學적으로 발전시키게 되고, 水雲은 이를 宗教적으로 승화시켜 사회변혁에 적용시키게 된 것이다. 西洋哲學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天道敎思想은 이리하여 이제 東-西哲學을 접목시키는 架橋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東學의 平和理念의 哲學的 背景의 근원을 이루는 '至氣'의 개념을 韓國의 傳統思想과, 理念的 原理로 되는 '한' 思想과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선 東學의 平和觀을 民族統一과 3·1정신과의 관계를 통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民族의 統一은 平和主義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 3·1정신이 비폭력의 평화적 정신이었는데 이는 韓·中·日 3國이 東洋平和의 기초를 이루고 나아가 世界平和의 디딤돌이 되자는 의미에서 平和主義를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同胞간의 統一의 방법 역시 3·1정신처럼 어느 계층이나 집단의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폭력이나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비폭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멸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한마디로 統一과 平和는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民族統一과 平和의 추구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요, 동일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韓國의 고유사상인 '한사상'은 崔孤雲의 鸞朗碑書에서 밝힌 것처럼 儒, 佛, 仙道思想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源流는 檀君思想으로 그 思想에는 仙道的 색채가 강하다. 그 仙道的 색채는 中國老莊의 道教思想이전에 한국에 고유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檀君이 지었다고 하는 天符經에 담겨 있는 思想은 一을 하나인 동시에 무궁하여 無始無終한 것으로 보아(一始無始—一終無終—) 이른바 '한' 思想을 밝히고 天地가 다 인간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고 하여(人中天地—) 인간의 不老不死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神仙思想이다. 이와 같은 단군의 신선사상이 조선 때 선비道를 이루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조선말에 이르러 儒敎의 경직화와 西學의 유입으로 그것이 흐려지자 孤雲의 28代孫인 崔水雲에 의하여 다시 재현 東學 思想이 되었다.

東學은 우주본체를 '至氣'로 설명하여 唯物論과 唯心論의 양극사상을 동시에 극복하는 통일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東洋哲學에서는 宇宙를 氣 또는 理로 생각하였다. 性理學에서도 우주의 정신적 본질을 氣 또는 理로 생각하였다. 性理學에서 '理' 또는 '氣'를 우주의 원리로 생각하고 太極圖說로 우주생성을 도식화하여 太極圖說은 無極-太極-理·氣-陰·陽-五行-萬物化生으로 이루어져 '理' 또는 '氣'가 우주생성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東學의 宇宙觀은 理·氣 二元論을 극복한 새로운 '至氣'의 哲學思想을 보여주고 있다. 水雲은 '至氣'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至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氣라는 것은 虛靈이 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기는 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渾元한 기운이니라”고 하였다.

‘至’는 극을 의미하며 그것은 無極 또는 太極의 뜻이므로 우주의 근원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至氣’는 허령으로 우주에 편만하여 어느 일에든지 섭리작용을 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東洋哲學에서 ‘氣’를 물질적 본체로 생각했지만 ‘至氣’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靈的 본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한 우주의 근원적 물질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氣’와 ‘至氣’는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말하자면 ‘至氣’는 재관화할 수 있는 관찰대상이 아니라 신령한 氣化의 ‘氣’로서 ‘한울님’의 기운을 의미하며 모든 創造와 進化의 근원으로서 우주만유와 사람에게 接靈接氣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강령주문의 해석에서 ‘지기’는 한울님의 靈氣로서 사람의 誠願에 接靈接氣하는 氣化의 神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至氣’는 ‘至化至氣至於至聖’이라고 한 점에서 우주만유의 생성진화과정에 無機物, 生物, 人間, 超人間(聖人)에 이르는 모든 창조와 진화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至氣’는 우주만유와 접하고 사람에게 강림하여 접령하는 기운으로서 한울님과 표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至氣’의 氣化之神이 사람에게 降臨한다는 것은 한울님의 靈이 사람에게 감응하여 侍天主의 경지에 들어가 聖人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며 이 점에서 한울님과 至氣는 二位一體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東學思想에서 말하는 ‘至氣’는 단순한 宇宙生成圖式의 최상위개념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人格神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東學의 宇宙觀은 理氣 二元論의 수용, 극복일 뿐아니라 초월적 唯一神에 의하여 宇宙萬物이 창조되었다는 創造論을 극복하고 나아가 進化論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한울님의 造化로 보고 造化는 곧 無爲而化라고 하여 道敎的 無爲思想까지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東學의 至氣論은 性理學의 主理說과 主氣論, 또는 唯物論

과 唯心論 그리고 創造論과 進化論 나아가서 無爲自然說까지도 수용, 극복하여 하나로 귀일시키고 통합된 새로운 원리를 보여준 것이다. 宇宙萬有와 萬象은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인 '至氣'의 氣化로 대립을 포용하면서 盛衰의 변화와 萬化歸一의 순환으로 새로운 創造의 進化和 開闢을 이루어 나간다고 본다.

한편 東學의 神觀은 一神論과 汎神論의 양극의 神觀을 극복한 人乃天神觀이다. 東學은 신앙대상인 神을 '한울님'이라고 한다. '한울님'은 古來로부터 우리 민족이 믿어온 神에 대한 고유 명사이다. '한울님'의 '한'은 민족전통관념의 '한'을 뜻한다. 그것은 하나를 뜻하는 동시에 큰 것을 뜻한다. 하나(一)와 큰(大) 것이 합하여 '한울님(天)'을 이룬다. 가장 작고 가장 큰 것의 反對·一致의 개념이 '한'이라는 한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한울'의 '울'은 '우리'를 뜻하고 무궁한 우주의 전체를 뜻하며 '님'은 神을 인격화한 존칭이다. 水雲은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 말은 무궁무한의 '한울'과 나와의 合一을 뜻한다.

'한'의 서로 반대되는 뜻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辨證法的 사고와 意識이 韓民族에 있어서는 먼 옛날부터 있어왔다. 그것을 東學에서는 反對一致의 변증법적 사고로 본다. 그것은 全體와 個體의 합일로서 天人合一의 思想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이 東學에 있어서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人乃天의 神觀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人乃天의 神觀은 종래의 外界에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온 超越的 唯一神의 觀念과 한울속에 내재한다고 보는 內在的 汎神의 觀念을 동시에 극복한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이면서도 또한 內在的인 神을 뜻한다. 말하자면 神은 內在的이면서 超越적이고 一神的이면서 汎神的이고 人格的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反對·一致의 妙合을 보인 것이다. 이리하여 東學思想의 기본 입장은 神觀의 統一로서 一神論, 汎神論, 내지 無神論까지도 통일 극복한 것으로 思料된다.

한마디로 東學(天道教)은 그의 哲學과 宇宙觀, 神觀에 있어서 상반되는

모든 모순을 포용하고 극복하는 高次元의 平和的 理念體系로 구성되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III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東學革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치체제의 개혁과 사회변혁적 理想을 함축한 다양한 사상을 두고 동학혁명을 이끌어가는 전봉준을 비롯한 변혁의 주체가 東學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려 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추상적 관념형태로 제시된 變革思想은 그 자체가 자기완결적 논리체계로 정립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執綱所의 思想과 實踐에 그리고 이의 統一을 관심을 가지고 有意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집강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폐정개혁의 조항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여기서는 먼저 집강소의 변혁이념의 한 중심축이 되는 弊政改革案의 토지의 '平均分作'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동학혁명의 궁극적 지향점인 평균분작의 문제는 農者得田의 원칙을 반영한 토지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논리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論理는 東學의 平和觀에 입각한 均產主義的 理念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데 매우 큰 歷史的 意味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 水雲이 創造한 “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이라 한 '人乃天'의 原理에 입각한 새로운 지도이념을 집강소를 통해 실천으로서 理論과 實際를 一致시킨 東學의 造化論的 平和觀의 구체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東學과 같은 韓國의 傳統思想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 시킴으로서 그 土臺위에서 民族主義, 民主主義, 民生主義, 文化主義의 現

代政治理念을 民主的 社會主義랄까 民族的 民主主義의 理念型으로 구현해 나갈 때 民族의 平和統一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南北의 현실은 서로 外來思想에 집착되어 냉전논리의 단순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립을 완화, 해소하는 平和統一의 철학사상이 韓國思想 속에 간직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西歐式 民主主義와 資本主義 그리고 東歐式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모순과 갈등을 平和的으로 해결하는 슬기와 哲學은 韓民族의 전통사상 속에서 발굴할 수 있으며 그 제도적 理念的 장치에 대해서는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理念的 摸索”, “韓國政治研究의 接近方法에 대하여” 등의 글에서 개진한 바 있다. 그것을 굳이 현대적 용어로서 표현한다면 民主的 社會主義, 또는 民族的 民主主義로 결부시킬 수 있으나 보다 더 소박하게 말해서 韓國 民族主義 또는 韓國的 民主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그 思想은 현대의 民族主義, 民主主義, 民生主義, 文化主義의 概念을 한반도의 현실상황과 한민족의 이익과 문화전통에 부합하게끔 그 취지에 충실하게 구현되어지는 사상이다. 이제 文民政府의 시대를 맞이하여 東學의 造化의 思想에 의한 地上天國, 後天開闢의 정신에 따라 國內外의 모든 思想對立과 남북한 관계를 圓融會通케 하는 民族思想을 토대로 平和統一로 접근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7천만 동포는 이제 이러한 동학의 政治理念이 제시하는 平和共存과 和解, 和合 그리고 民族統一의 길로 모두 동조하고 나설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

敎祖伸冤運動과 「東學革命」의 發端

申 榮 社

(忠北大 史學)

1. 머리말

1894년 전국에 걸쳐 벌어진 반봉건 반제국주의 성격의 민족운동은 종전의 다른 사회 변혁운동과는 몇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지녔다. 우선 결모습에서 동학 조직에 의거해서 군현 단위의 지역성을 뛰어넘은 점이 다르고, 다음은 개혁이념과 외세 배격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무장봉기한 사실이 다르며, 또 한정된 지역이지만 개혁 이념에 따라 집강소를 통해 일련의 개혁 구상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전근대 사회체제가 근대 사회체제로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일어난 이 때의 변혁운동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특정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급속히 변모해간 농촌사회 내부의 여러 요인과 신분질서의 동요 그리고 외세의 침투에 따른 민족 위기의 심화 등은 그 주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배경과 직결되는 계기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東學이 이러한 변혁운동의 발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급격한 무장활동이 벌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전기간에 걸쳐 어떤 형태로든 東學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나 여기서는

東學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정리하려고 한다.

2. 敎祖伸冤運動의 展開

東學이 창도된 1860년대 초부터 양반지배층은 이 새 宗教가 가진 반체제 성향을 예민하게 파악하였다. 이미 기존 체제는 여러 면에서 취약성이 드러나 위태로웠다. 정치체제는 파행을 거듭하여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사회구조를 떠받쳐온 신분제와 지주전호제는 그 틀이 무너져갔다.

이러한 사회 동요는 농민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나라의 기강이 풀어진 결과 조세 수취는 가혹하였고, 지주와 전호농민은 항조운동을 둘러싼 갈등에 시달렸다. 양반지주층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체제는 아직 만만하지 않았다. 농민항쟁은 진압되고 수탈은 강화되었다. 부농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단 토호들에 시달렸다. 그와 함께 19세기 내내 지속된 자연재해가 겹쳐져서 가난한 농민들은 희망을 찾을 길이 없었다.

바로 동학은 이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복음처럼 보였다. 후천개벽을 그린 교리가 아니더라도 동학은 직접 민중생활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속속 동학에 입도하였고 교세는 늘어갔다.

尙州의 道南書院 유생들은 동학의 실체를 잘 파악한뒤 크게 경계하였다. 「동학에는 班常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고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有無相資하고 있어서 비천한 계층·홀어미와 홀아비·빈궁자들이 모여든다」는 것이고, 또 전파력이 놀라워서 「東學徒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마을 모두, 그리고 한 향촌 전체가 차차 그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교주는 마치 장각이 36방에 부하를 두고 지휘한 것처럼 숨어서 이를 통솔한다」고 하였다.

양반과 상민의 귀천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반의 특권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아예 드러내서 양반을 존중하지 않는 주장을 펴니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또 비천한 층이 결속하는 것도 걱정이었다. 이들은 언제 화적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였다. 더구나 전파력이 빨라서 여러 마을로 퍼져나가면 향촌사회의 지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까닭에 그냥 둘 수 없었다.

왕조정부도 양반지배층과 의견은 같았다. 앞으로 더욱 세력이 커지면 그 성향으로 보아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마침내 탄압을 결정하고 1864년 敎祖 崔濟愚를 체포해서 처형하였다.

동학은 제2세교주 崔時亨에 의해 뿌리를 내리고 각처에 확산되었다. 동학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교리와 더불어 실천을 강조하는 여러 방침에 의해 독실한 도인을 늘려나갔다. 최시형은 무엇보다 신분제를 부정함으로써 피지배층을 자각하도록 깨우쳤다. 그의 주요 설법은 實踐과 嫡庶 차별을 타파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사람은 곧 한울이라 귀천의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사람을 천하게 여김은 한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동학이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도인들 서로간에 경제면에서 도우라는 교단의 방침이다. 有無相資 즉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와서 살아가자는 말은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富益富 貧益貧」의 사회 구조 속에서 동학은 나라조차 감히 구제할 수 없다는 가난한 농민의 생존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소백산맥 주변에서 시작한 동학의 포교지는 평야지대로 확장되었다. 충청도의 젊은 지식인이 들어가 교단은 활력을 얻었고, 전라도와 경기도의 혁신 지식인들이 가담하여 조직이 전국에 퍼졌다. 그러나 왕조정부와 관헌이 보기에 동학은 여전히 사교에 불과했다. 그래서 엄격히 금지하였다. 지방 관헌은 도인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사교의 신도는 재물을 빼앗겨도 호소할 길이 없었다. 갈수록 박해받는 동학 도인들이 많아졌다.

동학 도인들에 대한 탄압상은 부패한 관리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또 부정한 관헌들에게 도인들은 더 만만한 대상일 뿐이었다. 즉 이것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도인들만 박해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동학 도인들이 관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은 농민들의 불만을 대신 터뜨려주는 격이 되었다.

동학 도인들의 항의는 교조신원운동 형태로 벌어졌다. 공주 시위를 거쳐 삼례에 수천명의 도인이 모여 항의를 하면서 충청 전라 양도 감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교조가 억울하게 처형된 까닭에 동학이 사교로 박해를 받고 있으니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주장이었다.

창도 후 처음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인 교단과 도인들은 색다른 경험을 쌓게 되었다. 도인들 개개인에게 지방 관헌이 들이닥칠 때는 무서웠지만 무리를 지어 항의를 하니 전라감사조차 달래서 해산시키려는데 급급하였다. 이것은 몹시 새로운 경험이었고, 동시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사건이었다.

이 자신감을 배경으로 동학 교단은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그것은 1893년 정월 보은 장안마을에 大都所를 설치한 것이다. 30년에 걸치는 세월동안 피신지를 오가며 지낸 최시형이 관아가 멀지 않은 평지마을에 大都所를 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런데 학계는 말할 것도 없이 동학사의 서술이나 천도교사의 편찬상에서도 大都所의 설치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目次の 주요 편차로 정하거나 章節의 제목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한 바가 없다. 教祖 水雲大神師를 시초로 해서 海月神師와 義菴聖師 순으로 서술하는 인맥 중심의 설명 가운데 한귀절로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大都所의 설치 사실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위의 설명대로 첫째, 그것은 전국에 걸친 교세 증대로 교단이 자신감을 가진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그 후 지방관청이 아닌 왕조정부를 상대로 포교를 공인받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이는 놀라운 변신이다. 셋째, 전국의 동학 도인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중심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교주와 간부들이 늘 피신하고 다닌 까닭에 각처의 도인들은 수행이나 활동시 의지할 상징 장소가 없었다. 이제 보은 장안마을이라는 총본부가 마련된 것이다.

그 뒤 동학 도인들은 보은 장안마을을 聖地처럼 기록하고 있다. 도인들 뿐아니라 관청의 문서나 지방 양반들의 문헌에도 보은 장안마을은 동학의 거두가 주재하는 지역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진다.

서울의 복합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관헌의 박해는 더 심해졌다. 교단은 처절한 호소에 따라 다시 시위운동을 결정하였다. 1893년 3월 10일 장안마을에 도인들을 집결시키라는 통유문을 내린 것이다.

무자비한 관헌의 박해로 인하여 불만에 차 있던 도인들은 즉각 보은으로 모여들었다. 불과 며칠만에 수만명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포교의 공인만 요구하지 않았다. 동학의 탄압은 당시의 지배체제의 부패와 관련되고 또 외세의 침투를 막는 일이 긴급한 문제인 것을 알았던 까닭이다. 그래서 사회개혁과 외세를 경계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輔國安民과 斥倭洋倡義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은 동학이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차지하는 역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래 동학은 사회 비판 흐름 위에서 창도되었다. 짧은 시기에 발전한 것은 오로지 그 까닭이다. 또 임진년의 원한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침략 기회를 노리던 일본을 경계하고 서양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창도 배경은 보은집회의 결행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사회운동 또는 민족운동의 성격은 복합상소부터 강화된다. 특히 수탈이 집중되고 동시에 일본으로 미곡이 대량 유출되던 전라도 지역에서는 급진운동 세력이 적극 활동에 나섰다.

보은집회와 같은 시기에 전라도의 금구 원평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소극적인 교단의 간부가 보기에 방법면에서 과격하여 위협하게 여겨질 여러 활동을 펴나갔다. 원평집회에서는 장안집회에도 많은 수가 참가해서 급진 사회운동으로 방향을 틀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크게 급진과 온건 두 가지 구분되는 성향이 드러났다. 교단의 온건 성향은 인맥에 따라 이루어진 전국 대부분의 조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일부 지도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진 성향은 전라도의 많은 지역과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보은집회 당시에는 이 문제로 직접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왕조정부는 설득과 무력의 강은 두 방법을 써서 장안과 원평집회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병대까지 동원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장안집회에 모인 도인들은 돌성을 쌓아 지키면서 강경한 자세를 한 동안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3. 「東學革命」의 發端과 東學

1894년 봄의 「東學革命」은 전라도 古阜지역의 농민항쟁에서 시작되었다. 이 첫 단계의 과정은 1862년 壬戌 항쟁 이래 그 당시까지 전국 여러 군현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농민항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조선국가의 지배체제는 郡縣 단위의 행정 기구를 토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30여년에 걸쳐 각 군현 내부에서 관치질서를 뒤흔든 농민항쟁은 주목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결과, 토지 소유자의 위치에서 밀려나거나 적은 규모의 토지만 가지고 가난하게 살던 농민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 수취가 지나쳐서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한 상태였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다.

그러면 고부라는 작은 군에서 군수 趙秉甲의 탐욕에 항거하여 일어난 별다른 항쟁이 왜 전라도 전 지역과 충청도 일부지역의 항쟁으로 번졌고, 또 나아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었는가? 그 발단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수습책이 잘못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정부는 「古阜民亂」의 원인을 규명하도록 李容泰를 안핵사로 파견했다. 그는 후임 군수 朴源明이 고부민을 안정시키고 난 후 뒤늦게 고부에 와서 이 「民亂」을 東學 도인들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혹독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안핵사의 이러한 조치는 터무니없이 근거없는 조치였고 이로 말미암아 3월의 대규모 봄 봉기가 일어났다고 서술해 온 것이 관례였다.

그렇지만 동학과 고부의 농민항쟁이 전혀 관련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敎祖伸冤運動 즉 삼례집회 이래 원평집회에 이르는 시기에 금구 태인 고부 등지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 일대의 동학 도인들은 1893년 3월 원평 구미란 마을 앞 「강변집회」에 모인 참가세력의 중심이었다.

다음, 동학이 守心敬天의 道라서 좋아했다는 접주 전봉준이 「고부민란」의 주동 역할을 했다면 그와 가까이 지냈던 고부의 동학 도인들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원평집회가 해산된 뒤 전봉준과 김개남이 전라도지방에서 敎衆을 거느리고 혹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잡오년까지 계속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893년 11월의 沙鉢通文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통문 내용 중 「이 때 道人들은 先後策을 討議決定하기 爲하여 古阜 西部面 竹山里 宋斗浩家에 都所를 定하고 每日 雲集하여……」를 보면 道人·都所와 같은 동학에서 쓰던 용어가 나온다. 물론 이 통문은 단순한 종교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변란을 꾀한 움직임의 전해주는 문건이지만 동학에 입도했던 사람들이 벌인 극단의 활동상을 보여준다.

고부군에서 행한 안핵사의 조치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위에서 내린 것이다. 동학 도인들의 관련 사실을 안핵사에게 알려준 사람은 관아가 접거되었을 때 곤욕을 치른 고부의 향리들로 추정된다.

고부의 농민항쟁은 급진 성향을 띤 인근 군현의 동학 조직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대규모의 무장봉기로 확대되었다. 그 까닭으로는 지도자인 전봉준의 인물됨과 손화중·김덕명 등 대접주들의 혁신 성향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왕조정부에 정면으로 항거해서 일어난 무장봉기가 전례 없이 郡縣과 道界를 뛰어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배경으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동학과의 관련 문제이다.

동학은 단순히 지도자와 조직만 군사 편제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동학혁명」의 발단 당시부터 동학 조직의 접주와 도인들이 기포를 결정하였고, 농민군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동학에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동학에 입도하는 것은 곧 동학의 「守心敬天의 道」에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뜻하였다. 1894년 동학이 가장 성했던 시기에 어느 마을에서나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주문이 들렸다는 기록을 음미해야 한다.

그러면 동학과 관계없이 집회와 무장봉기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기록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보은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장안마을에 온 宣撫使 魚允中은 집회 참가자의 성분을 몇 가지로 나누었다(부적과 참위 신봉자, 백성을 위한 투사, 반외세 민족운동가, 관과 토호의 피해자, 빈농, 상천민). 전봉준 공초문의 初招問目에는 기포시에 冤民의 비율이 많았다는 증언이 있다(고부 기포시에 東學이 많았느냐 冤民이 많았느냐? 기포시에는 원민과 동학이 비록 합했으나 동학이 적고 원민이 많았다).

보은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원민이나 유랑민이 아닌 각 포접 조직에 속한 도인들이었다. 따라서 여러 성분으로 구분했는지라도 그것은 도인들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한 다채로운 인물들이 입도해서 집회에 참가할만큼 열성적이었다고 한다면 동학의 지지 배경이 특히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을 토대로 아주 넓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부 기포시에 도인보다 원민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교세가 증대했다는 표현은 사교로 탄압받아 위축되었던 동학이 은밀히 포교를 계속하여 각도와 많은 군현에 도인들의 포접조직이 들어찰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지 한 군현 거의 모든 사람이 동학 도인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안해사 이용태는 동학 도인이 亂을 일으켰다고 빙자해서 富民을 비롯한 고부민에게 혹독한 보복과 약탈을 자행했다. 亂民이 합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4. 맺는 말

여러 군현의 동학 조직이 원민과 합세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교조신원운동이 주목되어야 한다. 수천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사전 움직임이 없이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1894년 봄 전라도 고부의 농민항쟁에서 촉발되어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로 무장봉기가 확산된 것은 삼례와 보은집회를 경험한 동학 도인들의 조직력과 투쟁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원민이 합세한 뒤에도 동학과 관련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개 입도 절차를 거쳐서 「新入道人」이 되었다. 반면 그 절차 없이 동학을 위장한 「無賴輩」들도 兩班地主層에 대한 공세에 나선 예도 적지 않았다. ■

東學革命과 淸日關係

— 淸日戰爭當時 日本政府의 東學運動觀과 그 後遺 —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日本.奈良女子大學 名譽教授)

1. 서 론

오늘 발표에서는 일청전쟁 당시 일본정부가 동학운동을 포함한 조선의 민족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고찰해서, 그러한 시점이 근대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朝鮮觀 나아가서는 아시아 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도룩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발표의 全文은 논문 간행용 원고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고, 본 발표는 시간관계상 이 全文의 요지를 요약한 요약문을 발표하겠습니다.

2. 『건건록』에 있어서 「동학당의 난」에 대한 기술

일청전쟁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무쓰무네 미쓰는 전쟁직후 일청전쟁시의 외교지도에 대한 전말을 명확하게 기록한 「건건록」의 맨처음 章에 「동학당의 난」을 설정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淸韓兩國政府가 동학당의 반란에 대한 內治와 外交를 잘못된 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의 봉기를 계기로 해서 일청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출병시킴으로 해서,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일청 양국,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에 大變化를 가져오게 한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쓰 외무대신은 이 제일 첫머리의 章에서 동학의 봉기를 전면적으로 論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동학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 지는 이 문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동학농민을 「亂民」으로 보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6월 22일 일본정부가 청국정부에게 보낸 소위 「第1次絶交書」에서 「조선에서 자주 變亂과 事變이 일어나는 것은 조선이 독립국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잠자코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에 조선을 안정시키는 方策을 확정하기까지는 일본의 군대를 철수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內政改革을 일청 양국에서 진척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청국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을 배경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조선의 「내정개혁」이라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지만, 실은 이 「내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쓰외무대신에 의하면 결코 「내정개혁」 그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청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외에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정부에 있어서 「동학당의 난」은 조선침략을 위한 하나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만 보았지, 동학운동의 객관적인 실태를 규명하여,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조의 손길을 보내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 농민봉기의 배경으로 된 모든 모순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은 일본정부의 시야 밖에 있었다고 본 발표자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3. 일청 전쟁중 조선의 민족운동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조선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러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朴宗根 구마모토(熊本)상과대학 교수는, 1982년 간행한 저서 「일청전쟁과 조선」이라는 책에서 일청전쟁 중 조선민중의 반일운동 실상을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일청전쟁중 조선민중의 반일운동은 아주 다양했었습니다. 즉 (1) 진격해오는 일본군과 맞대항했던 지역적 특징. (2) 반일운동을 영도했던 지도자들의 자세에 의한 영향. (3) 그 해당지역에서 東學과 儒敎 중 어느쪽의 영향력이 강했는가 약했는가에 따른 저항. (4) 민중의 생활상황 등 모든 요인이 뒤엉켜서 여러 형태의 반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운동 중에 일어났던 상황을 보면, (a) 소위 「봄의 봉기」 이후에 잠시 퇴조했던 東學系列의 세력이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자 거족적으로 저항하려고 재차 일어났던 것이나, (b) 일본군이 통과하는 지역에서의 식료품이나 人夫의 徵發에 반대했던 농민, 조선의 관리와 지방관 등의 반일 움직임, 또 (c)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에 반대해서 국왕에 대한 「봉건적인 충성」의 일념에서 일어났던 유학자들의 반일운동,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후 일찍이 1894년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安東을 중심으로 봉기했던 유학자 徐相轍 등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청전쟁이 시작되자 동학에 관계있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던 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조선 민중의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모든 조건 등에 의해서 서로간에 연결되기도 했고, 역사적으로는 보다 대규모적인 「反日義兵鬪爭」에 관련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민중의 민족운동에 대해 일청전쟁시 일본의 外交文書들은 이

러한 운동들의 주체가 모두 「東學黨」에 의한 것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문서들은 「事大主義」라든가 「淸國의 부추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고, 또 이들 동학도들을 「의지할 데 없는 빈민」 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조선민중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조선의 민족적인 입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던 견해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중의 反侵略, 反日行動을 「의지할 데 없는 빈민」이라든가 혹은 「淸國의 부추김」에 의한 행동 등으로 간주하고, 일본에 의한 군사적인 탄압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일청전쟁의 승리에 의해서 고양됐던 排外的인 애국심이 일본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후 점점 더 증폭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 후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해서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諸國, 나아가서는 세계의 피압박 민족이 제시했던 민족적 입장에 대해서도 뚜렷한 편견이 나타나게 되는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4. 오늘의 문제 -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소송과 관련한 쟁점 -

이러한 편견은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여전히 농후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하나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日本史 교과서를 집필하는 한 사람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전 동경교육대학 교수는, 1982년 일본사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격렬하게 비난하자, 일본정부가 이의 시정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그 후에 자신이 쓴 1981년 문부성 검정이 끝난 「新日本史」의 일청전쟁에 관련된 부분의 기술 (A)를 (B)와 같이 고쳤습니다.

(A)……1894(메이지 27)년 조선에 동학당의 난이 일어나자 일청 양국

은 동시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난이 진정된 후에도 조선의 內政을 둘러싸고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결국 일청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해에 까지 걸쳐 계속된 전쟁에서 일본군의 승리가 계속되었다. 이에 淸은 李鴻章을 使臣으로 파견해서 和議 할것을 요구해옴으로 해서, 일본대표인 이토오 히로부미와의 사이에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라는 내용을, (B)……1894(메이지 27)년 결국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해에 까지 걸친 전쟁에서 일본군의 승리가 계속되었지만, 전장으로 화한 조선에서는 민중의 반일저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淸은 李鴻章을 使臣으로 하여 和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 대표인 이토오 히로부미와의 사이에는 시모노 세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고치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문부성은 (1) 「조선에서는 민중의 반일저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기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 그것이 동학난이 재차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동학난이 처음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삭제된 채 그대신 동학난이 재차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만 쓰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생도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곤란하게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改訂申請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에나가는 재수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결국…… 전장터로 된 조선에서는 노동력, 물자의 조달 등 면에서 조선 민중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일이 종종 있었다. 라고 고쳐, 겨우 교과서로서 公刊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부성은 일청전쟁 중의 「조선민중의 반일저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일청전쟁이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전쟁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현재의 일본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기껏 「조선에서는 노동력, 물자의 조달 등에서 민중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東京地方裁判所に 訴訟되어 論難되었었지만, 判決에서는 문부성의 주장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5. 결 론

결국 일본에 있어서는 동학운동을 비롯한 조선의 사회적인 모든 운동에 대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고 하는 인식은, 일청전쟁 당시부터 완전한 편견에 사로잡혀온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은 현재에 있어서도 일본인이 갖고 있는 韓國觀의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처음부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의 신뢰를 받으면서, 모든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쌓기위해서는 나라의 크고 작음이나 貧富와는 관계없이, 그들 나라가 갖고 있는 각 나라와 민족의 민족적인 自主性, 민족적인 特性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필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학운동이 민족적인 차원을 계기로 하여 일어났다고 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일본의 偏見을 밑바탕에서 부터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東學革命と清・日關係

— 日清戰爭當時の日本政府の東學運動觀とその後遺 —

中 塚 明

(日本・奈良女子大學名譽教授)

はじめに

この報告では、日清戰爭當時、日本政府が東學の運動をふくめた朝鮮の民族運動をどう見ていたのかを考察し、その見方が近代日本を通じて、日本の朝鮮觀、さらにはアジア觀にどういう位置をしめることになったかを論じることになります。報告の全文は、論文刊行用原稿を見ていただくことにして、ここでは時間の都合上、ごく要約して報告します。

一、『蹇蹇錄』における「東學黨の亂」について記述

日清戰爭當時、日本の外務大臣であつた陸奥宗光は、戦後直後著した日清戰爭の外交指導の顛末を書いた『蹇蹇錄』の冒頭の章を「東學黨の亂」とし、日清戰爭の「近因は清韓兩國の政府がこの東學黨の叛亂に對する、外交を誤」つたことにあると書いています。1894年の東學農民の蜂起をきっかけに、日・清兩國が朝鮮に出兵し、朝鮮はもとより、日・清兩國、ひいては東アジアの世界に大變化をもたらすことになった日清戰爭が始められ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ます。

陸奥外相は、この冒頭の文章で東學の蜂起を全面的に論じたわけではあ

りませんが、彼が東學の運動をどう見ていたかは、この文章全體の調子からわかります。彼は基本的には「亂民」と見ていたとってほぼ間違いありません。

そして、1894年6月22日、日本政府が清國政府に送ったいわゆる「第一次絶交書」で、「朝鮮でしばしば變亂・事變の起こるのは、朝鮮が獨立國としての責任を欠いているからである。日本の安全保障の上からもこういう状況は黙過できないので、朝鮮を安定させる方策を確定するまで、日本の軍隊を撤兵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いました。朝鮮の内政改革を日・清兩國で進めようとの提案を清國政府が拒否したのに対して、日本政府が日本軍をバックにして、單獨で朝鮮の「内政改革」を進めることを宣言したのです。

ところで、日本政府は、朝鮮の「内政改革」なるものを提案しましたが、この「内政改革」というものは、陸奥外相によれば、決して「内政改革」そのものに目的があつたのではなく、日清戦争をひきこおすための「政治的」な意味しか持たないものでした。日本政府にとって「東學黨の亂」は、朝鮮侵略の一つのチャンスをもたらしたものであつて、東學運動の客觀的實態を究明し、朝鮮の政治的・社會的改革に寄與できるような、具體的な援助の手をさしのべるということは、考えていなかったのです。したがって東學農民蜂起の背景となつた諸矛盾についての客觀的分析は、日本政府の視野の外にあつたといつてよいと思います。

二. 日清戦争中の朝鮮の民族運動を日本政府はどう見ていたのか

日本の侵略をうけた朝鮮では、當然のことながら、これに反対するさまざまな動きが現れました。朴宗根熊本商科大学教授は、1982年に刊行した著作、「日清戦争と朝鮮」で、日清戦争中の朝鮮人民の反日運動の實態をきわめて精細に明らかにしました。それによれば、日清戦争中の朝鮮人民の反日運動は、きわめて多様でありました。(1) 進撃して来る日本軍との出會い方

による地域的特徴、(2) 反日運動の指導者の在り方による影響、(3) その地域で東學と儒教のどちらの影響力が強い、弱いかなどの問題、(4) 人民の生活状況、などの諸要因がからまって、さまざまな形態の反日運動が現出したのです。

具體的に起こったその運動を見ると、(a)いわゆる春の蜂起のあと一時、退潮した東學系統の勢力が民族的危機に舉族的に抵抗しようとして再舉したものの、(b)日本軍の通過地域で食料や人夫の徵發に反対した農民・李朝の高官や地方官などの反日的動き、また(c)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に對して國王に對する「封建的忠誠」の念から起こった儒者たちの反日運動、その代表的事例は、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後、いちはやく1894年の夏から秋にかけて、慶尙道の安東を中心に蜂起した儒者、徐相轍らの行動です。

これらに見られるように、日清戦争が始まると、東學に關係のあるものからも、またまったく東學とは關係のなかつたものからも、實に多様な朝鮮人民の抗日運動が起こったのです。それらは地域の具體的状況、諸條件などによって相互に結びつくこともあり、歴史的にはより大規模な「反日義兵闘争」に連ながるものであつたといえましょう。

これら朝鮮人民の民族的運動のほとんどすべてを、日清戦争中の日本の外交文書などは「東學黨」によるものとしています。しかも、それらは「事大主義」や「清國ノ使嗾」によるとか、あるいは「無頼ノ窮民」などと見られていました。つまり、この時期の朝鮮人民の民族運動に、朝鮮の民族的立場を客觀的に認めた見解は皆無といつてよろしいかと思ひます。朝鮮人民の反侵略・反日の行動を、「無頼ノ窮民」、「清國ノ使嗾」によるものなどといひ張り、日本による軍事的彈壓を正當化したのです。

そして、日本でのこのような認識は、日清戦争の勝利によって高揚した排外的愛國心が日本の社會に彌漫することによって、以後ますます増幅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うした認識は、その後の日本では、ひとり朝鮮に對してそうであるばかりでなく、中國をはじめアジア諸國、さらには世界

の被壓迫諸民族の民族的立場への、いちじるしい偏見の基礎となったのです。

三. 今日の問題 —— 日本での教科書検定訴訟における争点

こうした偏見は今日の日本でも、なお色濃く残っています。教科書検定での一つの例をご紹介します。高校日本史の教科書執筆者の一人である家永三郎元東京教育大學教授は、1982年、日本史の教科書記述について、韓国はじめアジア諸國の激しい非難が起り、日本政府がその是正を約束した後、自分の著作である1981年、文部省検定済『新日本史』の日清戦争に関連するつぎの記述 (A) を、(B) のように改めようとした。

(A) ……、1894(明治27)年、朝鮮に東學黨の亂がおこると兩國は出兵したが、亂鎮定後の内政をめぐって兩國の關係はさらに悪化し、同年8月ついに日清戦争がはじまった。その翌年にわたる戦いで、日本軍の勝利がつづいた。清は李鴻章をつかわして和を求め、日本代表の伊藤博文との間に下關で講和條約を結んだ。を、(B) ……、1894 (明治27)年、ついに日清戦争がはじまった。その翌年にわたる戦いで、日本軍の勝利がつづいたが、戰場となった朝鮮では人民の反日抵抗がたびたびおこっている。清は李鴻章をつかわして和を求め、日本代表の伊藤博文との間に下關で講和條約を結んだ。と改めようとしたのです。

これに対し、日本の文部省は、(1)「朝鮮では人民の反日抵抗がたびたびおこっている」という記述は何を指しているのか明らかでない、(2)それが東學の亂の再發について述べたものであるとすれば、東學の亂の初發について述べた部分を削除して、それに替えて東學の亂の再發について述べるという結果になり、生徒にとって理解困難である、などの理由で、この改訂申請を拒否しました。

その結果、家永は再修正をよぎなくされ、結局、……戰場となった朝鮮で

は勞力・物資の調達などで人民の協力を得られないことがたびたびあった、と書き直して、やつと教科書として公刊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

日本の文部省は、日清戦争中の「朝鮮人民の反日抵抗」について教えることによって、日清戦争が日本による朝鮮侵略戦争であったことを、現在の日本の高校生が知るのをさまたげ、せいぜい「朝鮮では勞力・物資の調達などで人民の協力を得られないことがたびたびあった」という程度の記述なら許容範囲だとしたのであります。この不当な處置は、東京地方裁判所で争われましたけれども、判決では、文部省の主張が認められています。

むすび 東學運動をふくめた朝鮮の民族運動の歴史的解明の重要性

つまり、日本においては東學運動をはじめとした朝鮮の社會的諸運動における民族的契機の認識は、日清戦争當時からきわめて偏見に満ちたものでしたが、その状況は現代においても日本人の朝鮮觀の基底に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として残存しています。

今日、韓国・朝鮮をはじめ、アジア諸國はもとより、日本が國際社會にひとしく信頼をもって迎えられ、諸外國との友好關係を築くためには、國の大小・貧富にかかわらず、それぞれの國・民族の民族的自主性・民族的特性を正當に認識することは不可欠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ありません。

そういう觀點からも、東學における民族的契機について科學的な研究が進められることは、日本における上記のような偏見を根底から改めるうえでも、大きな意味をもつものと考えます。この「東學革命 100週年紀念 國際學術大會」が、多大の成果をあげることを期待して、私の報告を終わります。■

